



12

1988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88. 12호

(루게 494)



◆◆◆◆◆◆◆◆ 차 례 ◆◆◆◆◆◆◆◆

끝나지 않은 세월-1988 년	4
주체사상의 창시자 김일성 동지	5
영원한 별 김정일	5
빛나라, 정일봉이여.....	6
빛나는 청춘시절 그 어데 있는가.....	6
고마운 품	7
동해라 천리는 풍어의 천리	7
자세	8
어머님과 함께	17
눈내리는 주작봉 마루에서.....	20
금로수	21
어머님은 언제나 여기에 계십니다	22
우리는 백두산에서 왔다	22
참된 삶의 요람에 대한 진실한 생활적 화폭.....	23
《건국》호 선원.....	28
떠나는 마음	35
건설장에 비낀 노을은.....	38
노 래	38

농장벌에 더 많은 트랙또르를!.....	39
나에게 친구들이 많은것은... ..	41
한 상등병처녀의 뒤에는	42
도표선을 다시 그리라.....	43
공장길에서	44
시에서 산문화를 없애고 운률을 살리는 문제를 두고.....	45
내 기쁨 쇠돌아 (외 1 편).....	48
철산에 핀 해바라기	48
아들의 물음앞에서.....	49
지붕에 대한 생각.....	51
나는 병사출신의 광부.....	52
영원히 지워지지 않으리	53
아름다운 꽃.....	53
행진복	54
공화국기발	61
작가의 문제	62
원추리	66
민요풍을 살려내는것은 민요의 민족시가적 특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본성적 요구	74
불이 붙는다.....	78
금년도 《조선문학》에 발표된 작품들을 두고.....	79

끝나지 않은 세월-1988 년

박세일

그냥은 떠나보낼수 없구나

1988 년이여 !

가슴에 불안고 너의 하루하루와

뜨거운 이야기 속삭이고싶구나

당중앙위원회 편지의 구절구절을

그대로 명령으로 받아안고

우리는 너의 첫 기슭을 떠나왔다

금별의 대하가 설레이던

영광의 대회장을 거쳐

40 뼛 경축의 축포가 오르던

9 월의 광장을 지나

오늘은 이렇게 너와

열렬한 작별의 인사를 나눈다

장하다, 조선의 1988 년

세월은 지구의 그 어디에나

1 년 열두달을 똑같이 남겼지만

우리는 그 1 년 열두달을

몇십년 맞잡이로 빛내었나니

영웅들의 호소에 천만이 호응하여

다시 한번 200 일전투에로 !

바쁘게 달려온 날과 날이여

제 3 차 7 개년계획의 돌파구를 열며

혁신으로 맞고보낸 달과 달이여

세월은 세월대로 흐른다 하라

그래도 너만은 가지 않으리

저기 순천의 비날론공장과

북변땅 굽이굽이 새 철길과 더불어

광복거리와 사리원카리비료공장...

이해에 더 한층 키를 솟군

그 모든 기념비들과 더불어

너는 이 땅우에 머물러있으리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으리

들끓으며

솟구치며

나래쳐오른 1988 년

너는 정녕

로동당시대를 빛나게 수놓은

또 한페지의 장엄한 서사시가 아니냐

공산주의 지름길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우리 수령님의 시간속에

너의 하루하루가 놓여있었고

공산주의 새 아침을 조선의 하늘가에

남 먼저 펼치시려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시간에 맞춰

너의 달과 달이 흘러왔나니

자랑이여라 1988 년

너는 전투에서 전투에로

줄기차게 이어진 투쟁의 해

영웅적인 삶의 불길이

온 나라에 타번진 혁신의 해

그 어느해보다 더 많은 일을 해놓은

아, 크나큰 위훈의 해

그 계주봉을 이어받아

새해에는 더 큰 걸음 내짚으려니

그 모든 날과 날에

너 우리와 함께 있자

너 우리와 함께 가자

1988 년이여 !

인민의 마음속에

조국의 추억속에

아, 끝나지 않은 세월이여

주체사상의 창시자 **김일성**동지

안와르 피트라트

위대한 수령님
그이는 가장 탁월한 사상가
그이는 가장 천재적인 이론가
그이 뿌리시는 사색의 빛발은
절망에 잠겨있는곳마다에
붉은 꽃 만발하게 하여라

그이 지니신 비범한 예지는
그윽한 향기되어
동서남북 그 어디나
미치지 않는데 없이 퍼져가고
그이의 손길따라
나래펼친 천리마
창공높이 날으네

주체
이는 그이의 사색의 열매
온 세계를 자주의 화원으로 꽃피워가고
열대의 사막에도
시원한 생명수 부어주어라

위대한 수령님
그이는 가장 탁월한 사상가
그이는 가장 천재적인 이론가
그이 뿌리시는 사색의 빛발은
절망에 잠겨있는곳마다에
붉은 꽃 만발하게 하여라

(필자는 파키스탄신문 《데일리 장》 부주필임)

영원한 별 **김정일**

룸뿌앙쏘니 베나조

별들이 구름속으로 자취를 감추어도
마냥 빛을 뿌리는 별
그 별 조선에 솟아있거니
그 별은 **김정일**
온 우주를 밝히는 별
어제날의 치욕과 멸시를 가셔버린 땅에
행복한 삶 가져다주신 그이

김정일 그이는
기쁨과 행복의 상징
조선에 사회주의의 승리를 안아오시고
인류의 영예를 구원하신분

온 세상 그 어디에 가나
그이의 이름 존경과 영광으로 불리우고
그이의 령도를 높이 찬양하여라
그이의 위대한 업적을 노래하며
그이께 존경과 흠모의 정 표시하여라

그이는 향도의 별
찬란한 빛발로 온 세계를 영원히 비쳐주거니

현대조선의 영원한 별
그이를 모심으로 하여
조선인민은 가장 행복한 인민
세계는 그이께 경탄과 선망의 눈길 돌리어라

그이께서는 조선의 통일을 이룩하실분
억압받는 인민들을 구원하실분
하기에 인류는 영원히 그이를 우러러모시리

우리는 축원하노라
그이께서 주체위업을 승리적으로 계승해나가시기를
인류의 구성이신 그이께서 만수무강하시기를

(필자는 자이르사람임)

빛나라, 정일봉이여

서봉제

앞을 보면
승엄하고
둘러보면
성벽같아

어깨를 결은 봉과 봉
다투어 나서는 바위와 바위들로
요새의 병풍을 둘러친
백두산밀영

천만 눈길 다 모으는 절묘함
절승의 아름다움만을 간직한것 아니구나
혁명성지의 웅장함 한품에 꺼안고
거연히 솟은 **정일봉**이여 !

쳐다보면
슬기를 안고 펼친 긴 나래로
구름을 휘잡아 백두창공으로 솟구치는
저 룡마바위도 눈아래 거느렸고

새겨보면
장수의 긴칼을 무겁게 들고
소백수에 천만무사의 기상 버리는
저 장검바위도 발밑에 꽃았는가

장엄한 봉밀 아늑한 밀림속터전에
백두산의 만년주추돌을 고여 받들고
향도의 태양 안아올린
2월의 장엄한 해돋이로 천하를 부르더니

온 세상에 새겨주시였구나
아버이 우리 수령님
여기 밀영의 고향집뜨락에서
그토록 감회깊이 바라보시며 불러주신
아, 그 이름 위대한 **정일봉, 정일봉 !**

세상에
그 아름다움 자랑하는 산이 있다 해도
세상에
그 높이로 이름가진 봉우리 많다 해도
세상에 그대같은 봉우리 다시 없으라

허나 준엄한 항일대전의 폭풍을 헤쳐
태양의 위업을 이어 솟아오른 봉우리
동트는 새벽이면
백두의 노을빛으로 고이 다듬고
별뜨는 밤이면
백두의 긴 은하수로 고이 씻어
아름다움속에 어린 밀림의 그 역사를 찾아
웅장함에 비끼 투쟁의 그 년대를 찾아
온 세계의 발걸음 여기로 달려오누나

오,
백두산의 장군봉과 어깨 나란히
역사 천만년에 쌓은 위업을 자랑하며
조국 천만년에 꽃필 미래를 지켜주며
백두산고향집과 더불어 만대에 솟아 빛나라
정일봉이여 !

가사

빛나는 청춘시절 그 어데 있는가

송기중

한생에 둘도 없는 빛나는 청춘시절
그 어데 있는가 심장에 물어보라
키워준 사랑 못잊어 뽕눈피 볼태운
위훈의 자욱우에 청춘시절 있다네

세월이 흘러간뒤 우리 먼 후날에
꿈꿨던 그 시절 추억해보리라
번영하는 조국땅에 우리 간 자욱은

언제나 높이 솟아 청춘시절 노래하리

흘러간 청춘시절 다시는 못온다네
후회없이 살라고 심장은 고동치네
수령님 위하여 당중앙 위하여
바치는 우리 청춘 영원히 빛나리
아, 청춘이여 영원히 빛나라

고마운 품

리덕진

이 땅이 간직하고
세월이 쌓아올린
그 모든 귀중한것이
내 가슴에 안긴다 해도
내 받아안은 사랑에 비기지 못하리

내 한생에 받아안은
그 사랑 헤아릴길 없어
때없이 가슴에 솟구치는 뜨거운것이
내 마음속 감사를 대신하던가

아, 나이가 들수록 사무쳐오는
복받은 나날의 추억도 많아
내 조용히 생각에 잠길 때면
가슴속에 가득차오는 그리운 그 영상

은혜로운 태양을 우러르듯
그이의 영상 우러르면
자애넘치신 미소로
이 시각도 다정히 손잡아주시는듯

실무지도의 바쁘신 길에서도
서해 기슭의 이름없는 학교를
잊지 않고 찾아주시고
교단을 지켜선 평범한 나의 한생을
숨은 애국자의 높은 영예속에 빛내주신 그 사랑

귀밑머리에 내린 흰서리를

못내 가슴아파하시며
그사이 주름살이 더 늘었다고
이제는 늙지 말라던 간곡한 그 말쑥에
얼마나 뜨거운것이 내 가슴에 솟구쳤던가

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그 대해같은 사랑의 품에 안겨
누려온 한생에 다 갚지 못한
전사의 도리만이 가슴에 무거운데
오늘은 또다시 공훈교원의 영예까지 안겨주셨나니

고마워
그 은정 뜨거워
감격에 들먹이는 이 가슴에
터질듯 솟구치는 삶의 보람이여
청춘으로 뿔뿔히 심장의 박동이여

내 백발이 성성해도
내 앞엔 오직 그이께 바칠
젊음에 약동하는 심장만이 있어라
교단우에 피워갈 충성의 한마음
우러러 따르는 한길만이 있어라

아, 내 한생을
크나큰 사랑으로 지켜주는
고마운 품이여
내 삶의 영원한 은인이여

가사

동해라 천리는 풍어의 천리

한정규

동해라 기슭엔 명승이 많아
그 경치만 자랑이더냐
사시절 풍어의 기쁨 넘치는
어장도 자랑일세
아, 포구마다 만선의 노래높은
동해라 천리는 풍어의 천리

양식공처녀들 흥겨운 노래
파도 넘어 울려갈 때면
먼 바다 총각들 풍어기 달고

웃으며 돌아오네
아, 포구마다 만선의 노래높은
동해라 천리는 풍어의 천리

세상에 바다가 많고 많아도
우리 동해 제일로 좋네
인민의 살림을 꽃피워주는
풍어의 바다로세
아, 포구마다 만선의 노래높은
동해라 천리는 풍어의 천리

자세

최창학

그해는 봄도 일찍 오는 징조가 보였다.

해토머리에 들어서기도전에 강변에서는 벌써 복슬강아지같은 버들개지가 살이 퉁퉁 찌오르고 헛까치들은 때이르게 둥지자리를 보는지 짹을 무어나무가지에 앉아 조석으로 이마를 맞대고 깍깍거리었다. 하지만 상기도 겨울이 채 물러가지는 않아서 아침이면 가로수우듬지에 서리꽃이 하얗게 피는, 그래서 사람들이 아직 외투를 벗지 못한 1946년 2월말경의 어느날이었다.

이날 아침 서성철공소주인의 외동딸이며 령리하고 상당한 교양도 있어 경리일군을 따로 두지 않고도 철공소를 운영할수 있도록 아버지를 돕고있는 서옥심은 가까이에 있는 종로우편국으로 나가 복조선립시인민위원회 교통국에 전화를 걸었다.

《7호실입니까?》

울렁거리는 마음을 다잡고 그가 조심히 물어보았을 때 전화통에서는 향아리숙을 굴리는것같은 웅글고 둔중한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예-》

분명 찾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어서 옥심은 상냥하게 부탁해보았다.

《미안하지만, 명국동무를 좀 바꾸어주시겠습니까?》

《동무는 누구요?》

《저...전, 그 사람의...》

약혼녀라는 한마디가 입에서 선뜻 안나왔다. 그러나 상대방은 그 둔중한 목소리에 비해서는 속기빠르게 벌써 알아차리고 전화를 받는 태도가 대번 부드러워졌다.

《아, 명국동무의, 네네, 알겠습니다. 명국동무는 지금 외출중입니다.》

옥심은 찌룩거리는 송수화기를 두손으로 받쳐 든채 어쩔가 잠시 망설이였다. 그는 어제 집에 이따금 들리는 녀고보시절의 동창과 같이 강변으로 산책을 나갔으나 인차 돌아서고말았다. 얼마전에 다리에 입은 상처가 도져서 잘 걸을수가 없었다. 그것을 본 녀동창은 련화동에 있는 동의사가 능하다는데 그를 찾아가보라고 하면서 걷기가 힘들면 교통국의 명국동무가 있지 않느냐고 귀띔했다. 그래서 어쩔가 망설이다가 마침내 도움을 받기로 작정하고 전화로 찾았는데 판사람이 받는것이다. 옥심은 결혼도 하기전에 상대방직장에 전화질을 하는것은 삼가할 일이라고 생각되어 인제라도 단념할가 하였다.

상대방은 이쪽에서 서슴는 기미를 느끼고 무슨 일인지 비밀이 아니면 전해드리겠노라고 각근히 제의해왔다. 옥심은 그 친절에 용기를 얻어 저도 모르게 전화를 걸게 된 사유를 비쳐보았다.

《실은 저 명국동무한테 대기차를 좀 부탁할가 했어요. 병원엘 좀 가자고.》

《그렇습니까. 병원에 간다면야 보장해드려야지요. 곧 보낼테니 결혼식날 교통국의 이 구레나룻한테 술이나 한잔 부으시오.》

상대방은 아주 호의적으로 룡담까지 섞어 한마디 하고는 전화통을 놓았다.

옥심은 얼른 집으로 뛰어와서 몸에 걸쳤던 자케트 대신 옷장에서 새 외투를 꺼내입었다. 그리고는 커다란 চে경앞으로 가서 머리를 쓸어올리며 외투입은 옷매무시를 살펴보았다. 그는 전번달에 새로 지은 이 외투를 입을적마다 미소가 입가에 떠오르게 하는 흐뭇한 기분을 느꼈다. 그것은 이 새 외투가 설원데 없이 몸에 차분히 붙기때문만이 아니었다. 가분하고 부드러운 질감도, 연미색인 색깔도 세련된 취미를 가진 그의 기호에 꼭 맞았다.

그우에 셋하얀 목도리까지 두르자 거울속으로 보이는 옥심의 자태는 본인마저 혹할만큼 눈부시어서 방안을 들여다보던 남동생이 한마디 시까슬렀다.

《저렇게 공주님같으니 남자쪽에서 멸사봉공이지.》

《아니 저 입을 그저...》

《흥, 내 입이 그른 말 했소, 그 외투도 뭐 그 집에서 보내온 레장이라던데.》

파히 그른 소리는 아니다. 이 라사직 새 외투는 시어머니될분이 정초에 장만해준 천으로 저번달 《종로옷점》에서 지어입은것이니말이다. 자기가 행복하며 모든 일이 뜻대로 되여가고있음을 확신하는 녀자만이 가질수 있는 자아도취적이고 둥 뜨는 기분에 잠겨 옥심이가 함함한 머리칼에 빗질을 하고있을 때 승용차가 경적을 울리며 대문앞에 와뎀는 소리가 났다. 해방후에 도색을 새로 한 저 까만 《하야》는 왜정때 도지사가 타고다니던것을 몰수한 적산물이다. 그것을 녀두에 두는 소린지 옥심이가 곱슬머리 운전수의 안내를 받아 차에 올라앉는 것을 보고 이웃집 아낙네들은 혀를 차며 탄복을 했다.

《아유, 타고난 팔자는 따로 있다니까. 글쎄 저 옥심이가 해방전에는 아버지덕을 보더니 이제는 사

내덕을 벌써부터 저렇게 입지 않아요. 속이 편안해서 <하야>에만 척 앉아가누만.》

하기는 이런 소리가 이웃들의 입에서 나옴만도 하였다. 옥심은 아버지가 철공소를 경영하여 해방 전에도 궁기라는것을 그닥 모르고 살았는데 해방된 오늘에는 또 도지사가 타고다니던 《하야》에만 앉아 네거리에 나가는판이다. 그러나 아낙네들의 악의없는 이 뒤소리가 다 옳은것은 아니었다. 그가 속이 편안해서 그런다지만 실상은 옥심이한테도 한구석 불안이 있었다. 해방이 되자 린근에서는 옥심이 아버지가 곧 숙청될것이라는 뒤말이 돌았다. 이제는 가난하던 사람들을 내세우는 세상이 되었기때문에 지난날 돈냥이나 쓰던 자산계층은 한동아리로 몰아 축출해버린다고 했다. 어제 강변을 걸을 때 너동창도 너에 대한 《그 사람》의 태도가 여전한가고 조심히 물어보았는데 옥심은 우려가 담긴 말귀를 선자리에서 알아듣고는 《글쎄》하고 애매한 대답을 하였던것이다.

하기에 오늘 옥심이 명국이한테 전화를 하게 된데는 타산적인 심리도 작용하였다. 물론 기본동기는 차를 부탁하자는데 있었고 겹쳐서는 이런 부탁에 응하는 감도로 자기에 대한 명국의 태도에 그 어떤 변화가 없는지 조용히 한번 타진해보자는것이였다. 그런데 저쪽에서는 이 약혼녀를 조금도 허술히 대해서는 안된다는 관점이 얼마나 바로 서있는지 본인이 없는데도 전화를 하기바쁘게 차를 제창 보내왔다.

약진하는 새 조국의 기운은 거리에도 뻗쳐 인도건 차도건 활기를 띤 사람들로 붐비어서 차는 속력을 내지 않고 천천히 련화동쪽으로 향하였다.

해방직후여서 아직은 평양일판에도 몇대 안되는 고급승용차에 앉아 차창밖을 내다보는 옥심의 기분은 바람에 날리는 오뉴월 민들레씨처럼 붕 떠 있었다.

련화동 동의사네 집은 울타리가 있는 《7》자형의 합각기와좌집으로 한쪽은 살림방으로 쓰고 《련화동의》라는 간판이 걸린 다른 한쪽은 치료실이었는데 치료실앞에는 긴의자가 놓인 복도가 달려있었다. 옥심이 밖에 차를 세워놓고 복도에 들어섰을 때 기다리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진찰실문 가까이에 앉아있는 30 전후의 녀인과 옥심이보다 한발 먼저 들어선 모양으로 당목수건을 방금 목에서 풀고 있는 열두어살 난 소녀가 의자에 나란히 앉아있었다. 하지만 차를 밖에 대기시킨 옥심이로서는 차례를 기다려서 보자면 시간이 걸릴것 같았다. 그는 외투주머니에 손을 찌른채 킁킁하고 좁은 복도에 서서 잠시 망설이다가 방금 들어갈 차례가 된 녀인 앞으로 다가갔다.

그러나 옥심은 녀인의 얼굴을 가까이에서 마주보는 서슬에 주춤 서버리지 않을수 없었다. 녀인의 정기가 어린 눈빛과 얼굴에 떠오른 부드러운 미소는 첫 인상에도 무척 친근하고 다감하게 안겨왔지만 리지가 비낀 우아하고 현숙한 모습 전체에서는 함부로 대할수 없는 범상치 않은 기품이 엿보였다. 차림에서는 표나는것이 없었다. 옥심이 두른것과 같은 눈부신 목도리도 두르지 않고 그저 외투를 하나 입고 왔을뿐이였다. 그런데 이 외투로 말하면 단정한 몸가짐에 어울리게 말할나위 없이 깨끗은 하였지만 옥심의 라사직 새 외투와는 비교도 안될만큼 너무도 빛갈이 없고 수수해보였다. 그나마도 허리쪽에 띠를 둘렀던 형태가 또렷하게 남아있는 싹밥자리와 색깔로 미루어보아도 필시 그것은 이 시절에 흔히 볼수 있는 군인외투를 뜯어서 고쳐 지은 것이 분명하였다. 옥심은 다른 녀성들이 입고다니는 외투에 비하면 제가 입은 외투가 눈에 띄이게 호화롭고 빛이 남을 더욱 새삼스럽게 확인하자 불식간에 그 어떤 우월감이 생겨 녀인을 대담해진 눈길로 쳐다보았다.

《손님, 미안하지만 바빠서 그러는데 먼저 좀 볼수 없을가요?》

그가 레의를 갖추어 이렇게 량해를 구하자 녀인은 부드럽게 선뜻 응해주는 태도로 옆에 앉은 소녀를 돌아다보았다.

《애, 손님이 바쁘다는데 그렇게 하지?》

소녀는 그러자고 고개는 끄덕이면서도 입을 꼭 다문채 눈을 내리깔았다. 그 새침한 기색은 옥심을 고깝게 여기면서도 방금 집앞에서 들린 차소리와 그가 입은 빛다른 외투로 보아 보통녀자같지 않기에 양보는 하지만 아니꼽다는 불만을 로골적으로 드러내고있었다.

이윽고 치료를 받은 중년의 남자가 두루마기를 팔에 걸친채 진찰실에서 나오고 대신 옥심이 안됐다고 녀인에게 눈인사를 하면서 먼저 안으로 들어갔다.

허연 채수염에 은테안경을 낀 동의사가 인사를 하며 들어서는 옥심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다. 이렇게 보는것은 동의사들의 버릇으로 능한 동의들은 들어서는 환자의 얼굴을 보고 벌써 병조를 짚어낼줄 아는것이다.

방 한쪽에는 《동의보감》이며 《의방류취》며 《동의수세보원》 같은 의서들이 고색이 짙은 서가에 꽂차있어 옥심은 서가만 보고도 지금 자기를 뜯어보는 이 늙은 로인이 매우 유식하고 경험이 많으리라는 짐작이 들었다. 아니나다를가 동의사는 옥심의 상처를 보더니만 대뜸 어혈로 살속에 죽은 피가 생겼다고 하더니 부황을 붙여주고는 다음 환자를 불렀다. 그런데 들어오는 환자는 옥심이한테

방금 순서를 양보한 30 전후의 그 녀인이 아니었다. 또 한번 차례를 양보했는지 새침해 앉아있던 소녀가 옥심이쪽에 눈을 빨며 먼저 들어왔다. 성미가 매차고 울곧지 않은 이 소녀는 제 병을 보이자고 온 것이 아니었다. 동의사는 그 애한테 할아버지의 병세를 물어보고 할아버지에게 가져다드릴 한약 몇첩을 지어주면서 쓰는 법을 차근차근 가르쳐주었다.

옥심이가 랑해를 구했던 녀인은 소녀가 약을 지어가지고 나간 다음에야 들어왔는데 그도 옥심이처럼 외상때문에, 다리에 입었던 상처가 도져 동의사를 찾아왔다. 의사는 녀인의 상처를 보더니 낫색이 신중해지며 손님상처는 어디서 총상을 입었던 자리 같은데 웬일이냐고 그를 유심히 쳐다보았다. 그러나 녀인은 몇해전에 가볍게 다친것이 환절기가 오면서 도져 그런지 이따금 좀 말썽 때가 있을뿐이라고 별치 않게 대답하고있었다.

《주의하십시오. 절대 무거운 짐을 들거나 지고 다니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까. 상처가 도지면 큰 고생을 합니다.》

동의사가 침치료를 하고나서 녀인에게 당부했다. 그 말을 듣고 옥심은 녀인이 치료비를 물고 일어설 때 그의 손목을 꼭 잡았다.

《걷기가 불편하실것 같은데 제가 차로 모셔다드리겠어요. 복도에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렇게 하시지요?》

《괜찮아요.》

녀인은 늙은 의사에게 치료를 잘 받았다고 공손히 인사하였다. 그런 다음 옥심이한테도 치료를 잘 받았다고 목례를 하며 조용히 방에서 나갔다.

《편히 다녀가십시오.》

따라일어선 동의사가 사이문을 열어 잡고 서서 녀인을 바라주었는데 그 태도가 매우 정중하고 친절해보여서 옥심은 물어보았다.

《잘 아시는 사인가지지요?》

《그런게 아니요. 차림을 보아서는 러염집녀인같은데 어쩐지 존경이 가는구만.》

얼마후에는 옥심어도 그때까지 밖에서 기다려준 차에 앉아 집으로 돌아왔다. 마루에 올라서서 제방으로 들어가던 그는 문을 열어 잡은채 《아이, 오셨네.》 하며 함뿍 밝은 웃음을 지어보였다. 언제왔는지 약혼자인 명국이가 빈방에 울방자를 틀고앉아 기다리고있었던것이다. 옥심이쪽에서 다소간 긴장을 느낀것은 체경앞으로 가서 목도리를 풀며 거울속을 들여다보았을 때였다. 거울속으로 보이는 명국의 길쭉한 얼굴은 전에없이 어딘가 심각해보이는 표정이었다.

《어떻게 오셨어요?》

《내 없는 사이에 전화를 걸었다면서?》

《네, 공연히 전화를 했나봐요, 부서동무들이 하지 않을까요? 차를 좀 불러 썼는데.》

《그래서 빨리 다녀왔구만.》

《그렇기도 하지만, 먼저 좀 봤지요 뭐, 저... 거기 있잖아요. <오이꼬시>》

옥심은 질서를 어기고 앞질러 빠진다는 뜻을 우리 말로 담는 표현이 얼른 떠오르지 않아 왜말을 한마디 섞어가며 살짝 웃어보였다. 당시는 해방직후여서 사람들의 언어생활에서도 일제잔재가 농후했다.

《허, 교양있는 처녀가 <오이꼬시>를 하다니?》

《어떻게 해요? 차가 밖에서 기다리는데.》

《그래두 그렇지, 그건 아주 잘못된 일갈소.》

옥심은 짐짓 엄해진체한 명국의 힐책이 믿고하는 반론인줄은 알면서도 얼굴의 미소를 지워버렸다.

《동문 뭐 절 혼시하자고 왔어요?》

명국은 매사에 한난계처럼 반응이 예민하고 자존심 강한 약혼녀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애들지 않고 찾아온 사유를 말했다.

《그런건 아니요. 사실은 한가지 알아보려고 왔소. 좀전에 우리 교통국에 장군님의 부관이 왔더랬소. 그가 하는 말이 오늘 김정숙동지께서도 그 동의사한테로 치료를 받으러 가셨다고 하질 않소. 그래서 동무가 혹시 만나뵈지 못했는가 해서 왔소.》

《김정숙동지께서요?》

이야기가 천만뜻밖인데로 번지는통에 옥심이가 어리둥절해지는것을 보고 명국은 이해가 되도록 이야기해주었다.

《내 말하지 않았던가? 장차 동무의 시어머니가 될 우리 어머니는 김정숙동지의 오랜 전우요.》

《그래요? 그렇군요! ...김정숙동지께서는 병원에 오시지 않았어요.》

《그렇리 없는데.》

《그럼 저보다 먼저 보고 가신게지요. 제가 병원에 있을 때는 계시지 않았어요.》

정색했던 옥심은 긴장을 풀며 단언했다.

《그걸 어떻게 그처럼 단언하오?》

《김정숙동지께서 오셨으면 집앞에 차가 보였을게 아니예요.》

《김정숙동지께서는 사사용무로는 차를 쓰지 않소.》

사실이다. 장군님 부관이 교통국에 들린것도 그 때문이었다. 옛그제 교통국에서는 김정숙동지께서 외출을 하실 때 늘 걸어나신다는것을 알고 국에 있는 승용차중에서 그중 좋은 차를 한대 골라 전용차로 보내드리었다. 이것을 아신 김정숙동지께서는 일군들이 차출 일이 많고 연유사정도 긴장한데 나한테 무슨 전용차가 필요한가, 난 걸어나는것이 마음편하고 더 좋다고 하시며 당장 차를 돌려보내라고 부관에게 부탁하시었다. 그래서 부관은 어쩔수 없이 차를 돌려주려고 오늘 교통국에 들렸던길에 실토정을 하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산에서 싸울 때 총상을 입은 상처가 도져서 며칠째 고생을 하다가 련화동에 능한 동의가 있다는 말을 듣고 의사를 찾아가시었는데 오늘도 걸어서 가시었다는것

이었다. 물론 명국은 이런 내막만은 옥심이한테 말하지 않았다. 그걸 이야기하면 차를 보내라고 교통국에 전화를 한 옥심이가 부끄러워할수도 있고 자기를 비난하기 위해 그런 말을 한다고 곡해할수도 있을것 같았다. 그러나 명국이 이 내막을 말해주지 않은것은 대신 다른 역효과를 가져왔다. 그러지 않아도 해방이 되자부터 기업가의 딸이라고 자기에 대한 명국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았는가 해서 은근히 신경을 써오던 옥심은 그가 한낱에 품종고 찾아온 진의도를 의심하게 된것이다. 그리하여 옥심은 약혼녀로 응석에 가까운 살뜰한 애정을 가지고 상대방을 상냥하게만 대하던 애초의 몸가짐을 허물고 쌀쌀한 기운을 풍겼다.

《전 명국씨가 무슨 말을 하는지 리해가 가지 않는군요. 동무 말대로 하면 김정숙동지께서 편치 않은 몸으로 걸어서 병원으로 가셨다는데 그 말을 제가 믿을수가 있어요?》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는거요.》

《뭐라고요? 그럼 세상에 대고 물어보지요. 난 동무가 누구도 믿지 않을 말을 왜 이렇게 찾아와서까지 하는지 모르겠군요. 동무는 혹시 내가 차를 불렀다고 의견이 있는게 아니예요?》

옥심은 상큼하니 눈섭을 치켜올리며 차거워지는 시선으로 명국이를 쳐다보았다. 그러나 명국은 약혼녀의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그와 다툼의 의향은 더구나 없었던것만큼 그를 조금도 탓하지는 않았다. 다만 그가 서분하게 생각한것은 기분이 상한 순간부터 외곺으로 생각하며 도전적으로 감정을 앞세우는 옥심의 지나친 억측이었다.

《옥심동무, 진정하오. 난 그래서 온것이 아니라고 하지 않소.》

《글쎄, 제가 갔을 때는요, 너자로는 복도에서 기다리는 손님이 두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분들의 얼굴을 기억하고있소?》

《호참, 한명은 어린 소녀였구, 한분은요, 모습은 썩 현숙해보였지만 군인외투를 고쳐서 입은 30 전후의 보통녀인이었어요.》

명국은 《아이쿠》 소리가 나올만큼 얼굴이 해쓱해졌다. 현숙한 모습, 30 전후, 군인외투...

분명 김정숙어머님이시다. 명국은 김정숙동지께서 얼마전 《3.1 회관》에서 앞으로 태여날 인민정권에 대하여 연설하실 때에도 그런 외투를 입고 회의장으로 오시는것을 똑똑히 본 기억이 있다.

《옥심동무, 그럼 동무는 병원에 가서 <오이쪼시>를 했다는데 그분보다 뒤에 가서 먼저 보고왔단말이요?》

《랑해는 구했어요.》

명국은 억이 막혀 이상한 소리가 허파에서 나왔다.

진상은 명백하였다. 자기 약혼녀가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대기차를 전화로 불러라고 동의사네 집에 공주처럼 나타나서는 이미 걸어와서 차를 기

다리시던 김정숙동지보다 먼저 들어가 치료를 받는 망동을 부린것이다.

김정숙동지께서 옥심이를 한번 보고싶다고, 결혼식에 꼭 참석해주시겠다고 어머니한테 약속을 하셨다는데 장차 이 일을 어찌한단말인가? 이제 결혼식에 오신 김정숙동지께서 낮이 익다고 하시며 소개도 하기전에 신부를 대뜸 알아보고 《동무로구만》하고 실망하실 생각을 하면 참 기가 차지 않을 수 없었다. 명국은 어쩔바를 모르며 잠시 수습대책을 생각해보다가 돌연 요구했다.

《옥심동무, 갑시다, 동무는 그분을 찾아가서 용서를 빌어야 하겠소!》

《빌다니요?》

명국의 요구가 어찌 돌발적이고 명령적이었던지 옥심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며 항변적인 자세로 눈살을 찡긍이 세웠다. 그럴수록 울기가 오른 명국의 요구는 더욱 강경히 울렸다.

《빌어야 하오!》

《무엇때문예요? 저한테 잘못된것도 없거니와 그 녀인이 어디 사는지도 알지 못해요.》

《그건 걱정 마오. 그분이 사는 집은 우리 어머니가 잘 아오.》

그래도 옥심은 응할 기색이 아니었다.

명국은 그렇게 하는것이 옥심이한테는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것을 모르지 않았다. 그러나 명국은 아무리 부끄러워도 그것이 바로 옥심이자신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기때문에 일부러 속에 없는 말로 위협적인 언사까지 써보았다.

《중소, 동무가 정 그렇게 나오면 나도 생각이 있소.》

그러나 속대사가 있는 명국의 이 《위협》도 옥심이를 놀래우지 못했다. 오히려 그것은 원체 마음 한구석으로 상대방의 동정을 예민하게 살피오는 옥심의 신경을 자극하여 공연히 그의 분격만 촉발시켰다.

《그렇군요, 동무는 이제야 찾아온 본심을 드러내는군요. 사내들은 그렇게 뻔뻔스러운가요? 동무가 별말을 다 써가며 사랑을 맹세하던 때는 언제인데.》

근거없는 말이 아니다. 옥심이와 명국이 서로 알게 된것은 44년도 여름 보통간방에 큰물이 나서 강반의 모든것을 휩쓸어가던 날이었다. 그날 옥심은 서평양 이모네 집에 갔다가 돌아오던 길에 물란리를 만나 하마트면 물에 떠내려갈번 했는데 그때 물속에 뛰어들어 옥심이를 구원해준 청년이 바로 그곳을 지나가던 영국이었다. 옥심은 이런 반연으로 서로 알게 된후 처음에는 고마운 심정에서 명국이를 찾아다녔고 다음에는 불쌍하다는 생각으로 동정하였다. 알고보니 그는 어렸을 때 간도에서 부모를 잃고 고아로 북조선일판을 떠돌아다니다가 서평양 조차장에 입직한 혈혈단신이었다. 점차 명국의 사람됨을 알게 되면서부터는 동정에서 련정이 싹터올랐다.

두사람이 서로 사랑하게 되었을 때 명국은 열에 떠서 말했다.

《당신이 나같은 가난뱅이를 사랑하다니, 이제부터 난 당신의 노예가 될테요. 당신이 서라면 서고 죽으라면 죽겠소.》

그것은 어느 왕년에 들은바 있는 영화관 변사의 녀두리를 그대로 옮긴 황당하기 짝이 없는 수작이었다. 그러나 거기에는 명국의 진정이 담겨있었다. 그것을 알기에 옥심은 지금도 그 말을 잊지 않고있다.

그때 옥심을 태워버릴듯이 황황 타오르던 명국의 눈에는 얼마나 헌신적인 사랑이 어려여있었던가. 그러던 사람이 오늘에 와서 이렇게 나오다니? 옥심은 울고싶었다. 서러웠다, 처지가 뒤바뀌었다고 이럴까?

하긴 명국이가 턱을 쳐들만도 하였다. 해방은 그의 운명에서 극적인 전환을 가져왔다. 간도에서 헤어진후 죽은줄로 알았던 어머니가 항일유격대 녀투사가 되어 돌아왔다. 명국은 새 조국 건설에 발벗고나서 일약 교통국 일꾼으로 제발되었다.

《명국씨, 알겠어요. 제가 그만 서로 달라진 처지를 잊었됐군요, 그렇지만 알아두세요. 명국동무의 요구만은, 녀인을 찾아가서 사죄하라는 그 요구만은 받아들이지 못하겠어요.》

옥심은 숙어드는 기미가 조금도 없이 한자리에 도고하고 오연한 자세로 움직이지 않고 서있었다. 옥심이가 끝내 리해 못하고 오히려 반발심이 동하여 노여워하는것을 보고 명국은 그가 아연해할가봐 진작 말하지 못한 사실을 밝히지 않을수 없었다.

《동무는 알기나 하오? 동무가 어느분을 <오이꼬시>하고 감히 먼저 들어가서 치료를 받았는지 알기나 하는가? 그분이 바로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 어머니이시오!》

《뭐예요? 》

옥심은 방금 쓰러질것 같았다. 간신히 그는 몸을 지탱하고 상대방을 멍하니 한참 바라보았다. 그러나 랭혹한 리성의 도움으로 자신을 수습하게 되자 옥심은 머리를 저으며 좀전보다 외려 더 강경해진 어조로 반격을 가해왔다.

《그분이 김정숙어머니시라고요? 그럴수 없어요. 그럴수가 없어요!》

《도대체 동무가 내 말을 부정하는 근거는 뭐요?》

《근거는요? 내가 말하지 않았던가요? 그이가 김정숙동지이시라면 아무렴 고쳐지은 군인외투를 입고 걸어서 병원엘 다니시켰어요? 어때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른 말을 하면 거리에 나가 지나가는 녀인들을 붙들고 물어보지요.》

명국은 그만 말문이 꼭 막혔다.

도무지 옥심이가 그르다고 할수가 없었다, 그것은 옥심이가 무슨 특수한 녀자여서 그렇게 생각하는것이 아님을 명국이자신도 잘 알고있었기때문이었다.

(김정숙동지께서 고쳐 지은 군인외투를 입고 걸어서 병원엘 가시다니?)

명국의 생각에도 이것은 엄연한 사실인데도 거리에 나가 이야기하면 어느 녀인도 끈이 듣지 않을것 같았다. 수도의 모든 녀인들이, 온 조선녀성들이 다 옥심이처럼 생각할것 같았다.

그래서 명국은 궁지에 빠진 사람처럼 미처 할말을 못찾고 한참 찢찢했다.

이것은 옥심으로 하여금 자신의 문제가 정당함을 더욱 확신케 한 모양으로 명국의 요구에 응하자는커녕 그는 마침내 외투까지 벗어 옷걸이에 걸었다.

그래도 명국은 자체력을 잃지 않고 교양자의 립장에서 끝까지 리해시켜보자고 했다.

《글쎄 동무가 아무리 믿지 못해도 그건 사실이에요. 김정숙동지께서는 약속하신대로 이제 우리 결혼식에 꼭 참석해주실거요. 그러니 동무가 미리 찾아가서 사죄를 안하면 일이 어떻게 되겠소? 김정숙동지께서 그때 병원에서 <오이꼬시>를 한 얕전한 처녀를 먼저 알아보시면 동무꼴이 뭐가 되겠나말이요? 그래 대답해보우, 내가 미리 찾아가서 사죄하라는 요구가 무리한 요구인가?》

옥심은 상대방이 열을 올리며 설복을 하면할수록 의혹이 더욱 커져서 반신반의하던 자기의 고향을 거의 확정적인것으로 단정해버렸다.

(아니야, 이 사람은 처지가 달라지니까 나에 대한 태도도 달라졌어, 무슨 언력을 만들어서라도 날 한사코 때버릴 심산이야.)

그리하여 어느편에서도 자기 립장을 굽히지 않은 이들은 서로 닳하고 지어는 원망의 정도를 넘어선 적의까지 느끼며 매우 격하고 좋지 않은 감정으로 헤여지고말았다. 그후로는 두달이 지나도록 명국이쪽에서 통 발길이 없었다. 정작 두사람사이가 왕가물에 개바닥 터지듯이 이렇게 찢 버그러지자 옥심은 점차 속이 달아나기 시작하였다. 그는 입맛이 텅나 식음을 전폐하다싶이하고 명국이쪽에서 그 어떤 화해의 징조가 있기를 은근히 기다리게 되었다. 도대체 직장에 있으면서 것처럼 껌뻑을 안하는지 한번은 녀동무를 내세워 전화로 탐지까지 해보았다. 명국은 자리에 앉아있지 않았다. 요사이매일 공사장에 지원로동을 나간다고 했다. 이즈음수도 평양에서는 보통강개수공사가 한창이었다. 수도 시민들을 물란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이 공사에는 온 평양시가 떨쳐나섰다. 그러나 옥심은 다리의 상처가 도질가봐 바깥출입은 삼가하고 뺑각상태에 들어간 사람때문에 고민하면서 줄곧 상대쪽에서 무슨 소식이 오기만 눈이 까매서 기다리고있었다.

그런데 하루는 옥심이가 경대앞에 홀로 앉아 수척해진 얼굴을 들여다보며 실련당한 녀자같이 수심에 잠겨있을 때 명국이 자신이 직접 찾아왔다.

(아무렴 제가...)

옥심은 너무도 반가운김에 하마트면 《명국씨》하며 마주 달려나갈번 하였다. 그러나 마음을 다잡고 경대앞에 딱 붙어앉은채 우정 찬기운을 풍

기며 낯선 사람을 보듯이 명국이를 쳐다보았다. 이때까지 애간장이 타게 기다린 양갓음을 하자는것은 아니었지만 그는 이번 기회에 너자쪽을 그렇게 만만히 보면 오산이라는것을, 너자가 독을 쓰면 오뉴월에도 서리가 친다는 말이 결코 그른 말이 아님을 따끔히 보여주고 명국이쪽에서 전번에는 지나쳤다고 사죄를 할 때 짹짹하게 오금을 박으며 용서해줄 작정이었다.

그러나 명국은 사죄를 하기는커녕 들어서자바람 죄없는 경대들을 두드리며 전보다 더 아프게 모진 소리를 하였다.

《옥심동무, 창문을 열고 세상을 내다보시오. 그 래도 난 동무가 공사장에 얼굴을 내미는가 했는데 어떻게 이럴수가 있소? 동무도 해방된 새 조선의 녀성인가?》

옥심은 분하였다. 금시 숨이 넘어갈것처럼 노여웠다.

《명국씨는 절 모욕하는군요?》

명국은 옥심의 두눈에 가랑가랑 눈물이 고이는것을 보고 목소리를 낮추었지만 어조는 조금도 부드러워지지 않았다.

《모욕하는것이 아니라 가슴이 아파 비판을 하는 거요.》

《아이 분해, 명국씨가 어쩌면 내앞에서 이럴수가 있어요? 네? 나한테 사랑을 속삭일 때 제입으로 한 말을 잊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럴수가 있나말이 예요?》

옥심은 경멸하듯이 쓴 웃음을 지으며 옆으로 돌아앉았다.

《웁소. 한때 내가 그런 얼빠진 수작을 한것만은 사실이요. 하지만 내가 그런 황당한 수작을 한것도 실상은 동무를 그만큼 사랑하기때문이였소. 그 사랑은 오늘도 변함이 없소. 변함이 없기때문에 이런 요구를 하는거요.》

옥심은 레변같이 들리는 명국의 대답에 이제는 응수하고싶은 생각조차 없었다.

《나를 위해서라고요?》

《공사장에 나가보면 알게 될거요!》

옥심은 자기의 사정은 조금도 고려에 넣지 않고 일방적인 의사만을 강박하는것 같은 명국의 태도가 반감을 일으킬만큼 무례하게 생각되었다.

그러나 다음날 옥심은 공사장으로 나갔다.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당장 무슨 문제를 세울것 같은 명국의 기세가 두렵기도 하였지만 그보다는 옥심에게도 없을수가 없는 공민적인 의무감과 도대체 나가보면 깨닫게 된다는 소리가 무슨 뜻인지 알아보고싶은 호기심이 그를 공사장으로 떠밀었다.

매일 신문과 라디오를 통해 소식을 들어 짐작은 하고있었지만 공사장이 그렇게 들끓을줄은 참으로 몰랐다. 삽과 곡괭이를 메고 달려온 남녀로소로 공사장은 인산인해를 이루었는데 벌써 수대 쌓아올린 동쪽우에서는 오색기폭이 수풀처럼 나뭇기고 나팔주둥이같이 생긴 고성기에서는 해방된 새 조선의 기상과도 같은 건국의 노래소리가 광광 울려나왔다.

《영명한 령도자 김일성장군 만세!》

《북조선 민주건설은 새 조선 건설의 추진력이다!》

《반동분자들을 타도할 의기로 보통벌에 빨리 애국제방을 쌓자!》 힘있는 글발로 이렇게 쓴 프랑카드들이 사방에서 펄럭거렸다.

아침부터 서두른 옥심이 공사장에 어울릴만한 차림을 하고 중구역녀맹담당구간인 형제산과 서포천이 어울리는 지점에 나타났을 때 거기서는 벌써 수백명의 녀성들이 겹겹이 둘러앉아 노래를 부르며 한창 기세를 올리고있었다.

가슴을 몽클케 하는 노래 한절이 끝났을 때 옥심은 한 녀인이 자리에서 일어서는것을 보았다. 거리가 있어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차림새만은 똑똑히 보였다. 색날은 작업복에 자색끈으로 허리를 질끈 동여맨 젊은 녀인이었다.

그 녀인은 유순하고도 발랄한 선물에 맞추어 노래를 불렀다.

노래가 끝나자 녀인은 얼굴에 함뿍 미소를 담고 말하였다.

《동무들, 전 이 노래를 부를적마다 새 힘이 생깁니다. 지난날 천대받고 억눌리던 우리 조선녀성들이 장군님두리에 뭉쳐 새 조국 건설에 떨쳐나섰으니 이 얼마나 장한 일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이 공사장에 나와 자기가 뜨는 한삽 한삽이 얼마나 귀중한것인가를 잘 알아야 해요.

이 공사를 맡기하신 장군님의 구상속에는 지난날 피눈물을 뿌리며 살아온 토성량사람들을 홍수의 재난에서 영원히 구원할뿐아니라 온 조국땅을 인민의 락원으로 전변시키시려는 원대하고 깊은 뜻이 담겨있어요.

그러니 우린 지금 얼마나 보람있는 일을 하고있습니까.

동무들, 우리모두 힘을 합쳐 성스러운 조국땅에 구슬땀을 마음껏 바칩시다.》

《웁습니다-!》

마치 녀인의 호소가 그대로 종소리가 된듯이 작업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와 함께 일제히 호응하는 대답소리가 온 공사장에 메아리를 일으켰다.

옥심은 황홀하여 녀인을 바라보았다. 수수한 작업복을 입고 수많은 녀성들앞에 나서서 그들을 하나의 지향으로 가슴 뛰게 하는 녀인에게 대번 존경심이 갔다.

(어느 녀맹일군일가? 목소리는 어디서 한번 들은 목소리같은데 도대체 누구가?)

옥심은 눈여겨 녀인을 보기 시작하였다.

일터에 들어서자 그 녀인은 얼마 멀지 않은곳에서 질통으로 흙을 저날랐다.

그는 흙을 퍼담는 사람들이 됐다는 신호로 질통에 넘치는 흙을 삽등으로 치면 매번 한삽 더 담으라고 했다.

그리고는 달리다싶이하여 분초가 새롭게 높아가는 동쪽에 흙을 쏟고는 얼굴에 미소를 함뿍 실으

며 돌아서곤하였는데 귀밑머리는 땀에 젖어 불고 꼭 부여잡은 질통곤 역시 거기까지 내배인 땀발에 축축히 젖어있었다.

(어쩌면 저리도 극성일가? 아마 토성랑태생인 가보지, 그런데 귀에 익은 목소리는?)

옥심은 귀에 익은 목소리임자를 좀더 가까이에서 보고싶은 충동을 억제할수 없어 마침 동쪽에 흠을 쏟고 돌아오는 너인을 가까이 가서 마주보았다,

(아니?) 그는 눈을 비비고 다시보았다. 지금 옥심이 자세히 보게 된 이 너인은 석달전 동의사네 집에서 낫을 익힌 너인이었다. 군인외투를 뜯어 고쳐지은 수수한 외투를 입고 복도의 긴의자에 앉아 순번을 기다리던 너인, 옥심이 《오이꼬시》를 하는데 너그럽게 양보를 해주던 너인이 틀림없었다.

정기가 도는 눈과 입언저리의 부드러운 미소에서 그것을 확인한 순간 옥심은 이때까지 가슴 한구석에 묻어다니던 불안이 가뭇없이 사라지며 안도의 숨이 활 나가는것을 느꼈다. 석달전에 명국은 이 너인이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이라고 했고 옥심은 모를 소리라고 끝이 듣지 않았는데 그는 지금 너인을 마주보면서 자기가 그때 결코 실수를 한것이 아니였음을 더욱 확신할수 있게 된것이다. 이분이 김정숙동지이시라면 아무러면 색깔은 작업복을 입고 공사장으로 나와 저렇게 땀을 철철 흘리며 제일 힘든 질통을 지고있겠는가?

그런데 명국이와 마찰이 있는 뒤부터 기연가미 연가 여러달 품어온 의혹을 비로소 털어버리고 마음이 가벼워진 지금 옥심의 머리에는 다른 하나의 실은 의혹이 생겼다. 그는 아직도 석달전 그때 동의사가 너인더러 한 말을 기억하고있다. 상처가 도지면 큰 고생을 한다고 절대로 무거운 짐을 들거나 지고다니는 일은 삼가하라고 의사는 당부했다. 의사의 권고를 잊을리는 없겠는데 무거운 짐을 드는 정도가 아니라 일중에도 그중 힘든 질통지는 일을 어떻게 이 너인이 한단말인가?

옥심이 움직일줄 모르고 못박혀서 뿔어지게 바라보자 마주오던 너인쪽에서도 무춤 서서 이쪽을 보았다.

그러더니 마침내 너인쪽에서도 옥심을 알아보았다.

《이게 누구예요? 그때 동의사네 집에서 사귄 처녀동무가 아니예요?》

《아주머님, 뵙어요.》

《이렇게 공사장에서 또 만나니 반갑군요.》

너인은 가까이 다가와서 옥심의 땀에 젖은 손을 잡았다.

《아주머님, 그땐 제가 실례가 많았나봐요.》

《원 별말을, 어때요? 그때 치료받던 상처는 없어요?》

《네.》

《어서 질통이 넘어나게 도와주세요.》

너인은 그때일은 까맣게 잊은듯이 옥심이앞으로 질통을 내대며 밝게 웃어보였다.

일자리는 충천한 기세가 굽이치는 공사장 어디서나 시간따라 폭폭 났다. 강바닥을 파는 작업이여서 일감은 물론 좋지 않았다. 옥심이쪽에서는 삽질을 할적마다 젖은 흙이 찢덕찢덕 묻어오르더니 문득 감탕충이 나오며 생수가 터졌다. 신발이 젖어들어 옥심이 주춤 뒤로 물러섰을 때 생수는 벌써 가뜩이나 물기 많던 땅을 사방으로 질적하게 적시기 시작했다. 때아니게 터져오른 생수가 일감을 더 사납게 만들어 일에 지장을 주리라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했다.

감탕속으로 들어가서 빨리 물길을 한곳으로 여는것이 상책일듯했으나 여기는 중구역너맹이 맡은 구간이여서 주위에는 녀성들뿐이었다. 일을 못하게 됐다고 뒤로 모두 물러서서 어찌할바를 모르며 웅성거릴 때 옥심을 알아보고 방금 인사를 나눈 그 너인이 지하죽곤을 졸라매었다. 그사이 무섭게 터진 생수는 사나운 기세로 세력을 확장하며 어느새 기발대가 서있는 옥심이옆에까지 침습해왔다.

《기발대를 높은곳에 세워요!》

너인은 기발대를 뿔아 옥심이한테 맡기며 누구의 손에선가 삽을 받아들고 감탕속으로 들어갔다. 그러는사이 옥심은 기발대를 들고 씨원히 뻗어가는 동쪽우로 올라섰다. 옥심은 동쪽 제일높은곳에 기발대를 세우고 초여름바람에 펄럭이는 붉은 기폭밑에 서서 넓은 공사장을 둘러보았다. 이럴 때 옥심이가 서있는 동쪽밑으로 승용차 한대가 뽀얀 먼지를 일쿠며 달려왔다. 까만색인 류선형 모양이 눈에 익었다. 차창밖으로 얼굴을 내민 곱슬머리 운전수도 낯이 익었다. 분명 그 차, 옥심이가 련화동 동의사를 찾아갈 때 불렀던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대기차였다. 차는 속력을 늦추며 붉은 기폭이 펄럭이는 동쪽밑에 와서 멎어섰는데 차에서 내리는 사람은 뜻밖에도 명국의 어머니 정운화였다.

(웬일일가?)

옥심은 이때까지 명국이와의 사이가 몹시 좋지 않아져서 그 사람 어머니가 자기를 어떻게 대할지 불안했지만 머리수건을 벗어들고 정운화앞으로 달려갔다.

《어머니.》

《오냐, 너도 나왔느냐!》

정운화는 땀에 젖은 옥심의 얼굴을 이윽히 쳐다보았다.

《어머니, 어떻게 나오셨어요?》

《오냐. 김정숙동지를, 저 김정숙어머님을 모셔가려구 나오는 길이다.》

《어느분을요?》

옥심은 오목눈을 크게 뜨고 두리번거리었다. 그가 영문을 몰라하는것을 보고 정운화는 말해주었다.

《난 김정숙동지를 오래전부터 잘 안다. 우린 산에서 같이 싸웠단다.》

《저도 들었어요.》

《아니다, 애야 너는 다는 모를게다. 김정숙동지한테는 이런 공사장에 나와서는 안될 상처가 있단다.》

《예 ?》

《왜놈들과 산에서 싸울 때 입은 상처지. 그때문에 간봄에 의사를 찾아다니면서 치료도 받았는데 이 공사가 시작되자 첫날부터 계속 여기에 나오시질 않니. 그래 걱정이 되어서 어제저녁은 맥으로 찾아가보았구나. 그랬더니 글썽, 김정숙동지께서는 내가 들어서는것도 모르고 통통 부은 발목에 혼자서 뜸을 뜨시는중이었다.》

《아니 ? ...어쩌면 ?》

《그래서 아예 다짐을 두었지. 오늘은 내가 차를 가지고 올테니 병원에 가자고 단단히 말해두었다. 사사일로로는 차를 부르는 법이 없으니까. 헌데 이 일을 어쩌냐, 방금 교통국차를 가지고 맥에 들리니 또 공사장으로 나가셨더라말이다. 그래서 부랴부랴 찾아나오는 길이다.》

옥심은 이름할수 없는 감동의 격과가 가슴을 세차게 치는것을 느끼며 젖어드는 두눈을 습벅이기 시작하였다.

나를 한번 만나보고싶다고 하셨다는데...어서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을 찾아가서 인사를 올리고싶었다.

《애, 어서 좀 찾아다오. 이 어방에 계신다는데.》

정운화는 동쪽밀으로 눈길을 돌렸다.

《어머니, 어드분이지요?》

《오, 계신다. 저분이지. 저 감탕속에서 들어서서 삽질을 하는 분이시다. 아직 모르느냐?》

옥심은 소스라쳐 놀랐다. 정운화가 가리키는 김정숙어머님은 바로 방금전에 신발끈을 조이고 생수가 터진 감탕속으로 먼저 들어선 너인, 석달전에는 자기가 《오이꼬시》를 한 그 너인이었던것이다.

김정숙동지는 뒤따라 들어선 녀성들과 같이 무릎까지 빠지는 감탕속에서 땀을 팔팔 흘리시며 물길을 내고있었다. 김정숙동지의 얼굴에서 흐르는 땀줄기가 햇빛에 번쩍이면서 청신한 새벽이슬처럼 멀리 서있는 옥심의 눈에도 젖젖이 보였다.

옥심은 났을 잃을 지경이었다.

땅속에서 용솟음하던 기세처럼 제멋대로 사방으로 퍼지던 생수가 고분고분 길이 들어 한곳으로 흐르게 되었을 때 두번째 휴식시간이 되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함께 일하던 너인들과 같이 목수건으로 얼굴의 땀을 씻으며 바람목이 시원한 동쪽으로 나오시었다. 눈물이 글썽하여 한숨을 쉬던 정운화가 소리치며 달려갔다.

《정숙동무! 어쩌자고 그래요? 발목이 그렇게 부어가지고 또 나오시면 어떻게 해요?》

주위에서는 깜짝 놀라는 눈으로 끈을 조여맨 김정숙동지의 지하족을 일제히 바라보았다. 그들은

비로소 사태를 알아차렸다. 김정숙동지께서는 통통 부은 발목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지하족끈을 그처럼 조여맨것이다.

《운화어머닌 무슨 공연한 말씀음.》

김정숙동지께서 환하게 웃으시는것을 보고 정운화는 울상을 하였다.

《정숙동무, 어서 병원으로 가요.》

《운화어머니, 전 일없어요.》

김정숙동지께서는 더욱 밝게 웃었지만 이번에는 옆에 서있던 너인들이 정운화처럼 눈물이 글썽하여 울음섞인 목소리로 말씀드렸다.

《그 몸으로 공사장에 나오시다니 ?》

《어서 들어가 치료를 받으십시오.》

김정숙동지는 세차게 펄럭이는 붉은 기폭옆에서 정운화를 고맙게 쳐다보시었다. 옆에 둘러선 너인들을 조용히 둘러보시며 김정숙동지께서 말씀하시었다.

《생각해주시는 마음들은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전 공사장을 뜰수는 없습니다. 장군님께서는 공사를 장마철전으로 꼭 끝내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시었어요.》

여러분, 해방된 조국땅에서 우리 인민들이 피눈물나는 재난을 또 당해서야 되겠어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돼요.》

《발목이 부었다는데 어떻게 일을 해요?》

울음섞인 목소리가 옆에서 들려왔다.

부드러운 시선으로 그들을 둘러보시는 김정숙동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히, 그러나 더욱 절절히 울렸다.

《아니예요, 전 일없어요. 우리가 하는 일은 인민의 행복을 위한 일인데 발목이 좀 저린들 무슨 대수겠어요. 전 아무리 일하고 일해도 힘든줄을 모르겠어요. 일할수록 더 일하고싶어요. 전 그저 자나깨나 어떻게 하면 장군님뜻을 받들고 인민을 위해 조금이라도 더 저의 힘을 바칠가하는 생각뿐이에요.》

누구도 김정숙동지를 더 만류하지 못하였다. 대신 자기들의 났과 온 마음을 정화시키고 승화시키는 숭엄한 감정에 휩싸여 펄럭이는 기폭과 더불어 붉게 타오르는 김정숙동지의 얼굴을 황홀해서 바라보았다. 옥심도 그중의 한사람이었다. 그는 지금 김정숙동지의 모습에서 인간의 숭고함과 아름다움을, 그 무상의 극치를 보고있었다.... 이날밤, 옥심은 잠을 이룰수가 없었다. 그는 이제와서야 명국이 자기더러 공사장에 한번이라도 나가보라고 그리도 강경히 요구한 까닭을 깨달은것이였다. 더불어 옥심은 자신에게서 별 억측과 의혹을 불러일으킨 그동안의 명국의 요구가 백번 옳았음을 인정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리고 이 모든것보다 더욱더 명백해지고 그를 괴롭힌것은 자기가 분명 엄청난 일을 저질렀다는 죄의식과 그것을 의식하는 아픈 자책이였다. 옥심의 눈앞에는 김정숙동지를 처음 뵈던 그

날, 고쳐지은 수수한 군인의투를 입고 동의병원의 좁은 복도에서 순번을 기다리시던 김정숙동지의 모습이 선하였다.

녀성의 몸으로 장군님을 따라 조국광복의 성전에 나서 세운 그 불멸할 공적으로 보면 김정숙동지에게는 진정 금실로 짠 외투를 해드린대도 아까울 것 없다. 또 자신이 바라면 좋은 외투를 해입었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김정숙동지께서는 고쳐지은 군인의투를 입고 불편한 몸으로 걸어서 병원으로 가시었다. 오늘도 발목이 부어있는것을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고 공사장으로 나가 사람들을 새 조국 건설에로 불리일키며 누구보다도 더 많은 땀을 흘리시었다. 이것은 옥심으로 하여금 언제나 자신은 소박하고 평범하게 살며 오직 인민을 위해 헌신하는데서 생의 락을 찾는 김정숙동지의 자세를, 삶의 자세를 똑똑히 보게 하였다.

(그런 김정숙동지앞에 처음 나는 어떤 물골로 나타났던가, 좋은 외투를 입고 교통국의 차까지 불러 타고 병원에 가서는 그 좋은 외투가 마치 자기 인품과 지체를 말해주는 무슨 표적처럼 은근히 시위를 하면서 조용히 걸어가서 차를 기다리시던 김정숙동지보다 먼저 치료를 받지 않았던가. 얼마나 무덤하고 비천한 행동이었던가.)

옥심은 저도 모르게 일어나앉아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 생각하면 할수록 자기가 김정숙동지앞에 용서받을수 없는 죄를 지었다는것이 더욱더 명백해졌다.

(명국동무도 나를 결코 용서하지 않을것이다. 용서를 바란다는것은 량심없는 일이다.)

옥심은 분별력있는 녀자로서 자기가 김정숙동지와 함께 싸운 항일투사 정운화의 머느리로 되기에 너무나도 자격이 모자란다는것을 비로소 깨달았던것이다. 또한 정운화도 자기가 저지른 패썹하고도 엄중한 사실을 알게 된다면 절대로 용서해줄 것 같지 않았다. 그리하여 옥심은 가슴아프지만 제 스스로가 먼저 물러나야 한다고 결심을 내리지 않을수 없었다. 물러날 결심을 한 이상은 정운화한테서 받은 폐장을 가지고있을 근거가 없었다.

다음날아침 그는 새 외투를 보자기에 싸들고 자꾸만 나오는 눈물을 닦으며 명국이네 집을 찾아갔다.

《어머니.》

옥심은 무릎을 꿇고 보자기를 정운화앞에 풀어놓으며 터져오르는 울음을 삼켰다.

《어머니, 전 어머니의 머느리가 될... 이제보니 전 그럴 자격이 없는 녀자였어요.》

정운화는 몸을 뒤로 제쳤다.

《너 그게 무슨 소리냐?》

옥심은 지난봄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대기차를 불러타고 동의사를 찾아가던 일부터 시작되는 사연을 이야기했다. 정운화는 다 듣고나서 말없이 창밖

을 내다보았다. 한참후에 외투를 옥심이 앞에 도로 밀어놓으며 그는 조용히 말했다.

《애야, 깨달았으면 됐다. 이 외투는 김정숙동지께서, 김정숙어머님께서 마련해주신 외투란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김정숙동지는 해방된 조국으로 돌아오실 때 군인의투를 입고 돌아오셨다. 그런데 조국에 돌아오신 뒤에도 한겨울이 다 지나도록 계속 그 외투를 고쳐서 입고 다니시질 않겠니. 그래서 산에서 같이 싸운 우리 녀동무들이 그중 좋은 외투천을 한감 구해다가 김정숙동지에게 드렸구나. 그랬더니 김정숙동지는 동무들의 심정은 고맙지만 이러면 안된다고, 아직 나라 형편이 어렵구 인민들이 좋은 옷을 입고 다니지 못하는데 내라구 어떻게 이런 값진 천을 몸에 두르고 다니겠느냐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입어도 일 없지만 내가 입어서는 안된다고 말씀하시더구나. 그러시면서 김정숙동지께서는 머느리로 맞을 처녀에게 우선 외투라도 하나 해입히라고 그 외투천을 나에게 주셨다. 난 한사코 사양했지. 그애한테는 외투가 있다고 했어. 그렇지만 김정숙동지의 말씀이 오죽해야지. 장군님덕에 찾은 조국땅에 나와 아들까지 찾구 머느리도 맞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큰 경사냐, 이건 내가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성의이니 그리 알고 받아달라고 하셨단다.》

옥심은 마침내 어린애처럼 왕왕 울며 정운화의 무릎우에 얼굴을 묻었다.

《어머니, 그 이야길 왜 이때까지 하시지 않았어요?》

《김정숙동지의 부탁이었다. 아마 네가 미안해할가봐 그랬겠지.》

《아...전 리해가 안돼요! 어머니, 어찌면 김정숙동지께서 그러실수가 있을가요?》

《옳다, 너로서는 아직 리해가 안될수 있다.》

옥심은 정운화의 말속에 담긴 뜻을 이렇게 받아들이었다.

(네가 김정숙동지를 몰라본것은 김정숙동지께서 것처럼 소박하시면서도 것처럼 너무도 고결하시기때문이다. 너는 아득한 높이에 있는 참된 인간의 숭고한 세계를 다 볼수가 없었다. 김정숙동지는 이때까지 장군님뜻을 받들고 한생을 동지들과 인민을 위해 살았지 자기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바란것이 없었다. 실제 또 향유한것도 없다.)

옥심이 이런 해석을 하게 된것은 스스로도 이제는 김정숙동지를 거울로 자신을 폐부속까지 들여다볼수 있었기때문이었다. 자신을 그렇게 들여다볼수록 옥심은 자기의 온 마음이 김정숙동지에게로 달려가는것을 느꼈고 온갖 속되고 투명치 못한것을 깨끗이 빨아버린 자기의 온몸이 티없이 순결하게 정화되어 무한대한 높이에로 날아오르는것 같았다.

그때 옥심은 자기가 올라서게 된 새로운 삶의 차원에서 세상을 향해 이렇게 소리치고싶었다.

-어제도 오늘도 우리모두의 인간정신을 끝없이
높은곳으로 지향시켜주는 김정숙동지를 인생의 구
감으로 나도 그이처럼 살리라. 참되게, 빛나게.

시조

김정숙동지, 아, 내 인생의 별!-

어머님과 함께

림종근

동해선을 따라

서서히 열차는 떠나고
생각은 깊어만지누나
장군님 뜻 꽃피우시려
여기 북방땅을 찾으셨던
어머님의 모습 안겨와

추억의 쪽문이 열리며
목메이는 그리움 누를길 없어
차창문을 열어제끼니
아! 어머니 자옥 빛나는
철의 도시가 열마전이었는데
어느새 엮분진이구나

술숯을 흔드는 파도소리
어부들을 건국예로 부르시던
어머님의 다정한 목소리인가
물위에 부서지는 찬란한 햇빛
비릿한 선창가를 거니시며
어머님 지으셨던 미소인가

눈앞에 자꾸자꾸
환히 어려오는 인자하신 모습
가슴에 뜨거이 흘러드는 은정
소리높이 노래하며
열차가 가는지 우리가 가는지

목메이는 기적소리에 머리드니
아! 한눈에 안겨오는 산촌
장군님 한뜻으로
인민들을 묶어세우시던
어머님의 크나큰 업적을 안고
차창에 비껴드는 온천골

감격속에 뜨거움속에
따라오고 마주오시는 어머니
우리결에도 앓으시여
다정히 웃기도 하시고
항일의 이야기도 들려주시는가

어려웠던 건국의 나날
우리보다 먼저 이 길을 가시며
산촌과 어촌, 공장길을 걸으시며
행복의 큰 길 열어놓으시고도
열차에서 내리지 않으셨구나

아, 차창밖 어디에도
열차안 어느 좌석에도
김정숙어머님은 계시누나
우리과 함께 동해선을 달리시며
사람들을 충성예로 이끌고계시누나

노 래

백살구꽃 망울 터치는
못잇을 회령이 지척인 산촌
느티나무 그늘밑 너인들앞에서
어머님은 노래를 부르시여라
《사향가》를

아름다운 만경대를 그리시며

장군님 품에서 노래를 익히시던
만강의 달밤을 그리시는가
아니면 어머니 기다려
오늘도 사립문 열려져있는
산너머 고향집이 안겨와선가

존경넘쳐 우러르는 너인들에게

다정한 미소를 보내시며
사연많은 노래를 부르시는 어머님
따뜻한 눈길엔
깊은 감회가 어리셨구나

백두의 눈속에서
빼앗긴 조국 떠나온 고향
기어이 되찾을 마음 다지시던 노래
시련의 고비고비 맹세를 꿰어시던 그 노래
아 그림던 고향사람들앞에서
저렇게 부르셨으면...

하지만 고향에 앞서
이름없는 외진 산촌을 찾으시고
멍들었던 너인들의 가슴가슴에
밝은 햇빛 안겨주시니
느티나무도 목이 메여선가
노래를 안고 감격을 안고 설레이누나

한생을 조국 위해 바쳐가시는
심장의 노래

그리움으로
사랑으로
조국을 위해서만
세월과 세월을 이어
심금을 울려주는 메아리

노래를 따라부르는
가슴가슴에 간직되는 사랑
어머님께서는 노래를 부르시네
항일의 그날
건국의 오늘
조국 위해 청춘도 삶도 바치시는 그 길에
인민을 불러세우시는 투쟁의 노래

아, 어머님 부르시는 노래
은은히 장엄히
하늘땅 저 멀리로 울려가네
만대에 이어부를
조국에 대한 영원한 사랑의 노래로

영원한 환호성

천리 먼길 오실 때에도
환영의 꽃보라없이 조용히
우리 북관땅을 찾으시더니
천리 먼길 가실 때에도
배웅의 꽃물결없이 떠나셨네

기다리는 인민들앞에
수수한 너인처럼 나서시여
해방의 기쁨도 함께 나누시고
곳은 일도 함께 하시며
건국의 불길 높여주시던 어머님

가신뒤, 떠나가신 뒤에야
사람들은 비로소 수수한 그 너인이
오매에도 뵈웁고싶던 어머님
장군님 따라 해방을 안고오신
백두의 너장군이신줄 알았거니

어머님의 단별 외투마저 받아안았던
하숙집 처녀애의 가슴속에도
어머님 손수 풀어주신 우물길로
물길러 나섰던 너인들의 마음에도
감격의 파도 더더욱 솟구치네

어머님이신줄 몰랐을 때에도
받아안은 그 은정에 목이 메더니
지금에야 더더욱 뜨거워
어머님 다녀가신 공장에 항구에
혁신의 불길 세차게 타오르네

아, 오실 때에도 가실 때에도
인민들의 환호성은 받지 않으셨어도
날마다 더해만지는 그 감격
날마다 높아만지는 건국의 노래
그것은 어머님 우러러 드리는
조선의 영원한 환호성이라네

그 마을

뜨거운 배웅속에

지하투쟁의 먼길 떠나실 때에도

식량공작으로 하루이틀밤
자리를 뜨실 때에도
어머님 동지들과 나눈 인사말

《장군님의 안녕을 부탁드립니다.》

싸움의 오랜 나날
헤어졌던 대원들과 만나실제도
외진 재봉대밀영에
사령부 연락원이 찾아왔을제도
어머님 하신 첫 인사말

《장군님께서서는 건강하십니까?》

자신보다 먼저 장군님을
언제나 생각하고 위하시는 마음
기쁠 때에도 어려울 때에도
오로지 장군님만 따르는 그 마음
레사로운 인사말에도 꽃폈으니

아, 어머님 충성의 그 마음
대원들의 가슴마다에 옮겨져
백두광야에 불길처럼 타올랐거늘
우리 심장에 심어주신 조선의 인사말
다시금 다시금 외워보노라

《장군님의 안녕을 부탁드립니다.》
《장군님께서서는 건강하십니까?》

어머님과 아이들

해방의 기쁜 날에도

아이들이 귀여워서만
품에 안고 잠못드셨습니까
눈보라 장설속에서도
광복의 새 봄을 믿으셨기에
아이들을 사랑하셨습니까

보여웁니다 보여웁니다.
부암동과 처창즈, 이르는곳곳에
어머님 사랑 뜨겁던 아동단학교
고드름 드리운 피창가에 흐르던
어머님의 글소리 들려웁니다

혈벗은 꽃봉오리들
조국을 못본 그 어린 가슴들에
금수강산 삼천리를 안겨주시던
조선옷차림의 정깊은 그 모습
눈에 삼삼 보여웁니다

아,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에서
자신의 기쁨을 찾으시고
조선의 래일을 내다보시며
바치신 심혈 얼마이십니까
사랑을 바치고 정성을 고여 키운
혁명의 대들보들 몇백만입니까

희생된 대원들의 아들딸 찾아
조국땅 곳곳을 걸으시였습니다
낮과 밤을 이어
조선의 첫 탁아소, 유치원을 세우신
그 수고로움 잊을수 없습니다

장군님 바라시는대로
한몸 다 바치시어
혁명의 꽃봉오리들을 안아키우시고
한마음 다 쏟으시어
주체교육의 넓은 길을 열어놓으신
김정숙어머님이시어

아이들은 혁명의 미래였기에
그토록 사랑을 쏟으셨습니다
금수강산 우리 조국
영원한 우리 조국으로 빛내이실
한마음뿐이셨기에
그토록 마음 쓰시었습니다

아, 아동단원들의 선생님이로
아이들의 어머님으로
불러 정다운 그 이름 지니시고
오늘도 어머님은 꽃피우고계십니다

눈내리는 주작봉 마루에서

리정래

간밤부터 내리는 함박눈은 어느덧 주작봉 마루에
승업한 은세계를 펼쳐놓았다. 끝없는 경모의 마음을
안고 화강석계단을 오르는 우리들의 어깨와 머리우에
도 소복소복 쌓이며 수많은 사연을 속삭이는가싶다.

오늘은 뜻깊은 12월 24일,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 탄생하신
날이다. 그래서지 혁명렬사릉을 찾는 나의 마음은
각별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
시하시였다.

**《김정숙동무는 조국의 광복과 우리 혁명의 승
리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운 열렬
한 혁명가였습니다.》**

교양마당의 넓은 공지를 짝 메우면서 오르고오
르는 남녀로소의 손에 손마다에는 자신들이 정성을
다하여 피운 꽃송이들이 들려져있다. 눈세계와는
대조되게 그윽한 꽃향기가 넘쳐난다.

나는 지금 아름다운 꽃들속에 웅위되어 서계시
는 김정숙어머님의 거룩하신 영상을 우러르고있다.

락원의 이 강산에 새 봄을 불러오는 해발인양
환한 미소를 머금은 그 모습...

어찌 보면 폐부속깊이 스며드는 그윽한 꽃향기
는 어머님의 체취같고 대지를 포근하게 감싸는 정
가로운 눈송이들도 어머님의 자애로운 손길인듯싶
다. 사무치는 그리움이 온몸을 파고든다.

아까부터 어머님의 반신상결을 떠나지 못하고
감정을 묵새기던 로혁명투사가 급기야 무릎을 꿇으
며 갈린 음성을 터치였다.

《정숙동무! 이제야 나라 살림이 어렵지도 않는
데 오늘같은 생신날에도 홀적삼을 입고계시오? 항
일의 그날처럼 새 조국 건설시거나 오늘이나...변함
없는 모습이구려!》

불시에 무딘 칼로 창자를 허비는듯한 상실의 아
픔에 나도 몸을 가늘게 떨었다. 주위는 내리는 눈소
리가 사각사각 들릴정도로 숙연해졌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만이 여전히
다감하신 얼굴에 사려깊은 미소를 피워올리고계시
였다.

이윽하여 몸을 일으킨 로투사는 젖은 눈섭을 습
벽이며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 나라가 해방된지 3년이
째오도록 항일의 격전장에서 입고계시던 군용 외투
를 뜯어 고쳐지은 외투를 입고 지내시였다. 그래서
전우들이 토론하던 끝에 질 좋은 외투천을 한감 구
해다드리도록 합의를 보았다. 전우들의 성의어린
그 외투천을 안고 한 동무가 기쁜 마음으로 달려갔
다. 허나 김정숙어머님께서 외투를 지어 입을 생
각은 조금도 안하시고 그 천의 출처를 캐어묻고는
나라에서 요긴한 때 쓰려고 사들인 외투천을 함부
로 다쳐서야 되겠는가고 하면서 당장 도로 가져가
라고 엄하게 타이르시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 그렇게 노한것을 처음 본 그
일군은 하는수없이 외투천을 도로 가지고 갔다.

다음날 김정숙어머님께서 그 일군을 다시 불
러 따듯이 일깨워주시였다.

《어제는 내가 지나쳤는가봐요. 동무에게 이야기
한 다음 나는 가슴이 아파서 잠을 잘수가 없었어요.
아직도 마음이 풀리지 않는다면 나를 용서하세
요...

그런데 우리가 나라형편도, 인민들의 어려운 생
활도 생각지 않고 그런 짓을 하면 되겠어요.

전번에 동무도 소비조합상점에 들어가보았지만
그런 외투천이 있었어요? 고급외투천은 고사하고
보통천도 없지 않았나요. 그래도 내가 그 외투천으
로 옷을 해입어야 옳겠습니까.

난 절대로 그럴수가 없어요. 더우기 나야 크게
나서는 사람도 아닌데 지금 있는 외투가 어떻다고
그러세요.

그러니 내 걱정은 말아요.

난 이런 내 마음을 꼭 말씀드리고싶어서 바쁜
동무를 또다시 불렀어요...

이번 일은 정말 미안하게 됐어요.》

《!!...》

김정숙어머님의 간곡한 가르치심을 받으며 그
일군은 얼굴을 들지 못했다. 소식을 전해들은 혁명
투사들은 말없이 뜨거운 눈물을 삼키였다.

항일의 그 엄혹한 나날에 어느 하루, 한순간인데
김정숙어머님께서 몸을 덥힌적이 있었던가, 나라가
해방되어 몇년이 지났으나 그이께서는 털이 다 빠
진 낡은 군용외투 한벌로 또 한해겨울을 나시려 하
다니... 너무나 찬 세월속에서 너무도 고생이 많으

셨던 김정숙어머님이시였다. 하기에 어머님을 위하는것은 비단 전우들뿐만이 아니라 온 나라 전체 인민들의 한결같은 간절한 마음이였던것이다. ...

《김정숙동지께서는 바로 이렇게 옷이 없었소. 그이께서 뜻밖에 세상을 떠나시던 날 옷을 갈아입히려고 저택의 장농을 뒤흔든 한 녀동무는 주먹으로 가슴을 치며 대성통곡하였소. 장농안에는 갈아입힐만한 옷 한벌 변변한것이 없었...》

로투사는 또다시 목이 껍 잠겨서 말끝을 제대로 마무리지 못하였다.

여기저기서 흐느낌소리가 울리고 사람들의 어깨는 걱정과 파도를 안고 세차게 물결쳤다.

《그래서 나는...》

로투사는 떠엄떠엄 말마디를 이었다.

《김정숙동지를 만나뵈울적마다 이처럼 외투를 입고 오지 못하고. 눈오는 날이건 바람부는 날이건 여기로 올적에는 차마 겹옷을 입고 나서지 못하겠소. 글쎄 그것이 마음의 고통을 얼마나 가시여주겠소만 올적마다 김정숙동지의 그 뜨겁고도 깊은 마음을 오늘까지도 미처 헤아리지 못하는것만 같아 죄스럽기 그지없소.》

나의 새삼스러운 눈길이 온몸을 포근하게 감싸고급털외투에 멈추어졌다. 약속이라도 한듯 모든 사람들이 축축해진 눈굽을 훔치며 자신들의 옷차림새를 더듬고있었다. 나는 명치끝을 뜨겁게 지저대며 매달리는 송구함에 얼굴을 들수가 없었다.

(아 ! 우리는 얼마나 복받은 인생들인가...)

나라의 부강발전과 인민의 행복한 생활을 그토록 절절히 바라시던 김정숙어머님의 숭고한 념원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자이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조국의 장엄한 현실우에 찬란히 꽃피어났다.

우리의 생활은 나날이 유족해지고 세상에 부러움 없는데 어머님께서, 우리의 김정숙어머님께서 는 오늘도 훌적삼을 걸치신채 우리앞에 계신다.

문득 어머니를 웅위하듯 대돌에 무수히 피어난 꽃송이들이 나를 일깨워주는것이였다.

그렇다. 눈내리는 이 아침이 것처럼 봄날같이 따사로운것도, 안겨사는 그 품이 것처럼 자애로운것도, 강산에 차고넘치는 행복의 노래소리도 세월의 눈비를 다 맞으시며 오늘의 조선을 안아올리신 김정숙어머님의 해발같은 사랑의 미소와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우러르면 우러를수록 어머님께서는 더더욱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참된 혁명가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들에게 말없이 가르치고계신다.

눈은 여전히 소복소복 내리고있었다. 존경하는 김정숙어머님의 훌적삼우에도 산전수전을 다 겪은 로투사의 굵은 어깨우에도 그리고 털외투를 걸친 우리의 머리우에도...

승엄한 정적을 부각해주려는듯 티없이 깨끗한 흰 눈송이가 누리를 덮고있었다.

금로수

현창성

온정동 록음질은 숲기슭에
금로수, 금로수
용융히 솟는 샘물 한줄기

한여름 타는 목 어서 추기라
바람결은 속삭여도
사람마다 떠든 물 선뜻 못마시네

못마시네, 눈앞엔
우러러 정다운 어머님 영상
어리어와서, 어리어와서

구룡연 구경도 후날로 미루시고
오르시던 길 되돌아 예 오신 어머니
수령님 점심차비 서두르신 이야기

아, 깊어지는 생각속에
은방울의 굴림인가
어머님 푸시던 샘물소리...

백두의 험산준령 수천수만리
수령님 받들어오신 길에
자욱자욱 층정은 넘쳐나건만

사람마다 쉬여가는 금강산에서
순간의 휴식마저
수령님 안녕 위해 다바치셨으니

감격에 목메이는 가슴가슴
샘물을 들이키는 가슴가슴에
뜨거이 뜨거이 흘러드는것이여

온정동 록음질은 숲기슭에
금로수 금로수
얼음같이 찬 샘물 용융히 솟고

다너가는 사람들 가슴마다엔
끝없이 끝없이 솟아오르네
불보다 뜨거운 층정의 샘물이

어머님은 언제나 여기에 계십니다

염득복

그리움에
그리움을 안고
내 청봉으로 달려왔습니다

배낭 하나 어깨에 메고
수첩 하나 손에 들고
걸음걸음 실례며 들어서는 밀림에서
어머님 문득 마중나오실듯

청봉의 이깔숲은 나를 반기고
어머님 모습 우렁이 안겨오는
웅달샘앞에 섰노라니
마치도 고향집뜨락에 선듯
목메여 불러보는 어머님
김정숙어머님

눈보라 비바람을 다 헤쳐오신
어머님의 손을
오래오래 어루만져보고싶고
모진 시련 다 스쳐간
어머님의 그 군복자락
여머드리고싶은 마음 간절 한데

어머님은 다정히 말씀하십니다
청봉의 구호나무 그 글발로
내 한생 지녀야 할
혁명의 신념을 새겨 주십니다

오는 길에 맺힌 피로도 어서 풀라고
혁명의 먼길에 지치지 말라고
어머님 충정이 고이 담긴
청봉의 샘물도 안겨주십니다
장군님께 드렸던 조국의 기쁨
청봉의 진달래도 안겨주십니다
어디서나 언제나
그 향기 지니고 살라고

뜨거움에 목메여
정녕 목메여
청봉의 밀림을 걷고걸으니
내 한생 걸어갈 길
어머님께서 가리켜 주십니다

아, 김정숙어머님
나에게 안겨준 진달래의 그 향기
그것은 혁명의 먼길로 드팀없이 가라고
내 심장 뛰게 해준 숨결인줄 압니다
세월의 눈비에도 마를줄 모르는 웅달샘
그것은 나를 키운 사랑인줄 압니다

어머님께서 언제나 여기에 계십니다
끝나지 않은 혁명의 길우에
나를 이끌어주며
우리모두를 이끌어주며

우리는 백두산에서 왔다

계훈

백두의 푸른 밀림 헤치고 헤쳐
대흥단속영지에 들어서며
우리는 말했다
《백두산에서 옵니다》

물살 빠른 두만강줄기를 따라
우리 닿은곳은 우암리의 해변가
어디 손님인가 물어보는 려관어머니에게
우리는 대답했다
《어머니, 우리는 백두산에서 옵니다》

고향으로 달리는 렬차에 몸을 실었어도
마음은 언제나 백두산에 있었고
가슴은 그 한가지 생각으로 가득찼다
우리가 떠난곳은 백두산이었음을...

일터에 돌아와 동무들과 악수를 나누면서도
반겨맞는 마을길에 들어서면서도
대답은 그 하나
《백두산에서 옵니다》

아,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자욱을 고이 안고
온 누리를 굽어보는 혁명의 성산
그대 산정우에 올라 생각깊던 사람이면
누구나 새로워진 자신을 느끼며
결심의 첫자욱을 내딛는 백두산이여 !

정녕 백두산정에서 시작한
우리 혁명의 첫 걸음부터
우리 혁명가의 한생은 시작되나니
언제나 어디서나 생각하리라
우리는 백두산에서 왔다고

참된 삶의 요람에 대한 진실한 생활적 화폭

-예술영화 《요람》 (1~2 부)에 대하여-

최언경

조선예술영화촬영소 왕재산창작단에서는 예술영화 《요람》(1~2 부)을 성과작으로 완성하여 세상에 내놓음으로써 당에 크나큰 만족을 드려었다.

예술영화 《요람》(영화문학 오혜영, 연출 김덕규)이 올해에 만든 영화들중에서 최고의 걸작으로 된 기초에는 영화문학의 특출한 성과가 놓여있다.

예술영화 《요람》의 작가는 그 무슨 위대한 서사시적 화폭을 그리지도 않았고 요란한것을 보여주려고 하지도 않았으며 소박한 내용을 생활적인 언어로 잘 형상함으로써 문학의 생명인 진실성을 확고히 담보하고 영화문학을 문학답게 잘 만들었다.

예술영화 《요람》은 인생의 근본문제인 삶의 요람에 대한 문제를 내세우고 그것을 작가의 언어가 아니라 생활적인 언어로 진실하고 깊이있게 밝히고있다. 삶의 요람에 대한 문제는 인간의 운명개척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인생의 근본문제이다.

예술영화 《요람》은 지난날 일제식민지통치와 봉건의 속박속에서 인간이하의 최하층생활을 강요당하던 평범한 한 녀성이 해방후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국가주권을 자기 손에 틀어쥔 나라의 당당한 주인으로 성장하는 운명전환의 이야기를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인민정권의 품이 야말로 우리 인민의 참된 삶과 행복의 요람이라는 뜻깊은 사상적 알맹이를 생활적으로 파고들어 진실하고 깊이있게 밝히고있다.

바로 여기에 예술영화 《요람》의 특출한 사상 예술적 성과를 담보한 작품의 철학적 심오성이 있고 문제성이 있는것이다.

예술영화 《요람》의 작가는 우리 인민의 삶의 요람은 아버지수령님께서 세워주신 인민정권의 품이라는 새로운 종자를 찾아내었으며 그것을 생활적인 언어로 진실하게 형상함으로써 우리 인민에게 삶과 행복을 준 인민정권의 고마움에 대하여서뿐 아니라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밝히신 인민정권에 관한 사상의 위대성과 그 승리를 마련한 령도의 현명성을 전면적으로 깊이있게 밝히고있다.

바로 여기에 예술영화 《요람》이 지금으로부터 40년전의 먼 현실을 반영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민의 투쟁사에 대한 생동한 역사적 화폭으로만이 아니라 심각한 현대성을 체현하고 오늘의

사람들을 교양하는데 훌륭히 이바지하는 참된 생활의 교과서로 되는 근거가 있다.

예술영화 《요람》이 특출한 사상예술적 성과를 거둔 최고걸작으로 되게 된것은 무엇보다도 작품의 이야기를 주인공의 성격발전의 논리에 맞게 생활적으로 빈틈없이 잘 맞물려놓은데 있다.

예술영화 《요람》은 해방직후로부터 공화국이 창건되기까지의 격동적인 력사적 시기에 뒤끓이러는 어느 한 산골마을에 실재하였던 사실과 원형에 기초하여 이야기를 펼쳐보이고있다.

우리 문학은 장편소설들인 리기영의 《땅》과 김규엽의 《새봄》 그리고 그것을 각색한 예술영화 《양지말사람들》을 비롯하여 해방직후 우리 나라 농촌에서 일어난 눈부신 변혁과정을 보여주는 훌륭한 작품들을 적지 않게 내놓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력사적 시기의 생활을 반영하고있는 예술영화 《요람》이 사람들에게 새로운 감명을 주는것은 종래의 작품들이 주로 지주와의 치열한 계급투쟁속에서 토지개혁의 승리적 실현과정을 기본으로 하여 이야기를 펴나갔다면 이 작품은 그러한 생활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바로 그 거세찬 력사의 소용돌이속에서 어떻게 자기 운명을 자신의 손에 틀어쥔 자주적 인간이 새롭게 탄생하고 성장하는가 하는 주인공의 성격발전과정, 운명사를 기본줄거리로 하여 이야기를 생활적으로 엮어나갔기때문이다.

사실상 작품의 전편은 인민정권의 품속에서 어떻게 자주적 인간이 새로 탄생하고 성장하는가 하는 이야기라면 후편은 바로 그러한 주인공이 자기를 낳아 키워준 고마운 그 삶의 요람을 어떻게 지키고 빛내여나가는가 하는 성격의 아름다운 발현과정에 대한 화폭이라고 말할수 있다.

영화의 주인공 봉임은 악독한 지주 최장도놈의 소작살이를 하는 가난한 농민의 집 외머느리로서 가난과 천대 속에 고생이란 고생은 다해야 했으며 게다가 아들을 바라는 4대독자집안에 딸만 6형제를 낳은탓에 봉건이 심한 시어머니의 모진 박대와 구박까지 받아야 했다.

영화는 이처럼 기막힌 생활속에서 조국과 민족의 운명은 고사하고 자기자신의 운명에 대해서조차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 모든것을 팔자탓으로 돌

리며 설음과 눈물 속에 세월을 보내던 주인공이 도대체 어떻게 되어 그렇게도 빨리 무지와 몽매를 털어버리고 사회적 압박과 봉건의 질곡에서 벗어나 운명의 주인, 나라의 주인으로 변모되어나가는가 하는것을 참으로 소박하고 생동한 생활화폭을 통하여 진실하게 보여주었다.

영화의 전편에서 보는바와 같이 주인공의 성격발전에서 중요한 계기를 이룬것은 성출미운동과 문맹퇴치사업, 토지개혁과 남녀평등권법령의 실시 그리고 애국미헌납운동과 같은 역사적 사변들이다.

이것은 해방직후 우리 나라 농촌에서 벌어진 가장 전형적인 사회정치적 사변들로서 우리 나라 농촌이라면 그 어디에서나 볼수 있는 보편적이고 평범한 생활이며 따라서 이미 다른 작품들에서 흔히 보아온 사실들이다.

그런데 예술영화 《요람》은 이러한 역사적 사변들을 주인공 봉임이가 어떻게 감수하며 그것을 통하여 어떻게 성장발전하는가 하는것을 생활적으로 파고들어 깊이있게 보여줌으로써 형상을 것처럼 새롭고 진실하게 창조할수 있었던것이다.

온 동네가 해방의 기쁨으로 들끓지만 또 딸쌍둥이를 낳고 시어머니의 모진 꾸밈을 들으며 설음에 겨워 흐느끼기만 하던 봉임이, 어서 회의에 나가보라는 남편의 말을 듣고는 동네남정들만 가는 모임에 아낙네가 어떻게 가겠느냐고 하던 그 순박하기이름데 없는 봉임은 나라가 해방은 되었어도 국고에 쌀이 없으니 우리 농민들이 쌀을 보내주어야 공장이 돌아가고 새 나라 건설이 빨리 되지 않겠는가고 하는 파견원 윤성태의 이야기를 듣고와서는 그 밤으로 혼자서 소작밭에 나가 걸싸게 보리가을을 해댄다.

영화가 만약 이 장면에서 주인공 봉임이가 그저 성태의 말 한마디를 듣고 선듯 쉽사리 보리가을에 나서는것으로 그렸다면 그것은 너무도 순박하고 자기를 의식하지 못했던 그의 성격론리에 맞지 않으며 따라서 생활적 진실성을 상실했을것이다.

그러나 영화는 바로 이 계기에서 지주놈의 사냥놀이터에 강제로 끌려갔다가 산짐승과 같이 사냥총의 파격이 되어 원통하게도 종신불구가 되어버린 남편 춘서의 기막힌 정상을 보여주는 회상장면을 도입함으로써 윤성태의 말에 것처럼 큰 충격을 받고 선듯 보리가을에 나서는 봉임의 성격발전에 생활적인 타당성을 부여하였던것이다.

봉임은 남자들도 지주가 두려워서 보리가을에 못나가고있는데 무섭지 않는가고 하는 윤성태의 물음에 이렇게 대답한다.

《까짓거 무서울게 없어요. 뭐 진저리나게 겪어온걸요. 애아버지두 지주의 눈치바선 뭘하겠는가구 했어요.》

이처럼 영화는 주인공의 계급적 자각과정, 계급적 처지의 인식과정을 그의 계급적 바탕을 보여주는 생활과 맞물려 진실하게 보여주었다.

영화는 또한 문맹퇴치사업이 어떻게 주인공의 성격발전에서 중요한 계기를 이루게 되는가를 생활적으로 맞물려 잘 보여주었다.

글을 배워야 한다는 윤성태의 말을 들은 봉임은 지영을 찾아가 열심히 글을 배운다.

그러나 그는 왜 한사코 글을 배우려고 하는가 하는 지영의 물음에 《나도 모르겠어요. 윤선생 얘기를 듣구보니 정말 글을 배우긴 배워야겠더군요.》라고 자신없이 대답한다.

보는바와 같이 이때까지만 해도 봉임은 그저 새로운 현실에 대한 호기심과 무엇인가를 해야 하겠다는 막연한 생각에서 글을 배웠다.

그러나 봉임은 우리 녀성들도 남자들과 같이 혁명의 한쪽 수레바퀴를 밀고나가려면 글을 배워야 하며 까막눈이 되어가지고는 새 나라를 세울수 없다고 하신 아버지장군님의 뜻을 전해듣고는 자기 자신이 기를 쓰고 남먼저 글을 배울뿐아니라 동요하는 지영이를 설복하여 성인학교를 열고 마을 녀성들을 문맹퇴치에로 불러일으키며 자신이 그 앞장에 서는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벌써 자기를 자각한 새 인간의 모습을 뚜렷이 보게 된다.

영화는 특히 주인공의 세계관이 보다 높은 새로운 단계에로 발전하는 과정을 애국미헌납운동과 생활적으로 맞물려 감명깊게 잘 보여주었다.

이처럼 영화는 주인공 봉임의 성격발전과정을 직선적으로가 아니라 굴곡이 있게 그리고 평면적으로가 아니라 입체적으로 생활과 맞물려 잘 보여주었다.

참으로 생활은 기쁨지고 이야기는 감동적이다.

혁명과 투쟁으로 들끓는 이 약동하는 생활속에서 주인공 봉임은 마침내 마을인민들의 살림살이를 책임진 리인민위원장으로 성장하는것이다.

이것은 진정 운명의 노예로부터 운명의 주인으로 된 새 인간의 탄생과정이었다.

주인공의 운명에서 일어난 이러한 전변의 내용은 수로공사에 대한 군당의 동의를 얻고 밭길을 돌아오다가 길을 헛갈려 물에 덩뎀 빠지기도 하고 소똥을 밟기도 하면서도 받아안은 새 생활과 행복이 너무도 크고 기뻐서 《참 별일이야. 전엔 돼지도 통분해 할 박대를 받으면서 어떻게 살았담. 하긴 다 팔자탓으로 돌리고 살았지. 그런데 그 팔자란 놈을 내 손안에 꼭 틀어쥔 셈이 되었으니 참 별일이야.》

하고 혼자서 웃으며 중얼거리는 주인공자신의 아름다운 모습에서 힘있게 확인되고있다. 이처럼 자주적인 새 인간으로서의 봉임이의 탄생과 성장과정이고 첫자욱부터 걸음걸음 위대한 수령님께서 세워주신 인민정권의 고마운 품과 잇닿아있다면 영화의 후편은 자주적인 인간의 전형으로서의 주인공이 자기를 주권의 주인, 나라의 주인으로 내세워주신 어버이수령님의 은덕에 보답하려고 충성을 다해가는 깨끗한 충성심의 발현과정으로 일관되어있다. 이런 의미에서 작품의 전편을 어버이수령님께서 우리 인민에게 베풀어주시는 사랑의 력사 은덕의 력사라고 하면 후편은 우리 인민이 자기를 주권의 주인, 나라의 주인으로 내세워주신 수령님께서 바치는 보답의 력사, 충성의 력사라고 할수 있다.

영화는 주인공의 투쟁모습을 꾸밈과 가식이 없이 생활적으로 잘 보여주고있다.

리인민위원장이 된 봉임은 마을사람들을 잘 살게 하여 어버이수령님께 기쁨을 드리자고 관개공사장으로 앞장서 달려나간다.

어버이장군님께서 하라시는건데 뭘들 못하겠는가고 하면서 절구공이를 갈아서 바늘을 만드는 일이라도 제껴 해내자고 마을사람들을 불러일으키며 앓는 아이까지 남편에게 맡겨두고 관개공사에 쓸 세멘트를 구하려고 공장으로 달려가는 봉임이, 자기 한몸을 서슴없이 내대며 반동놈들로부터 군당위원장을 구하며 양수기를 목숨바쳐 지킨 남편의 몫까지 더해 충성을 다해가는 봉임이...

이 깨끗한 충성심에 떠받들리어 마을의 새 생활은 힘차게 전진하고 인간 또한 더 큰 성장을 하여 간부학교를 마친 봉임은 군인민위원장으로 공화국의 창건과 함께 최고인민회의 첫 녀성대의원으로 되는것이다.

군인민위원장이 된 봉임은 철진과 지영의 손을 굳게 잡고 이렇게 뜨겁게 말한다.

《우리 군이 장군님을 한번도 모신적은 없어요. 하지만 철진동무, 지영동무, 우리 서로 힘을 합쳐서 우리 군의 정권기관을 장군님 뜻대로만 이끌어 나가자요.》

이 말은 소박하고 진실한 인간의 심장에서 울려나온 꾸밈없는 진정인것으로 하여 사람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준다.

이처럼 영화는 그 형상전반을 통하여 주인공의 운명에서 일어난 근본적 전환을 보여주는 진실하고 생동한 생활적 화폭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인민정권의 품이야말로 우리모두를 품어주고 인간존엄의 최상봉에 내세워주는 참된 삶의 요람이라는것을 힘있게 확인하고있다. 바로 여

기에 예술영화 《요람》의 높은 사상예술적성과와 커다란 교양적 의의가 있는것이다.

예술영화 《요람》이 최고결작으로 되게 된 사상예술적 성과는 또한 주인공을 중심으로 하여 다양하게 맺어지는 뜻깊은 인간관계를 가식이 없이 생활적인 언어로 진실하게 형상함으로써 진정한 인민정권하에서만 꽃피날수 있는 아름다운 인간관계와 혁명의 운명을 좌우하는 력사의 준엄한 소용돌이속에서도 당과 수령의 두리에 하나로 굳게 뭉친 자주적 주체로 자라는 우리 인민의 참된 모습을 잘 보여준데 있다.

영화에는 주인공 봉임을 중심으로 하여 그의 남편인 박춘서, 군당위원장 윤성태, 기구한 운명의 주인공인 분리와 그의 애인 광석, 출신이 복잡한 지식인녀성인 지영이와 그의 애인인 로동계급출신의 철진이 등 각이한 운명을 가진 다양한 인물들과의 인간관계가 그려지고있다.

그들이 걸어온 인생의 길과 구체적인 생활처지는 서로 달라도 그들은 모두가 지난날 나라잃고 삶을 의지할 요람이 없는탓에 길가의 조약돌처럼 버림받았던 불우한 운명의 주인공들이었다.

용모가 아름다운것이 죄가 되어 꽃나이 처녀로 지주아들놈의 첩으로 팔려가지 않으면 안될 생의 막바지에서 죽음의 길을 택하였던 분이, 서울장사군 부자놈에게 시집이라고 갔다가 딸 하나를 낳고는 쫓겨나게 되자 물에 빠져죽었다는 지영의 어머니와 그로 하여 철들기전부터 회의심과 혐오감, 반항심을 가지고 세상을 비웃으며 무미건조하게 살아온 지식인녀성인 신지영...

영화는 이 기구하고 불우한 운명의 주인공들이 인민정권의 품속에서 어떻게 참된 삶의 길을 찾고 새 조국 건설에 떨쳐나서게 되는가를 뜻깊은 인간관계를 통하여 꾸밈없이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보여주고있다.

이 뜻깊은 인간관계의 중심에는 군당위원장 성태의 영향밑에 참된 혁명가로 성장한 주인공 봉임이 서있다. 영화는 주인공을 중심으로 하여 부채살 모양으로 인간관계를 펼쳐가면서 그 모든 인물들이 봉임의 교양과 도움을 받으며 어떻게 새 인간으로 탄생하여 새 조국 건설에 떨쳐나서게 되는가를 참으로 진실하게 보여주고있다.

특히 영화는 주인공 봉임과 그의 남편 춘서와의 관계를 소박하면서도 아름다운 생활적 화폭으로 가슴뜨겁게 그리고있다. 이 형상은 인민정권하에서 꽃피난 아름다운 인간관계, 가정윤리관계의 전형이다. 이 형상은 특히 조선녀성의 전형으로서의 봉임의 미덕과 민족적 성격을 부각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지주놈때문에 불구가 된 남편을 지성을 다해 돌보아주며 어려운 일, 모를 일이 생길 때마다 묻고 의논을 하고 거기서 힘을 얻으며 믿고 의지해 살아가는 봉임이, 리인민위원장이 되어가지고서도 아들을 낳아주지 못한것을 것처럼 미안하게 여기며 더우기 시어머니로부터 궁합에도 맞지 않는 며느리를 맞아들여 집안에 줄줄이 화만 겹치고 4대독자 외 아들은 병신이 됐다고 하는 가슴아픈 말을 들으면 서도 시어머니야 하를같은 당신의 어머니신데 날 보구 아무렇게 하신들 어떠냐고 하며 말대답 한번 하는 일이 없이 며느리의 온갖 도리를 다 지켜가는 봉임이...

여기서는 순박하고 소박하기 그지없는 때문지 않은 농촌녀성의 체취가 그대로 풍겨온다. 그런가 하면 몸은 비록 말을 안들어도 마음만은 언제나 안해와 함께 있으면서 봉임을 진심으로 아끼고 도와주고 고무해주며 안해의 지성으로 대지를 확보할수 있게 되자 창고라도 지켜 인민위원회의 일을 돕겠다고 나서며 끝내는 한목숨 서슴없이 바쳐 원썬놈들로부터 양수기를 지켜 내는 춘서...

봉임이 간부학교로 떠나는 장면에서 그들부부가 주고받는 따뜻한 정은 진정 아름다움과 행복의 절정에 선 인간들에게서만 볼수 있는 참된 인간관계의 극치라고 해야 할것이다.

영화에는 또한 인민정권의 품속에서 잃었던 삶과 청춘의 사랑을 꽃피워나가는 분이와 광석, 지영과 철진의 뜻깊은 인간관계가 생활적으로 잘 그려져있으며 그들을 위해 바친 봉임의 진정이 조그마한 가식도 없이 눈물겹게 형상되고있다.

지주아들놈의 첩으로 끌려가게 되는 분이가 죽이고싶도록 미워지면서도 그 정을 못잊어 더 뜨겁게 사랑하는 광석이...

영화는 특히 어지러운 탁류속에서도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순정을 바쳐가는 아름답고 대바른 지영이와 억세고 미더운 철진이와의 사연깊은 사랑을 통하여 자기를 로동계급모양의 새 사람으로 개조해 나가려는 복잡한 계층의 지식인녀성인 지영의 높은 정신세계를 생활그대로 생동하게 보여주고있으며 작품에 매우 풍만하고 이채로운 정서적 색깔을 더해주고있다. 영화는 이 모든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주인공 봉임의 행동선과 극적으로 맞물려 생활적으로 진지하고 진실하게 그리고있다.

분이를 지주첩으로 끌어가려는 마름놈의 앞을 단호히 막아서며 당신도 사람인가고 분노를 터뜨리는 봉임이, 죽기를 결심하고 후치강으로 내달는 분이를 붙들고는 《에이, 바보같은것!》 하고 가슴을 치며 울분을 토하는 봉임이...

분이와 같이 빗때문에 조선녀성들이 겪어야 하는 비극과 원한을 풀어주시기 바라는 간절한 소원을 담아 한자한자 갓 배운 서투른 글씨로 정성껏 삼가 위대한 수령님께 올릴 글월을 써나가는 봉임의 모습은 생활그대로의 소박성과 진실성으로 하여 사람들의 가슴을 얼마나 뜨겁게 울려주는가.

봉임은 바로 지난날 천대받던 사람들에게 대한 이런 불같은 사랑을 가지고 아직 언제 한번 시어머니에게도 드려보지 못한 새 옷감을 끊어 분이의 첫날 옷감으로 주고는 그것을 그리도 기뻐하며 마침내는 리인민위원회가 주인이 되어 분이와 광석의 뜻깊은 결혼식을 보란듯이 마련해주는것이다.

영화는 특히 진짜배기 로동계급인 철진에게서 난생처음 자기가 것처럼 찾고 그리던 참된 인간을 보고 처녀의 순정을 바쳐 것처럼 열렬히 사랑하면서도 하필이면 그가 자기같은 녀자를 사랑하겠는가고 스스로 그결을 떠나가며 그러면서도 철진동무와 헤어져 살면서 왜 그런지 고독해졌다고, 사회적으로 고립된 감을 느낀다고 하는 지영이를 진정을 바쳐 돕고 교양하여 참된 새 생활의 길로 이끌어주는 봉임의 모습을 참으로 감명깊게 형상하고있다.

예술영화 《요람》은 이렇듯 새 제도, 새 정권 밑에서 활짝 꽃피난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기쁨진 생활화쪽으로 진실하게 펼쳐보임으로써 우리 인민모두가 오직 하나의 품, 아버지장군님께서 세워주신 인민정권의 품에 운명과 미래를 전부 맡기고 새 조국 건설의 한길에 힘차게 떨쳐나서게 되었다는 위대한 현실을 힘있게 확인하고있다.

예술영화 《요람》이 최고결작으로 되게 된 사상예술적 성과는 또한 인물들의 대사를 생활적인 언어로 진실하게 잘 형상한데 있다.

영화문학의 대사는 한마디한마디가 다 생활적인 언어로 되어있으며 어색한것이 없고 자연스러우면서도 뜻이 깊은것이 특징이다.

대사가 어색한것이 없고 생활적인 언어로 자연스럽게 형상되었다는것은 그것이 성격론리와 생활정황에 잘 맞는다는것을 의미한다.

영화의 대사들은 시대와 제도의 본질을 반영하고있으면서도 구수한 민족적 정서와 산골사람들의 순박한 체취를 그대로 풍기고있다.

만딸이라고 한순이, 둘째딸이라고 두순이 또 딸을 낳았다고 또순이, 후에는 꼭 아들을 낳으라고 후남이... 봉임이네 딸들의 이름을 지은 매력력이 그리하며 또한 우리 인민의 일상생활속에 굳어진 성구와 속담들을 적절하고 재치있게 활용하고있는것 등이 그러하다.

특히 영화의 대사들은 인물들의 개성적 특징을 생활적으로 잘 살려내고있다. 주인공 봉임이의 소

박하면서도 명백하고 힘있는 대사, 다분히 감상적인데가 있으면서도 지성적이고 진취적인데가 엮여 있는 지식인녀성으로서의 지영의 대사, 특히 시어머니 장씨의 고집불통과 봉건관념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특유한 대사들이 그러하다.

특히 주인공 봉임의 대사는 순박한 농촌녀성의 성격을 그대로 드러내고있을뿐아니라 인민정권의 품속에서 몰라보게 변모되어나가는 그의 성격장성 과정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 되어 평양으로 떠나면서 그가 하는 대사는 얼마나 진실하게 안겨오는가.

《그전엔 제가 뭐였나요. 나라없는 백성으로 가난덩이, 구박덩이, 설움덩이 계집으로 지저리 밟힌 별거지처럼 살겠어야 어디 사람이었나요. 저뿐이 아니지요. 여러분들두 다 같지요.》

여기서 우리는 그 어떤 정치연설에서와 같은 요란한 말은 들을수 없지만 소박하고 진심어린 그 말속에서 너무도 순박하지만 했던 주인공의 지난날의 모습과 몰라보게 성장하고 변모된 오늘의 새로운 모습을 가슴뜨겁게 되새겨보게 되는것이다. 시어머니 장씨의 대사는 또한 봉건유습에 젖을대로 젖고 웅고집이 체질화된 그의 특유한 성격을 잘 드러내 보이고있다.

《맹물에 조약돌두 삶아먹을 네 고집을 내가 꺾어내니.》, 《귀에 말뚝을 박았나, 허바닥에 바늘꽂았나. 얼른 대답을 못해.》, 《형 집안에 망신살뻘 쳤다. 미운 털이 배기게 뻘어. 동네 어른들이 흥분다. 흥봐.》… 이것은 다 며느리 봉임을 두고 하는 장씨의 지칭구이다.

그런가 하면 영화의 대사들은 또한 생활정황에 잘도 어울린다.

《제길할. 인연이 원쑤로구나. 그냥 널 들입다 쳐죽이고싶으니 흥, 미운 정이 더 질긴가부다.》 이것은 외나무다리를 건느다가 물에 빠진 분이를 쫓아서 덤뎡 함께 물에 들어서며 광석이가 하는 말이다.

이 한마디의 대사에서는 가난이 원쑤가 되어 지주놈의 첩으로 끌려갈번한 분이에 대한 애꿎은 원한과 함께 죽어도 잊을수 없고 버릴수 없는 분이에 대한 광석의 불같은 사랑의 감정이 생활적으로 잘 드러나고있다.

예술영화 《요람》의 대사는 생활적이면서 또한 뜻이 깊은것이 특징이다. 뜻이 깊다고 하는것은

한마디의 말속에 열백가지의 많은 뜻과 깊은 생활철학이 담겨있다는것을 말한다.

리위원장을 그만두고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시어머니에게 하는 주인공 봉임이의 대사는 참으로 생활적이면서도 뜻이 깊다.

수리공사를 꽤 해낼수 있겠는가고 하는 남편에게 《부처님 살찌우고 여위게 하는것은 석수쟁이 손에 달렸대구 마음먹기탓이지 뭐예요.》라고 대답하는 봉임이의 말은 사람이 하자고 마음만 먹으면 못해낼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의 적극적이며 강한 의지를 드러내보여준다.

그런가 하면 지영이가 철진이에게 자기의 심정을 고백하는 대사는 그전에 지주 아들 최준호와 나누던 감상적이고 회의적인 대사와 대조를 이루면서 그의 놀라운 개존의 모습과 진취적이고 지성적인 개성적 특징을 철학적 깊이가 있게 생활적으로 잘 드러내보여준다.

《해방전 탁류같은 가정에서 정의를 갈망하던 저를 단번에 사로잡은 그 매력은 로동속에 이루어진 신선한 인간이었어요.》 《동무와 더불어 로동계급이 되겠어요.… 받아주겠나요?》, 《거절이나요…》, 《하긴…동무가 하필이면 저같은 녀자를 우습지요. 이 나이에 첫순정으로 가슴태우는 제가… 이상해요. 거절을 당하면서도 자존심이 상하지 않아요. 내 마음은 이미 내것이 아닌가봐요.》

여기에는 깨끗하면서도 진취적이고 그러면서도 지성적인 지식인녀성의 깊은 내면세계가 뜻깊게 반영되어있다.

예술영화 《요람》은 실로 작가의 언어가 아니라 생활적인 언어로 형상을 진실하게 창조한것으로 하여 훌륭한 걸작으로 되었다. 예술영화 《요람》이 이룩한 이 모든 특출한 사상예술적 성과는 생활을 진실하게 그릴데 대한 우리 당의 독창적인 문예사상과 정력적인 지도가 낳은 빛나는 결실이며 당의 문예방침을 창작실천에 철저히 구현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기울여온 작가와 예술인들의 창작적 열정과 고심어린 탐구의 결과이다.

예술영화 《요람》은 그 높은 사상예술적 성과로 하여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의 세계관, 혁명적 수령관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할것이며 우리 창작가들이 보다 훌륭한 문학예술작품을 창작하는데 귀중한 경험을 줄것이다.

《건국》호 선원

차승철

인민군대의 재진격으로 갓 해방된 연포포구에 몇척의 해군 함정이 들어섰다. 동해안의 중요 어항이며 군사요충지대인 이곳 앞바다에서 새로운 전투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달려온 기뢰부설편대였다.

기뢰조종수인 김갑수하사는 함정이 잔교에 닿자 남먼저 배에서 뛰어내리었다. 포항산을 끼고 아늑하게 펼쳐진 포구의 전경이 반기듯 한눈에 비껴들었다. 군대에 나와 전쟁의 철화를 헤쳐넘는 여섯 달동안 한시도 잊지 않고 그리던 고향포구이다.

연포포구의 배군이던 갑수가 오늘은 근위해군 전대의 하사관이 되어 고향에 들어섰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부풀어올랐다. 그는 감개어린 눈으로 포구를 거둬 둘러보았다.

2천호 남짓한 민가가 모여살던 아담한 어항거리는 흑심하게 파괴되어있었다. 바다쪽으로 면한 포항산 언저리와 거리입구에 집이 몇채 남아있을뿐 눈덮인 폐허뿐이었다. 물고기가공장이며 어구창고 민주선전실이 규모있게 들어앉았던 수산업소구내 역시 불에 까맣게 그슬은 벽체가 몇개 서있을뿐 번번하였다. 사시절 사람과 물고기가 한데 어울려 북적이던 부두에는 배 한척 볼수 없고 부서진 잔교와 콘베아의 잔해가 어지럽게 널려있었다. 자기네 함정이 달아있는 2호잔교 하나만이 요행 성한채로 남아있었다.

갑수는 즐겁고 단란하던 추억의 흔적이란 전혀 찾아볼수 없는 포구를 억이 막혀 바라보다가 잔교 머리에 있는 굵직한 계류말뚝에 눈이 끌리었다.

사람의 앉은기만한 박달나무 말뚝이 퍼그나 눈에 익어서 그리로 다가갔다.

배의 바줄에 오래동안 쓸리며 닳아 허리가 절구공이처럼 우무러져들여간 계류말뚝을 점도록 굽어보느라니 전쟁전 어느해 가을, 먼 산판에까지 일부러 가서 이 말뚝감을 구해다 박던 조용세의 수더본한 얼굴이 비껴왔다.

갑수가 타던 저예망선 《건국》호의 조기수(기관실 보조공) 조용세는 함께 박달나무 원목을 다듬어 세운 갑수에게 흡족하게 말했다.

《됐어. 이젠 계류말뚝이 든든하니 우리 <건국>호가 편안해할거야. 여기에다 배뿔바를 걸고 밤잠을 푹 자고나면 바다에 나가 몇갑절 더 용을 쓸게 거든.》

용세는 부모와 친척이 없는 외토리로 《건국》호를 제집같이 생각하며 지내던 갑수에게 남달리

자별하게 굴었다. 애젊은 갑수는 간혹 사춘기때의 단순한 감정에 들떠서 철없고 경망스레 놀았지만 마음이 너그럽고 어진 용세는 조금도 노여워하지 않았고 그런 용세를 본따서인지 여느 선원들도 갑수를 막내동생처럼 대해주곤하였다.

한데 갑수가 군대로 떠나오던 날엔 어째서인지 전송나온 사람들속에 《건국》호 선원들의 얼굴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섭섭한 마음으로 포구쪽을 거둬 바라보는데 렬차는 출발기적을 길게 울리었다. 바로 그때 갑수가 서있는 승강대쪽으로 달려오는 한 사람이 있었다. 작달막한 키, 땀발이 번들거리는 도두룩한 이마, 틀림없는 조용세였다. 그는 물고기비늘과 기름에 찌든 대마직작업복을 벗지 못한채 급히 뛰어오느라 하는데도 보폭이 짧다보니 걸음자리가 영 나지 않았다. 갑수가 차에서 내려 마주 달려가자 용세는 숨이 차 헉헉거리며 어쭙게 말했다.

《고등어가 그물이 터지도록 드는바람에 이제야 바다에서 돌아왔네. 모두 물고기를 부리느라 들볶다나니 내 혼자...》

갑수는 심리가 넘는 역까지 땀을 철철 흘리며 뛰어나온 용세를 대하니 그에게 간혹 섭섭하게 굴었던 지난 일이 후회되어 떠나는 자기에게 어떤 타 이름이던지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일었다.

용세는 무슨 말을 고르는듯 두터운 입술을 움썹거리다가 정히 접은 자그마한 천폭을 안주머니에서 꺼내주었다.

그것은 의외에도 붉은 바탕에 《건국》호라는 세 글자가 하얀 수실로 수놓아진 배의 식별기였다.

공화국기와 함께 마스트의 계양대에 다는 그 삼각식별기는 물이 날세라 용세 안해의 손으로 새로 만들어 자주 갈아대곤하였었다. 어선에 띄우고 다니는 자그마한 그 기발이 군대에선 무슨 소용이라만 용세는 여별로 만들어둔 식별기를 굳이 쥐여주었다.

《어디 가나 우리 배를 잊지 말라구. 잘 싸워서 영웅이 되어 돌아와야 하네.》

렬차가 움썹 자리를 뜨자 용세는 물기가 평하니 고인 눈을 습벅이며 어서 오르라고 등을 떠밀었다.

기차가 차츰 속력을 내자 차를 쫓아 달음쳐오며 남앞에 내놓기 지어하던 식지없는 손을 높이 쳐들어 흔드는 용세의 자태가 차츰 시야에서 멀어져갔다. ...

홀려간 지난날을 더듬으며 계류말뚝을 쓸어보는 갑수에게는 그렇게 헤어진 용세가 줄곧 마주쳐왔다. 그를 보고싶었다.

(나이는 서른줄이라 하지만 손이 온전치 못하니 군대에는 못나왔을거고 지금은 무엇을 하고있을까?)

전쟁의 시련을 헤쳐나가는 지금 그를 만나면 서로간 터놓고 할 이야기가 많을것 같았다. 뒤이어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의 얼굴이 차례로 떠오르고 가공반원들이 기다리는 이 잔교에 풍어기를 날리며 호기있게 당군하던 《건국》호가 금시 잡힐듯 비껴왔다. 모두들 잘 있는지. 그리고 《건국》호는 어디에 있을까?

갑수는 두루 궁금한 생각을 굴리던 끝에 부두에서 그닥 멀지 않은 용세네 집부터 찾아보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외출승인을 받자 서둘러 용세네집으로 향하였다.



포항산 가녀의 언덕을 등진 용세네 집은 요행 불타지 않고 살아있었다. 밤색 함석지붕이며 매끈한 회벽벽체, 마루방에 달린 쌍단이유리문이 모두 이전 그대로였다. 원래는 볼품없는 삼간집이던것을 용세가 역사를 벌려 늘구어지은 집이었다.

설날이나 명절때면 《건국》호선원 모두가 방이 넓은 이 집에 모여와 용세의 안내가 정성들여 차린 음식상을 마주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군하였다. 갑수는 전쟁전 모양대로 남아있는 집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놓이며 한달음으로 눈익은 뜨락에 들어섰다. 그는 문앞에 이르자 약간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주인을 찾았다. 어찌된 일인지 아무 기척이 없었다. 두번 세번 불렀으나 감감하기에 퇴마루에 올라서서 부엌문을 슬며시 열었다. 뜻밖에도 따스한 온기 대신 시큼털털한 군내와 곰팡내가 뒤섞인 랭기가 확 뿜겨나왔다.

《?!》

갑수는 문고리를 잡은채 놀라움과 의혹을 담은 눈길로 어수선한 부엌칸을 대충없이 더듬었다. 얼굴이 비치도록 알른거리던 가마뚜껑은 언제 밥을 지어먹었나싶게 먼지가 한뼘이나 앉았고 기층탄에 뚫어진 천반구멍에서 쏟아져내린 진새흙이 부뚜막과 부엌바닥에 흩어져있었다. 방에 들어서보니 공간채로 내던져진 보통이가 몇개 눈에 띄울뿐 쓸렁했다. 갑수는 밖에서 보던바와는 다르게 스산한 집안꼴을 넋없이 지켜보았다.

(혹시 집에 무슨 불행이 생기지나 않았는가?)

이웃집에라도 달려가 어찌된 일인가고 묻고싶었으나 금방 들여놓은듯싶은 보통이가 있는것으로

보아 집주인이 곧 오리라 생각하며 기다리기로 했다.

얼마후 뜨락을 조심스레 밟는 발자국소리가 자박자박 들리더니 방시시 문이 열리며 자기를 빠르게 쳐다보는 어린것의 얼굴이 나타났다. 갑수는 머루알처럼 감ış한 눈으로부터 옆으로 퍼질사한 만문한 아래볼이 신통히도 제 아버지를 찍어닮은 용세의 막내딸을 알아보자 두팔을 벌리며 마주갔다.

《잘 있었니? 내다. 아저씨가 왔다.》

그런데도 어린것은 뒤주춤거리며 갑수를 말끄러미 쳐다볼뿐 안겨들려하지 않았다. 하긴 젓먹이때에 군대에 나왔으니 나를 알아볼리 없지. 그러거나 말거나 갑수는 어린것을 녀름 안아들고는 가지고 온 사과며 건빵을 쥐여주었다. 그제서야 아이는 꺾꺾하던 눈살이 차츰 풀리었다. 갑수는 털목도리 밖으로 홀려나온 아이의 연한 머리칼을 쓸어주며 낮게 물었다.

《엄마는 어디 가셨니? 그리고 아버지는?》

대답이 없었다. 갑수는 다시 시무룩해지며 주눅이 드는 아이의 낮색에서, 토끼털외투와 털신으로 뜨뜻이 감싸기는 했으나 피기가 없이 꺼칠한 아이의 모습에서 심상치 않은 번고를 감추하였다. 금시 울음을 터칠듯 울먹이는 아이를 달래고있을 때 《건국》호 부선장 허진이의 안내 리성녀가 이웃사람들과 함께 뜨락에 들어섰다. 아마 갑수가 온것을 알고 모여온상싶었다. 리성녀는 잃어지듯 마주나가는 갑수의 인사를 받았는지 말았는지 멍청한 얼굴로 한 자리에 서있었다. 인정깊고 상냥한 미소가 항시 떠날줄 모르던 복성스러운 얼굴은 살이 빠져 홀쭉해졌고 빛이 꺼져버린 뿌연 눈은 갑수의 해병복을 초점없이 더듬었다.

《왜 이제야 왔어요. 조금만 더 빨리 올것이지 왜 이제야 왔냐말이에요.》

갑수는 눈물도 다 말라버린듯 목잠긴 소리로 토막토막 뇌이는 성녀를 보자 《건국》호에 어떤 참사가 생겼음을 온몸으로 느끼었다. 갑수는 머리를 옥죄이는 불안과 긴장으로 현훈증이 이는속에 성녀의 팔소매를 더럭 부여잡고 흔들었다.

《아주머니! 왜 그래요? 무슨 일이 생겼어요?》

리성녀는 날카롭게 튀어나오는 갑수의 물음에 자기를 가다듬은듯 고개를 곧추 쳐들었다.

《우리 집으로 가자요. 이 집은 갑수아재가 들어설데가 아니야요!》

눈덕이 푸석푸석한 리성녀의 얼굴에서는 갑수를 처음 만나던 때의 비애 대신 표표한 기색이 어리었다.

언제 나타났는지 사람들의 뒤전에 등을 돌려대고 선 조용세의 안내가 잔약한 어깨를 떨며 소리없

이 울고있었다. 어디로 경황없이 나돌아다닌듯 머리며 옷주체가 말이 아닌 너인의 치마자락에 매여 달린 어린것이 겁에 질린 눈을 디룩거리다가 왕하고 울음을 터쳤다.

갑수는 서리 맞은 풀대처럼 후줄그레한 모녀의 가공한 정상을 본 순간 의혹이 격증되어 눈매가 사무러워졌다. 그들쪽으로 다가가려는 갑수를 리성녀가 막아서며 의분섞인 어조로 말했다.

《용세 그 사람은 없어요. <건국>호에다가 도망치는 원쑤놈들을 싣고 남으로 나갔어요!》

갑수는 너무도 놀라운 그 소리에 머리가 아찔해지며 성녀의 다음 말이 들리지 않았다. 얼마만에야 자신을 가깝스로 수습하고 남의것 같은 열편 청으로 다우쳐 물었다.

《아니 그건 무슨 소립니까? 예?...》

리성녀는 제 입으로 말한 그 일에 다시 억이 막혀오르는듯 울먹일뿐 더는 말을 잇지 못했다.

사람들속에 섞여있던 망선배 사공로인이 침통한 어조로 《건국》호의 별고를 이야기해주었다.

...《건국》호는 전쟁이 일어나자 군수물자수송에 동원되었다. 배가 전선까지의 먼거리를 여러차례 왕복하며 임무를 끝내고 돌아올 무렵에는 연포에 적들이 들어와있었다. 《건국》호 선장은 조직선을 통하여 배를 연포앞바다의 솔섬동굴에 은폐시키고 인민군대가 나올 때까지 지키고있으라는 지시를 받았다. 《건국》호를 면밀히 위장시킨 선원들은 지정된 은폐지에서 근 달반동안 배를 감쪽같이 지켜냈다. 그러던것이 어떤놈의 밀고로 은폐지가 드러나 적들이 배를 빼앗으려 덤벼들었다. 치열한 격투끝에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은 모두 희생되고 부상당한 허진 부선장과 조용세 두사람만이 적들에게 붙들리었다.

인민군대의 재진격으로 연포가 해방되기 며칠전, 적들은 수산사업소 방공호에 가두었던 허진이와 조용세를 《건국》호가 닿아있는 부두로 끌고나갔다. 부두에는 아군의 질풍같은 반공격으로 퇴로가 차단되는 바람에 사처에서 모여든 미군과 피뢰군패거리가 우글거리었다. 적들은 패주하는 무리를 군용선박만으로는 다 실어나를수 없어 작은 어선들까지 강제로 동원시키였다. 부두에는 강다짐으로 끌려나온 어부들과 가족들이 마구 뒤섞여 울고 부르며 수라장을 벌리었다. 허진이와 조용세가 부상당한 몸을 끌고 《건국》호결에 다달았을 때 퇴각을 지휘하던 《해병대》장교가 허진이에게 물었다.

《이 배의 부선장이었다지?》

《...》

그자는 대답이 없는 허진이를 노려보더니 흉하게 생긴 송곳이를 드러내며 울려했다.

《대답하라. 우리와 함께 가겠는가, 못가겠는가? 말 안들으면 죽여버릴테다.》

허진이는 랭소를 담고 장교놈을 흘겨보더니 평소와 조금도 다른없는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죽는걸 무서워할줄 아느냐? 너희들이 아무리 발광해도 우리 <건국>호를 타고 달아나지는 못할거다. 어리석은 수작은 아예 꺼내지도 말라!》

악에 반친 장교놈의 주먹이 허진이의 얼굴로 날아들었다. 상한 다리를 가까스로 부지하며 서있던 허진이는 잔교바닥에 널린 그물우에 쓰러졌다.

몇놈이 몰려와 덜미를 잡아 일으키는 순간 허진이는 어느사이에 그물버리에서 뜬언엔 목철을 힘껏 내던졌다. 한놈이 얼굴을 싸쥐고 비척이는것과 동시에 총소리가 울리었다. 허진이는 피흐르는 가슴을 움켜잡더니 장대한 몸을 꺾듯이 펴고 일어섰다. 마구 흩어져내린 머리칼 사이로 불이 펄펄 이는 눈이 놈들을 쏘아보았다. 질겁한 적들쪽에서 다시 총소리가 울리었다. 몸의 중심을 잃은 허진이는 배를 향해 돌아서더니 선체를 금시 부여안기라도 할듯 팔을 벌리고 지척지척 걸음을 떼다가 배쪽으로 머리를 두고 천천히 쓰러졌다.

허진이를 쏜 장교놈은 파릿한 연기가 피어오르는 총구를 조용세의 턱밑에 가져다댔다.

《어떻게 할테냐? 너는 부선장도 아닌 하바닥조기수이니까 뻔대지 않겠지?》

조용세는 머리와 팔다리의 심한 상처로 하여 서지도 못하고 그물더미에 기대여 앉았는데 피기없는 그의 체구는 전보다 더 체소해진것 같았다.

그는 장교놈의 말을 전혀 듣지 못하듯 배가까이에 쓰러져있는 허진이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있었다. 장교놈은 살기뻔 눈을 희번덕이며 거둬 강박하였다.

《똑똑히 들어두라. 만약 너까지 말을 듣지 않으면 너는 말할것 없구 쓸모없는 저 발동선을 폭파해 버리고말테다.》

조용세는 낮가죽이 팽팽해지더니 꺾어져있는 살로 적병이 가득 올라탄 《건국》호를 돌아보았다.

장교놈은 자기 말에 반응을 보인 용세에게서 순종의 기미를 느낀듯 목소리를 낮추어 구슬리었다. 그런데도 아무런 대답이 없자 사병들을 시켜 몸운신조차 바로 못하는 용세를 제잡담 배에 끌어올리었다.

《아니 저런놈을 봤나. 다 죽게 된 사람까지 저지경으로 끌어내다니...》

《짐승같은놈들, 벼락이나 꽂 맞아라!》

숨을 죽이고 용세쪽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놈들에게 허아래소리로 욕설을 퍼부으며 치를 떨었다.

용세는 자기에게 쏠린 낯익은 얼굴들을 하나하나 더듬었다. 누군가를 찾으며 무엇을 당부하려는

듯 두터운 입술을 움썹댔으나 입을 종시 열지 않았다. 그러더니 량팔을 부여잡은 적병들을 뿌리치고 마스트에 기대어섰다. 그는 적들에게 끌려나가는것이 불가피하다는걸 통감한듯 수산사업소 부두며 제집이 있는 포항산쪽을 차례로 둘러보았다.

어떤 비장한 각오나 결심의 념이란 꼬물만치도 없고 언제 돌아올지 모를 먼길을 떠나는 사람이 혹시 있고 가는게 없나 하고 집을 되돌아보는것 같은 기색이었다. 그는 자기의 일거일동을 지켜보는 군중들에게 다시 낯을 돌리더니 그들모두를 망막에 깊이 새겨두려는듯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그리고나서 비척이는 몸을 겨우 가누며 기관실 안으로 천천히 사라졌다. 얼마후 열기구관을 달구는 압축공기소리가 들리더니 푸두둥하고 기관이 시동되었다. 적병놈들이 계류막트의 바줄을 풀어내리자 《건국》호는 규탄과 의혹이 마구 뒤섞여 술렁이는 군중들을 뒤에 남긴채 시꺼먼 연기를 내뿜으며 남쪽바다로 사라져버리었다. ...

갑수는 사공로인의 이야기를 한마디 놓칠세라 귀를 도사리고 들었다.

《건국》호를 지켜 몇몇한 최후를 마쳤다는 허진이와 《건국》호에 적들을 태우고 나갔다는 조용세, 한배를 타던 두사람이 그렇듯 판관 다른 길을 갔다는것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다. 조수처럼 밀려드는 오만가지 잡다한 생각을 비집고 《건국》호의 모습이 눈가까이 비쳐들었다.

길이 이십메터에 75마력 열기구관을 설치한 크지 않은 저예망선이긴 하지만 《건국》호에서의 하루하루는 조용세를 포함한 선원모두와 하나로 엉켜진 벅차고 즐거운 나날이었다. 거기엔 일할수록 힘이 솟던 로동의 보람이 있었으며 물과 다름없는 갖가지 단란한 생활과 어부들에게만 고유한 뜨거운 우정이 있었다. 화목한 배의 분위기는 열세명선원들의 가정에까지 전파되어 서로 한집안식구처럼 오가며 혈연적인 정을 나누곤했었다.

가까운 살붙이라곤 없는 갑수에게 있어 《건국》호는 제 집이자 제 마을이었으며 그것으로 하여 연포포구를 자기 고향으로 생각해왔다.

허진부선장은 그 《건국》호를 지켜 생명을 바치었다. 하나 조용세는?

토막토막 끊겨나오는 리성녀의 목소리가 찌르듯 갑수의 귀전에 울려왔다.

《세상에 기막힌 일도 다 있지... 용세란 사람이 그런줄은 정말 몰랐어요. 제 목숨 하나 살자구 제 사람들을 죽인 원수놈들을 싣고 가다니요.

우리 주인이랑 배사람들이 그한테 나뻘 군게 뭐있나요? 저네나 우리나 새 나라의 덕으로 그리운것 없이 의종게 살아왔는데 무슨 척진 일이 있다구 그

짓을 할가요. 예그 알다가도 모를건 사람속이라더니 참...!》

성녀의 싸늘한 눈총이 닿은 토방에는 용세의 안해가 어깨를 처뜨리고 앉아있었다. 흐느껴 울다 못해 딸꾹질을 하는 딸애를 달랠 념도 못하는 녀인의 해쓷은 얼굴에는 절망과 체념의 질은 그늘이 져있었다. 웃음과 밝은 빛이란 영영 지어볼것 같지 못한 컴컴한 그 얼굴이 덩실하니 살아있으면서도 썰렁한 기운을 풍기는 행뎡그레한 집과 어울리어 갑수의 가슴을 아프게 저미었다.

갑수는 함께 불행을 당했지만서도 그 의미가 판관 다른것으로 하여 정상부터가 심한 대조를 이루는 두 가족을 생각깊이 지켜보다가 허진이의 안해에게 몇마디 위로의 말을 해주었다.

하지만 용세의 안해에게는 뭐라고 할 말을 찾지 못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곤경을 함께 나누며 서로 의지해주는것이 인간의 진정이라는데 앞이 캄캄해 주저앉아있는 용세의 안해를 눈 뵈히 뜨고 보면서도 어찌지 못하는것이 뼈를 깎아내는듯 고통스러웠다.

제집처럼 믿고 찾아왔다가 청천벽력과도 같은 변고에 맞다들어 문턱조차 넘어서지 못하고 돌아서게 한 용세가 야속하다 못해 막 원망스러웠다. 그러면서도 적들을 싣고 나갔다는 용세보다 《건국》호에서 함께 일하던 때의 조용세가 더 크게 비껴드는 것을 막을수 없었다. 스스로도 종잡지 못한 번잡한 생각에 휩싸인채 동네사람들과 갈피없는 이야기를 나누는동안 시간도 퍼그나 흘러 부대에 돌아갈 때가 되었다. 갑수는 한도양으로 뉘없이 앉아있는 집주인 모녀를 다시한번 더듬어보고는 무거운 걸음으로 자리를 떴다.



부대로 돌아온 그날밤, 갑수는 혼자서는 도저히 묵새길수 없는 가슴아픈 그 사실을 몇몇 전우들에게 이야기하였다.

해병들의 거처인 하갑관 선실에는 독한 담배연기가 자욱히 서러오를뿐 한참동안 침묵이 흘렀다.

치렬치절한 싸움길에서 가뜩이나 신경이 예민하여진 해병들의 얼굴은 갑수의 놀라운 이야기로 하여 더욱 날카로와진것 같았다. 매사에 너그럽고 룡담 잘하던 갑관장까지도 낮빛이 정색해지며 모가진 말을 하였다.

《전쟁인데 무슨 일인들 없겠나. 사람의 본색은 생사를 판가름하는 어려운 시각에 나타나기 마련이야. 회생을 요하는 마당에서 어떻게 처신하는가에 따라 애국자로도 되구 반역자로도 된다는걸 그 두사람이 톱톡히 말해주지 않는가.》

갑수는 갑판장의 칼날같은 단언을 반박하고 싶었다. 허진이에게 한해서는 옳은 그 말을 조용세에게까지 무턱 귀결시키는것은 단순한 속단이라고 웨치고싶었다. 하나 그것을 강경히 주장할수 없었다. 전후 경위와 조건은 어찌되었던 조용세가 적에게 리용당하였다는것은 엄연한 사실이기때문이다.

새벽이 가까와오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궁싹대느라니 선실벽을 울리며 철썩이는 물결소리조차 뇌리를 자극하여 울적한 심경에 휩싸이게 했다.

불현듯 선체를 가볍게 흔드는 물결소리가 《건국》호 선원실에서 자장가처럼 들으며 잠들곤하던 해조음으로 변조되어 울려오며 어로공시절의 잊을수 없는 추억을 불러왔다.

어느날 저녁, 갑수는 바다에서 방금 귀향하여 잔교에 닿은 《건국》호 갑판우에서 장작을 췌다. 선원실에 뿔 화목이었다. 어느때에는 물에 내려 나무를 패울리곤 하였으나 오늘은 어쩐지 그러기가 성가스러워 으스스한 고물에서 가름대를 모래삼아 도끼질을 하였다. 톱으로 짤막짤막하게 자른 참나무 토막들은 결이 곧아서 잘도 짜개졌다. 옷통을 벗어던지고 헹헹 도끼질을 할 때 누군가의 우악진 손이 등뒤에서 도끼를 나꾸어쳤다. 조용세였다.

《미치지 않았나? 배의 등때기에 대고 도끼질을 하다니?》

용세는 성이라고는 낼줄 모르던 성미에 지내 격해서인지 후들거리는 아래턱과 함께 목소리가 떨려나왔고 불씨가 튀어나올듯한 눈이 이쪽을 쏘아보았다.

갑수는 어리무던하던 어느때와는 다르게 사나와진 용세앞에서 기가 질려 어리벙벙해졌다. 하나 예상 못했던 그의 호된 꾸지람이 배에서 나이가 제일 어린 자기를 굶잡아보는것 같아서 반발이 일어났다.

《쳇, 나무 몇가지 췌다구 배에 자리가 나겠나요 뉘.》

《나무 몇가지라구? 그럼 어디 네 잔등에 대고 나무를 패보자. 네 뒤잔등에... 어서!》

용세는 갑수를 당장 엎어놓기라도 할것처럼 어깨를 부여잡았다. 그러자 갑수는 용세의 손을 뿌리치며 발끈해 대들었다.

《기관실에서 갑판일에 무슨 참견이야요?》

펄펄 뛰던 용세는 정작 갑수가 눈을 발가매고 접어들자 어처구니 없다는듯 허파 빈 코숨을 길게 내쉬며 물러났다. 어깨가 별스레 축 늘어진듯싶었다.

용세는 아무 일도 없은듯 배전에 묵묵히 걸터앉아있더니 갑수가 배장에 널린 장작을 거두자 기관실에서 대패와 자귀를 꺼내왔다. 이윽고 갑수가 도

끼자리를 낸 가름대가 매끈히 다듬어지기 시작하였다. 일제때 왜놈 네구리배(저예망선)의 활차에 찢기위 식지 하나를 잘리운 손이었으나 목수쟁기를 능란하게 다루었다. 아니 능란하다기보다 극성스럽다 해야 할것이다. 그런데도 갑수는 땀흘리며 대패질을 하는 용세를 강건너 불보듯하며 서있었다.

이때 부선장 허진이가 갑수를 조타실로 끌고 갔다. 허진이는 여전히 대패질에 열중한 용세쪽을 피곳 돌아보더니 낮게 타일렀다.

《웃사람앞에서 그게 무슨짓인가? 배를 저꼴로 만들어놓고두 뻔뻔스레 말대답질을 하다니.》

허진이는 갑수가 큰 망발이라도 저지른듯 쓰겁게 입을 다시더니 진중하게 이었다.

《그는 오랜 바다사람이야. 배동무들 모두가 그를 말형처럼 여기며 따르는걸 자넨 모르나? 용세동무의 말을 채심하라구.》

진심어린 부선장의 충고는 갑수로 하여금 용세에 대해 다시 생각하도록 했다.

용세의 손에 다스려져 광택을 내는 기관은 혈기 넘치는 심장처럼 사철 기운차게 돌아갔으며 기관고장으로 배를 세운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

기관뿐이 아닌 배의 모든것을 제 살점처럼 여기고 임보다도 일로서 모든 말을 대신하는 용세를 선원들 누구나가 존경하며 어려워한다는것을 알면서도 경망스럽게 대든것을 두고두고 후회했었다. ...

그때의 조용세에 뒤이어 《건국》호에 홀로 남은 조용세가 련상되었다. 등에 겨누어진 총부리와 살기띤 눈알들, 도망치기에 혈안이 된 적들에겐 조용세라는 사람보다도 기관을 돌릴줄 아는 그의 손만이 필요할것이다. 그 하나의 목적으로 적들에게 끌려나간 용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물론 용세는 평소에 말없이 직심스레 일했다. 크게 한 일은 없어도 제게 맡겨진 조기사수직무에 전력했다. 허나 평화롭던 날에 성실했던 사람모두가 준엄한 때의 시련과 희생을 다 이겨낼수 있는건 아닌가보다.

용세에 대한 갈피없는 상념을 거둬들 뒤채이느라니 어리무던하고 모질지 못한 그의 천성이 가슴에 겨누어진 총구의 위협을 이겨내지 못하고 자신뿐 아니라 가족들에게까지 오점을 남긴 길을 가게 하지 않았을가 하는 위구까지 일었다.

용세가 원망스럽기에 앞서 가장 가깝던 사람들에게 죽음과 치욕을 들썩운 원수들에 대한 적개심이 끓어올랐다.

...가렬한 전투의 나날은 흘렀다. 갑수는 적함들의 통로에 촉각기뢰를 부설할 때에도, 미친듯 기습해오는 적 함재기를 맹렬한 대응사격으로 불살라버릴 때에도 조용세와 허진이를 생각했다. 가슴속 끓

는 복수욕은 끝이 없어 자기들이 설치한 기뢰원에 걸려든 적 함선들이 허리가 꺾이워 침몰되는것을 보면서도 성차지 않았다. 오로지 이 땅 이 바다에 기여든 적들을 모조리 격멸해치우고싶은 마음뿐이었다.

연포수역에서의 첫 전투총화때 갑수는 전대장의 감사를 받았다.

군위라는 금빛 글자가 뚜렷이 찍힌 전대 군기앞에 나서서 감사를 받는 갑수에게는 군대에 나오던 날 역두에서 조용세가 안겨주던 《건국》호 기발이 떠올랐다. 어디에 가나 《건국》호와 연포포구를 잊지 말라던 소박한 당부가 어린 그 기발을 항상 가슴에 품고 싸워온 자기에게 지금 분에 넘치는 감사를 주고있다.

하지만 그 기발의 주인인 용세와 《건국》호는 없다.

몸의 한부분을 문턱 잃은듯한 허전함은 감사를 받고 난 다음에도 새로운 전투임무를 수행하는 바다우에서도 털어버릴수가 없었다.

갑수는 함정과 함께 기지인 연포포구로 돌아올때면 배머리쪽으로 가까와 오는 물을 쓸쓸하게 바라보곤하였다.

포항산도 그때의 그 산, 도래굽이 언저리의 백사장과 바다도 이전 모습 그대로이건만 한집안식구 같던 배동무들과 《건국》호가 없는 연포저리는 전혀 정답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부두에 들어설 때면 《건국》호를 대군하던 잔교와 용세네 집이 있는 언덕쪽에 버릇처럼 눈이 끌리곤하였다.

《건국》호와 용세는 정녕 어디에 있는가? 그와의 사이에 있었던 일이 다시는 돌아보아서 안될 과거로 영영 사라져버렸단말인가.

갑수는 집요하게 서려드는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날 바다에서 또 한차례 기뢰를 부설하고난 갑수네 함정은 술섬앞 수역으로 빨리 출동하라는 무선지시를 받았다.

지적된곳에 도착하니 거기에는 해군인양대의 준첩선이 와있었다. 바다를 순찰하던 경비정이 물위에 떠있는 표식때를 하나 발견하였는데 떼와 련결된 바줄이 드리운 물밑에는 배가 가라앉아있다는 것이었다. 그 배를 건져올리는 인양작업을 협력할과업이 갑수네한테 차례졌다.

갑수는 여느 해병들과 함께 심상히 작업준비를 했다. 넓으나 넓은 바다에 기뢰원을 전개하면서 기뢰부설에 장애로 될수 있는 침수된 배와 적 비행기들의 잔해를 수없이 건져올린 터여서 이번 역시 그러루한 일일거라는 짐작이 들뿐이었다.

이윽고 잠수병들이 침몰된 배에다 쇠바줄을 걸어매고 나오자 준첩선과 갑수네 함정이 그 량끝을 동시에 당기기 시작하였다. 권양기의 요란한 동음과 함께 물속깊이 드리운 굵은 쇠바줄이 활줄처럼 켜기여지며 한치한치 무겁게 감겨올라왔다. 드디어 물결면에 무수한 물방울들이 연기처럼 피어오르더니 맨 먼저 뽀족한 마스트끝이 물밖으로 서서히 솟아나왔다. 뒤이어 조타실 지붕이 드러나고 다음엔 라선형 와류를 일으키는 물결의 소용돌이를 헤치고 배 전체가 불쑥 떠올랐다.

무심중 그쪽에 시선이 끌리였던 갑수의 눈이 차츰 휘둥그레지더니 《아!》 하는 외마디소리가 튀어나왔다.

앞뒤가 뻗시있는 곡선을 이룬 날씬한 선체, 여섯개의 창문이 주련이 달린 조타실과 기관실 측면의 큼직한 환창, 갑수는 눈에 익은 그 몇가지 특징만으로도 그 배가 《건국》호라는걸 대변에 알아보았다. 늘 마음속에 그리면서도 다시는 못볼줄 알았던 자기 배를 이렇게 만난것이 꿈을 꾸는것 같았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적들에게 끌려나가던 저 배가 어떻게 되어 여기에 가라앉았을가 하는 의심이 생기였다.

배주하는 적들의 퇴로를 차단하고 길목을 지키던 제2전선부대의 포사격을 받았는가? 아니면 제편이건 누구건 가려볼사이 없이 마구 불질을 해대며 돌아치던 미군비행대의 눈먼 폭격에 침몰되었는가? 그렇다면 거기에 탔던 조용세는?

갑수는 꼬리를 맞추는 잡다한 추측과 어떤 막연한 기대를 품고 남먼저 《건국》호로 뛰어넘어갔다.

배는 여러날동안 침수되어있다가니 물때가 좀 오르긴하였지만 파괴된 흔적이라곤 없이 생생한 그대로였다. 갑수는 이물쪽 갑판으로부터 시작하여 좌우 선현을 한바퀴 돌아보고나자 제일먼저 기관실에 들어섰다. 감탕과 물때가 앉은 기관 본체며 부속들이 울썸년스레 비쳐들뿐 다른것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구석구석을 살피며 한참동안 두리번거리던 그는 갑자기 눈을 홑뜨며 한자리에 못박히였다.

기관실 밑바닥에 있는 비상배수구의 마개를 뽑아낸채 배수구의 원통을 붙안고 굳어진 사람을 띄여본것이다. 갑수는 발목까지 차오르는 물을 절버덕거리며 그걸로 조심히 다가갔다.

기름에 찌들대로 찌든 대마직작업복, 배수구의 마개나사를 틀어쥔 식지없는 두툼한 손, 아! 그것은 틀림없는 조용세였다. 배수구와 린접한 구석쪽에는 두개골이 부서져나간 적병의 시체가 어지럽게 나뒹굴어있었다. 인양을 지휘하던 군관과 기술근무성원들이 배를 면밀히 조사하였다. 배는 잔새우나 찌꺼기같은 좀벌레가 없는 깨끗하고 평탄한 자갈밭

을 끌라 가라앉혀놓은것으로 하여 널쪽하나 상하지 않고 원상 그대로였다. 선원실과 갑판구석에서 들춰낸 적병들의 시체조차도 물에 툭툭 붓기만 했지 멀쩡했다.

적들을 이곳까지 신고나온 조용세가 놈들과 피어린 결투를 벌인끝에 비상배수구의 마개를 열어 배를 침수시켰다는것이 누구에게나 명백히 알려졌다. 조용세는 인간의 진면모가 검증되는 결정적인 그 시각에 배와 더불어 물속깊이 잠겨드는것으로 적들을 수장시키고 《건국》호를 사수한것이다. 경비정에서 발견한 표식페는 용세가 배의 위치를 알리기 위해 띄운것이라는것도 구명되었다.

갑수는 불멸의 조각상처럼 굳어진 용세를 눈물을 머금고 굽어보았다. 물결사나운 바다조차도 이 억척같은 생명을 고이 감싸준듯 용세는 살아있을 때의 모습 그대로였다.

용세에 대한 갖가지 미련과 위구에 뒤채이면서도 이러한 그를 보게 되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던 갑수는 온몸을 사르는듯한 흥분과 슬픔을 주체 못하며 엎어지듯 무릎을 꿇었다.

《용세동지 ! ?》

배에 찍힌 도끼자루를 땀흘려 다듬고 먼 산판에 까지 가서 배의 계류말뚝을 해다 쫓던 용세의 진정이 마음속 깊이 비쳐들었다.

신체의 널 한조각, 가름대 하나까지도 제 몸처럼 여기며 정히 거두던 용세의 수고는 물고기 비린내와 배기름냄새조차 제집의 향취처럼 느끼던 마음에서 우러나왔을것이며 그러한 숨결로 고동치는 심장과 더불어 《건국》호의 기관은 사철 쉬임없이 돌아갔으리라.

아 ! 그는 그토록 사랑하던 배와 더불어 물속깊이 잠겨드는 순간 무엇을 생각하였으랴?

비록 제 몸은 한가닥 빛도 보이지 않는 천길 물속에 영영 묻힌다 해도 아무때고 다시 솟아오른 《건국》호우에 비길 맑고푸른 하늘과 파사로운 해빛을 보았을것이며 고동을 멈춘 제 심장을 대신하여 다시금 힘차게 돌아갈 기관소리와 더불어 이어질 자랑찬 배길을 마지막 넋을 모아 그리며 눈을 감았으리라 ! 《건국》이라는 존엄있는 이름으로 불리우는 배를 바다에 떠다니는 선박이라기보다 우리 인민의 행복이 한껏 깃들며 꽃피는 내 나라 영토의 한부분으로 여겼기에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숭고한 최후로 배를 구원해냈다. 가장 어렵고 값높은 희생으로 먼저간 선원들이 다하지 못한 의무까지 빛나게 수행한 용세의 고결한 넋을 일시나마 욕되게 생각한것이 이룰데없이 죄스럽게 여겨졌다.

갑수는 줄지어 흘러내리는 뜨거운 눈물을 삼키며 배수구를 꼭 붙안은 용세의 팔을 풀어주었다.

지휘관들과 해병들이 엄숙한 얼굴로 조용세의 유해를 갑판우에 옮겨다 뉘히었다.

조용세가 주고 간 《건국》호의 선박식별기가 마스트에 다시 제양되는 속에 요란한 조종소리가 울리었다. 온 바다를 진감하는 일제사격의 폭음에 주위를 감돌던 갈매기떼가 공중높이 날아올랐다.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은빛날개를 퍼덕이며 끼르륵대던 물새들은 다시 돌아온 《건국》호의 소식을 어서 빨리 알려야 한다는듯 물을 향해 앞다투어 날아갔다. ...

연포수산업소의 잔교머리에는 수리를 끝낸 《건국》호가 닿아있었다. 조용세가 다듬어 세운 계류말뚝에는 전처럼 배의 계류바줄이 든든히 매여있었다. 수산업소 기관선중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건국》호가 수리를 끝내고 처음 바다로 나가는 날이다.

건국초기에 연포사람들이 무슨 첫 기계배로서 선창 바다로 나갈 때처럼 오늘은 전시물고기생산의 새 출발을 하게 된 《건국》호다.

갑수는 배의 첫 출항을 바래우러 나온 사람들과 함께 잔교우에 서있었다. 그의 곁에는 조용세와 허진이의 안해들도 나와있었다. 그들은 다정한 자매처럼 서로 꼭 붙어있었다.

새로 무슨 배처럼 산뜻한 《건국》호가 이전처럼 자기 배멀리에 듬직히 닿아있는것으로 하여 폐허뿐이던 포구가 한결 활기에 넘치며 밝아진것 같았다. 람홍색 공화국기와 더불어 선박식별기가 호기있게 나뭇기는 마스트결에서는 선원들이 출항준비를 서둘고있었다. 배와 잔교 계류말뚝까지도 이전 그대로였지만 선원들은 열세명모두가 새사람들이었다. 아마 새로 임명된 《건국》호 선장과 선원들은 자기네 배를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전 선원들에 대하여 특히는 조용세의 위훈에 대해 자랑스레 말할것이다. 하지만 용세의 인간됨을 다는 모를수 있다.

자기가 일하는 자그마한 배를 한낱 배로서가 아니라 행복한 생활의 요람인 내 나라 영토의 한부분으로 여기며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지켜낸 참다운 공민으로서의 그의 면모는 우리 조국만이 길이 잊지 않고 빛내여줄것이다.

갑수는 영광스러운 조국, 위대한 장군님의 품을 지켜선 전사의 의무를 거듭 자각하며 한자리에 오래도록 서있었다.

떠나는 마음

리석형

새벽부터 하염없이 펄펄 쏟아지던 눈은 해가 저문 다음에야 멎었다. 새해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내린 눈이었다. 쌀쌀한 바람이 일고 하늘에는 여전히 함빡 물기를 머금은 짙은 구름이 낮게 떠돌고있었다. 아직도 무엇이 더 쏟아져내릴것만 같았다.

읍거리에는 오가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무겁게 눈을 이고 서있는 집집의 창문에서 흘러나오는 불빛이 길을 흰히 비쳐주고있었다. 어데선가 행복에 겨운 웃음소리가 들려오고 은근한 기타소리가 들려왔다.

털외투주머니에 두손을 찢어넣은 군급양관리소 인수원인 김종섭아바이는 고개를 수긏이 떨구고 무겁게 걸음을 옮겨놓고있었다. 발밑에서 나는 눈발치는 소리가 바작바작 가슴을 긏었다. 행복에 겨운 웃음소리도 은근한 기타소리도 지금의 자기와는 무척 거리가 먼것으로 생각되었다.

(하긴 선고개를 넘었으니 ...)

그는 마음속으로 서글프게 중얼거렸다. 그리고는 어제 오후에 있던 일들을 되새겨보았다.

어제 오후였다. 하루일이 끝나자 초급당비서가 종업원들을 모아놓고 사리원카리비료련합기업소건설을 다그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전달한 다음 사리원카리비료련합기업소 건설이 가지는 의의와 석회석광산의 중요성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그는 알루미나와 카리비료를 생산하는데 카리장석보다 석회석이 더 많이 든다고 하였다.

그는 이렇게 말을 이었다.

《이번에 도내 기관 기업소들에서 석회석광산에 사람들을 보내주게 되었습니다. 우리 급양관리소에서도 사람들을 보내야 합니다. 물론 그곳으로 가는 동무들앞에는 애로와 난관이 적지 않을것입니다. 이번에 파견되어가는 동무들이 생활터전도 닦고 시설물건설도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나 함부로 보낼수 없습니다. 거기 가서 뿌리를 박고 주인 구실을 할만한 그런 동무들을 보내야 합니다. ...》

종섭아바이는 아버지수령님께서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 건설과 함께 사리원카리비료련합기업소 건설에 힘을 넣어야 한다고 하신 교시의 구절구절이 상기되었다. 그러자 마치 중요한 과업을 받아안을 때처럼 심장이 높뛰고 마음이 엄숙해졌다.

한마디 한마디 힘주어 말하던 초급당비서는 대건설장에 지망하는 사람들은 초급당위원회에 제기해달라고 하였다.

《청계 아홉산이 어데 있나?》

《청계땅에 있겠지뭐.》

《아, 그 서흥호로 가는 길 왼쪽에 봉우리가 아홉인 큰 산이 있지 않아. 그게 아홉산이야.》

《이 엄동설한에 집이랑 짓자면 간단치 않겠구만.》

《그래서 아무나 함부로 보낼수 없다지 않아.》

종섭아바이는 젊은 사람들이 주고받는 이런 말을 들으면서 자기야말로 누구보다먼저 자원해나서야 할 사람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였다. 왜냐하면 젊었을 때 광산에서 일한 경험이 있기때문이었다.

(큰 광산을 개발하자면 나같은 사람이 요구될게 아닌가. ...)

그는 집에 돌아와서 곰곰히 생각해보니 초급당비서가 바로 자기같은 사람들을 녀두에 두고 말한것만 같았다. 그러나 막상 가자고 하니 10 여년동안 일해온 급양관리소와 한집안 식구처럼 정이 든 직장사람들을 떠나서는 단 한달을 못살것만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의 눈앞에는 여러가지 자재와 설비들을 하나하나 끌어들이고 식당들을 꾸리던 일이 어제 있던 일인듯 선히 떠올랐다. 얼마나 많은 길을 걷고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던가.

그는 사람들앞에 나서기를 좋아하지 않는 성미였다. 하지만 관리소와 식당들에서는 그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급하고 중요한 일이 제기되면 일꾼들은 먼저 그를 찾곤하였다. 들어온지 얼마 안되는 식당 접대원들까지 모든 일에서 깐지고 성실한 그를 아껴주었다. 이제 낯선 고장에 가면 누가 그를 알아주겠는가.

저녁에 퇴근하여 자리에 누운 그는 래일 다시 잘 생각해보자 하고 눈을 감았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고 삼거웃처럼 엷히는 착잡한 생각에 머리만 무거웠다. 저도 모르게 긴 한숨이 새어나왔다.

뜨개질을 하고있던 안해가 근심 어린 눈길로 광대뼈가 두드러지고 하관이 빠른 남편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어데 편치 않으시우?》

종섭아버이는 눈을 뜨고 입가에 가벼운 웃음을 지어보였다. 그리고는 속으로 자신을 나무랐다. 길게 생각할게 있는가, 가면 가는거지... 이렇게 생각하니 한결 마음이 편했다. 물론 광산으로 간다면 안해가 놀랄것이다. 그러나 크게 걱정할것은 없었다. 바늘 가는데 실 간다고 남편의 의사에 엇설줄 모르는 안해는 자기의 불만을 누르고 묵묵히 따라나설 것이다.

종섭아버이는 다시 눈을 감고 생각을 계속했다.
(이 집은 아들한테 넘겨주고...)

그런데 이튿날아침 직장에 나가보니 대건설장에 나가기를 희망하는 술한 사람들이 모여서서 열렬한 토론들을 벌리고있었다.

종섭아버이는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멀리 뒤떨어진것만 같았다. 선뜻 용단을 내리지 못하고 리기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이리 뒤적 저리 뒤척한것이 부끄럽게 생각되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크게 관심하시는 카리비료공장인데 자기가 도리를 지키지 못하고있는것이 아닌가.

그는 하루일이 끝나자마자 초급당비서를 찾아갔다.

《비서동지, 내가 젊었을 때 광산에서 일한걸 아시지요?》

《예, 알지요.》

초급당비서는 짐작이 가는듯 피곤이 실린 두눈에 미소를 담았다.

《나를 광산으로 보내주세요.》 종섭아버이는 말을 해놓고보니 자기 의사를 다 표현하지 못한것 같아서 더 보탰다. 《나같은 사람을 보내지 않으면 누구를 보내겠습니까. 내가 가면 한몫 단단히 할수 있습니다.》

《아버이, 고맙습니다. 하지만... 보내진 못하겠습니다.》

《왜요? 이 김종섭이 없으면 일이 안될것 같아서 그런니까? 원 참, 그런 걱정 말고 보내주세요.》

《여기 일이 걱정돼서 못보내는게 아닙니다. 마흔살이상은 보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

종섭아버이는 할말이 없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가서 고생할가봐 넘려해주는 당의 은정이 고맙기 그지없었다. 그러나 커다란 기대가 무너졌을 때 처럼 온몸의 맥이 풀리고 어깨가 축 처지는것을 어찌할수 없었다.

그는 고개를 떨구고 힘없이 돌아섰다. ...

갑자기 승냥이떼가 울부짖는듯한 소리를 지르며 세찬 바람이 거리를 휩쓸고 지나갔다. 그러자 캄캄한 하늘에서 굵은 싸락눈이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하였다.

종섭아버이는 얼굴을 들고 하늘을 올려다본 다음 또다시 무거운 생각의 소용돌이속에 말려들어갔다. 이제는 어데가서 하소할수도 없고 미련한 아낙네처럼 생떼를 쓸수도 없다는것을 모르지 않았지만 뜻을 이루지 못한 그 문제를 머리속에서 지워버릴수 없었다. 모두들 당의 부름을 받들고 영광스러운 대건설행군에 참가하는데 자기만 축에 들지 못하게 된것 같았다.

(무슨 방도가 없을가?)

저쪽에서 대여섯명의 처녀들이 짙짙거리며 마주 걸어왔다. 살을 에이는듯한 세찬 바람도 싸락눈도 삶의 희열로 충만된 그들의 발랄한 웃음소리를 막지 못하는상싶었다.

종섭아버이는 부러운 심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에게도 청춘시절이 있었으며 넘치는 힘과 정열을 다 바쳐 젊은 혁신자로 이름을 떨친적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니 청춘시절을 너무도 평범하게 보낸것만 같았다. 이번에 광산으로 가서 대건설행군에 참가하게 되면 어렵고 힘든 모퉁이를 말아 다문 얼마간이라도 봉창하면만...

이런 생각을 이어가는 그의 머리속에 별안간 전광처럼 번쩍 비쳐드는것이 있었다.

(우리 집에도 저런 팔팔한 아들딸들이 있지 않은가. 그 애들을 앞세우고 청계광산으로 간다면? ...)

아들딸들을 앞세우고 온 가족이 다 간다면 당에서도 만류하지 못할것이 아닌가! 답답하던 그의 가슴속에 비로소 기쁨이 찾아들었다. 출가한 딸딸은 남의 집 사람이니 데리고갈수 없다 해도 네남매에 머느리까지 데리고간다면 많은 일을 할수 있을것이였다.

그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손이 털외투주머니에서 밖으로 나오고 걸음이 빨라졌다.

그러나 잠시후 그의 기쁨은 어둠속에서 번쩍하고 나타났다가 꺼져버린 불빛처럼 사라지고말았다. 발걸음은 다시 떠졌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들이 말을 들을것 같지 않았다.

외아들인 윤길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기업소에서 일하고있었다. 그는 그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 오금에 자개바람이 일도록 돌아다녔다. 그가 그 직장으로 출근하는 날 온 집안이 얼마나 기뻐했던가. 윤길은 지금 근심걱정을 모르고 만족스런 마음으로 일을 잘하고있다. 그가 과연 자기의 일자리를 버리고 광산개발지로 가겠다고 하겠는가. 종섭아버이는 아들을 설복할 자신이 없었다.

그는 아무래도 단념하고 잊어버리는수밖에 없었다. 인민들에게 봉사하는 급양관리소에서 일을 잘하는것도 중요하지 않은가. 하지만 광산으로 가

는 일을 단념하자고 하니 명치끝에 무엇이 목직하게 매달리는것만 같았다. 눈 밝히는 소리가 다시금 바작바작 가슴을 긁었다. 그는 길게 한숨을 토하고 나서 자기 집의 불밝은 창문을 바라보았다.

그가 집안에 들어서보니 먼저 퇴근한 아들딸들이 다 아래방에 앉아있었다. 사위도 와있었다.

종섭아버이가 털외투를 벗고 아래목에 앉자 딸들과 사위가 잠시 끊어졌던 이야기를 다시 계속하였다. 그들의 화제는 청계광산에 사람들을 보내게 된 그 문제였다. 윤길이란 혼자 그들의 이야기에 흥미가 없는듯 부피 큰 소설책을 읽고있었다.

저녁상을 받은 종섭아버이는 손가락을 들다말고 새삼스럽게 아들딸들과 사위를 둘러보았다. 그러자 이 애들을 앞세우고 광산으로 갔으면 하는 생각이 다시금 머리에 떠올랐다. 그들을 데리고가면 그 어디에 가도 무서울것이 없을것 같았으며 못해낼 일이 없을것 같았다.

《어떤 기관에서는 지망자가 스무명이나 나왔다 누만.》

사위가 하는 말이였다.

《나도 오늘 광산에 보내달라고 제기했다가 거절당했다. 나이 많다고...》

종섭아버이의 입에서는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이 흘러나왔다. 그러자 대변에 안해의 눈이 콧꽃해졌다.

《당신이 광산에 가요? 정신 나가지 않았어요?!》

《거절당했다는데 뭘 그러오.》 종섭아버이는 먼바주듯 말한 다음 아들딸들을 향해 뒤를 이었다.

《당의 방침에 의해서 젊은 사람들만 보낸다고 하니 할말이 없긴 하지만 어쩐지 마음이 좋지 않더구나.》

《당에서 취한 조치가 백번 옳아요. 이 추운 겨울에 그 험한 산골에 가서 아버지가 어떻게 견디시겠어요.》

셋째딸이 말을 받았다.

종섭아버이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윤길은 여전히 소설책에 눈길을 박고있었다. 아버지의 말을 듣는지 안듣는지 알수 없었다.

종섭아버이는 섭섭한 생각이 들었다.

(저 애가 내 심정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구나. 제가 가겠다고 하면 누이동생들도 군말없이 따라나서련만. ...)

그러나 내친김에 자기 생각을 다 털어놓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셋째딸을 쳐다보며 입언저리에 웃음을 지었다.

《네 눈엔 내가 맥을 못추는 늙은이로 보이느냐? 아니다. 아직은 힘이 있다... 내 집으로 돌아오면서 꼼꼼히 생각했는데 너희들을 앞세우고 갔으면 한다.》

《뭘라고요?》 제일 문제가 없을줄로 안 안해가 누구보다 먼저 펄쩍 뛰었다. 《안돼요 안돼! 난 아무도 안보내겠어요. 이 좋은 집과 좋은 직장을 버리고 어디로 간다고 그래요?! 밥이 없어요 옷이 없어요? ...》

종섭아버이는 어이가 없어서 얼른 말이 나오지 않았다. 안해는 걱정없이 잘살게 되니 좀이 쑤서서 자식들을 그런데로 끌고가려고 한다느니 고생을 사서 하려고 한다느니 하면서 넋두리를 시작했다.

윤길은 그냥 책에서 눈을 떼지 않고있었으며 딸들은 말이 없었다.

종섭아버이는 안해의 말허리를 꺾고 신중한 어조로 말했다.

《아버이수령님께서 카리비료공장 건설이 중요하기때문에 길을 가면서도 카리비료공장 건설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꿈을 꾸어도 카리비료공장에 대한 꿈을 꾸신다고 교시하셨다오. 그래 우리가 누구덕에 잘살게 되었소?... 우리가 수령님을 받드는 일에 선참 나서지 않는다면 사람의 도리가 아니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말문이 막힌 안해는 남편의 눈치만 살폈다.

갑자기 윤길이가 책을 덮고 고개를 번쩍 들었다.

《아버지 말씀이 옳습니다. 갑시다. 매부도 가고. ...》

확 달아오르는 눈길로 아들을 쳐다보는 종섭아버이의 가슴속에 뜨거운것이 치밀어올랐다.

(네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사위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아버님,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사흘이 지난후 아들딸 네남매와 사위를 데린 김종섭아버이는 다른 기관기업소들에서 선발된 사람들과 함께 버스를 타고 아직은 이름밖에 없는 청계광산으로 갔다. 어머니와 딸딸 그리고 며느리만 집에 남았다. 그들은 살림집이 건설된 다음에 이사집을 꾸러가지고 뒤따라가기로 한것이였다.

대건설장으로 달려가는 김종섭아버이의 가슴은 청춘의 열정과 행복으로 설레이고있었다.

건설장에 비낀 노을은

리명근

소리도 없이
기별도 없이
저녁노을 비껴내린다
카리비료공장 건설장에

거대한 건설의 음향속에
끓어번진 이 하루를
품에 안아 잠재우련듯
조용히 건설장을 휩싸안은
저녁노을
어디선가 들리던 발동소리도
때맞춰 잠시 멈추어 서는구나

마치 건설장에
휴식의 고요가 깃들려듯
돌격대합숙 지붕에서 솟는 연기
고향의 정취를 불러주는데
기타소리, 웃음소리
노을속에 울려퍼진다

하나 건설의 음향이 멎기는 잠깐
다시 새날의 시작인듯
여기저기서 길을 메우며 밀려오는
지원자들의 물결
하루낮의 혼잡처럼

들끓기 시작한 이 저녁

아름다운 노을을 마주하고
바삐 걸어오는 대학생이며 너인들
낮익은 배우도 출장원들도
건설자들과 한데 어울려
하나같이 노을빛에 물들었구나

화려한 모형도위에 솟구치는 건설장
어디를 둘러보아도
뒤지지 않을 기세로
이 저녁을 맞고있구나

배비변경된 건설장인듯
새롭게 펼쳐진 건설장의 전경
이런 순간으로 이어지는
들끓는 건설장의 저녁이어

아, 이럴 때 바라보니
건설장에 비낀 저녁노을아
너는 새날을 알리는
또 하루 전투를 부르는
아침노을과 다름없구나!
타오르는 기발과도 같구나!

노 래

유영하

즐거울 때 부르는것이
청춘의 노래인가
힘겨울 때 부르는것이
우리의 노래인가

북방의 보람찬 그 나날
청춘들은 노래를 불렀다
더없이 기쁠 땐 흥겨워
더없이 어려울 땐 힘겨워

성예장 버석이는 물속에
허리치는 감탕을 퍼내며
다리 기초를 다지던 그밤엔
강추위도 얼굴수 없는 그 가슴들에서
노래는 뜨겁게 열풍을 안고 울렸다

한치한치 암벽을 뚫고
차굴을 관통한 그 아침엔
너무도 기뻐서
노래는 환희로이 울렸다

노래속에 첫 자욱을 찍고
노래속에 첫 침묵을 깔고
노래속에 첫 기적소리 울린 북방의 철길은
오늘도 그 노래
가슴가슴에 뜨겁게 전해주거니

오, 청춘들이여
아름다운 노래를 먼데서 찾지 말자
이 세상 노래중의 노래는
조국을 받들어 불타는
그대들의 심장속에 있노라

농장벌에 더 많은 트랙토르를 !

-금성트랙토르종합공장을 찾아서-

리수덕

우리 나라 굴지의 트랙토르생산기지인 금성트랙토르종합공장을 찾는 사람은 그가 비록 초행길을 걷는다손쳐도 누구한테 말 한마디 묻는 일없이 그 위치를 쉽게 알아낼수 있다.

이를테면 눈을 감고도 트랙토르발동소리만 따라가면 곧추 금성트랙토르종합공장 정문앞에 이르게 되는셈이다.

우리가 거리 한복판에 들어섰을 때도 빨간색, 푸른색으로 방금 도장을 해서 윤기가 도는 《천리마》호 트랙토르들이 공장쪽에서 연줄연줄 꼬리를 물고 달려나와 어디론가 떠나가고있었다.

한편 철길을 가로질러 쪽 뻗어간 립체교에서 굽어보는 역구내엔 증량화차에 실린 《풍년》호트랙토르들이 농장벌로 달려갈 출발의 시각을 기다리고있었다.

우리는 공장구내밖에서부터 금성트랙토르종합공장의 로동체급이 위대한 농촌테제에서 제시된 기술혁명과업수행에서 이룩하고있는 빛나는 성과들을 가슴뜨겁게 느끼며 공장정문에 당도했다.

정문에 힘있는 글발로 아로새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1987년 9월 2일 현지교시를 철저히 관철하자!》라는 붉은 바탕의 대형구호판과 공장건물의 높은 지붕우에 트랙토르생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구호의 글자 한자한자가 대문짝만하게 새긴 글발이 한눈에 확 안겨왔다.

당의 농사제일주의방침과 농촌기술혁명수행에 단연코 앞장서 나가려는 이곳 트랙토르생산자들의 드팀없는 신념과 의지를 그대로 말해주는듯싶었다.

우리는 트랙토르생산의 첫 공정을 맡은 주물주강직장과 단조직장부터 돌아보기로 했다.

감격도 새로운 지난해 가을,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자기들의 공장을 찾으시여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 여러가지 질 좋은 트랙토르를 더 많이 생산하여 농촌에 보내줌으로써 농촌테제에서 제시한 농촌경리의 종합적 기계화의 과업을 가까운 기간안에 실현하는데 적극 이바지하라고 하신 간곡한 교시를 기어이 관철하려는 로동체급의 불같은 열정으로 하여 작업장은 흡사 치열한 격전장을 방불케 했다.

연해연방 쏟아붓는 쇠물이 그대로 기관본체가 되어 쉬임없이 흘러나오는가 하면 지축을 흔드는 프레스의 억척스런 무쇠함마에 잘 익은 강재가 콕축으로 다기차게 다져져 소재무지에 쌓여진다.

타래치는 불연기와 피어나는 쇠물꽃, 분초가 새로운듯 기증기를 다급히 부르는 주물공의 갈린 목소리, 혁신의 새 소식을 알리며 기대들결에 련속 나붙는 아직 물기도 채 마르지 않은 전투속보들...

비록 초소와 직종은 서로 달라도 어버이수령님의 현지교시와 우리 당의 농사제일주의방침을 높이 받들고 한대의 트랙토르라도 더 빨리, 더 좋게 생산하려는 충성의 일념으로 이어진 심장파 심장들은 그 어디서나 속도전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키고있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트랙토르는 농업생산에서 가장 중요한 로동수단이며 트랙토르를 얼마 가지고있는가 하는것은 농업의 기계화수준을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트랙토르는 밭갈이, 씨뿌리기, 가을걷이, 짐나르기를 비롯한 여러가지 농사일을 종합적으로 기계화하는데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기계화수단이다.

때문에 위대한 농촌테제에서 제시된 농촌경리의 4대기술혁명과업을 가까운 년간에, 그것도 매우 높은 수준에서 실현해야 할 영예롭고도 무거운 과업이 전면에 나서고있는 오늘 트랙토르생산을 다그치는것은 자못 큰 의의를 가진다.

이 모든것을 천리혜안으로 환히 내다보셨기에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전후의 그 어렵던 때에 벌써 이곳에 오시여 몸소 트랙토르공장의 터전을 잡아주시고 발전방향을 뚜렷이 밝혀주셨다.

하여 그전엔 풀무질을 하며 호미나 낫, 쇠스랑 등 소농기구나 생산하던것이 오늘은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손길아래 자동화의 자랑찬 위용을 떨치는 《기계바다》로, 우리 나라의 믿음직한 트랙토르생산기지로 발전하게 되었다.

우리는 이날 《기계바다》 한복판에서 나이 지숙한 한 아با이를 만났다.

비록 머리에 흰서리는 내렸으나 강단이 있어 보이는 몸집이며 정기있는 눈빛, 단정한 작업복차림새에 스파나를 들고 이 기대 저 기대를 눈여겨살피면서 가동상태를 가늠해보는 그 잔진 일숨씨로 보아 그저 보통 기대공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게 했다.

우리는 짐짓 그에게로 다가가서 몇마디 이야기를 건네어보았다. 과연 우리의 예상은 틀리지 않았다.

그는 기관직장장 리봉성아바이였다.

프락포르생산에 한생을 바쳐온다는 그는 전후 천리마대고조시기의 그 열정, 그 기백을 안고 지금도 기대공들을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교시 관철에로 힘있게 이끌어나가고있는것이였다.

기관직장의 여기저기에 큼직하게 나붙은 자랑찬 혁신의 소식들은 누구의 설명없이도 이곳의 기대공들이 가까운 몇해사이에 농촌경리의 종합적 기계화를 실현하기 위해 구슬땀 바쳐가는 충성의 열도를 여실히 보여주고있었다.

《기관본체가공은 넘려말라!》, 《가공 1 작업반에서 하루계획 120% 수행!》

《축하한다! 월계획을 돌파한 보링공들》

어찌 프락포르생산자들에게든 하는 일에 부닥치는 애로가 없고 겹치는 난관이 없으랴.

그런데 이들에게 그 어떤 열정이 굵이치고 어떤 힘이 용솟기에 련일 자랑찬 혁신을 수놓아가고있는 것인가?

전투속보의 힘찬 글발들을 읽으며 이런 생각에 잠긴 우리에게 대답이라도 주듯 봉성아바이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우리 금성프락포르공장 로동계급을 크게 믿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프락포르를 얼마나 더 많이 더 좋게 생산하는가에 따라 농촌경리의 종합적 기계화의 실현이 크게 좌우된단말입니다.

정말 생각하면 할수록 어깨가 무겁지요.》

이렇게 말꼭지를 떼고난 아바이는 우리를 직장 휴계실로 안내했다.

커다란 유리창으로는 아득히 넓은 가공직장이 눈이 모자라게 안겨들었다.

《지금 종합가공조립기지가 틀고있는 이곳이 어떤곳이였는지 아십니까?

천리마대고조의 그 나날, 말그대로 빈터우에서 첫 프락포르를 만들 때 밤을 꽤며 부속품을 깎고 쓸던 우리 로동자들이 날이 새면 마당에 달려나와

개구리 찜뽕대는 폭탄구멍이에서 세면을 하던 자리였다우.

그때에야 누군들 오늘과 같은 <기계바다>가 여기에 생겨날줄 꿈에나 생각했겠소.》

감회에 젖은 직장장아바이의 말이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최근에 또다시 금성프락포르종합공장을 찾으시여 여러 공정들을 일일이 돌아보시며 공장이 대규모적인 프락포르생산기지로 훌륭히 꾸러진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한 사실을 감지높이 이야기하고나서 전후의 그 어렵던 나날에로 우리의 생각을 이끌어갔다.

…지금으로부터 30여년전 일이였다.

우리 로동계급이 금성프락포르공장에서 프락포르를 만들려고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자그마한 나라가 프락포르를 만들것이 아니라 사다쓰라고 하였으며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은 자체로 프락포르를 만드는것은 수지가 맞지 않는다고 하면서 도리질을 했다.

언제나 인민의 힘을 굳게 믿으시고 인민의 힘에 튼튼히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을 승리의 한길로 확고히 이끄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만약 우리 나라에서 3만 5,000대의 프락포르가 요구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수입하자면 1년에 3,500대씩 사와도 10년 이상은 걸린다고 하시면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대담하게 자체의 힘으로 프락포르를 생산할데 대하여 간곡히 교시하시였다.

당과 수령님의 명령이라면 목숨까지도 바쳐 그것을 끝까지 수행하고야말겠다는 열의에 충만된 이 공장 로동계급은 2,000여종의 부속품을 깎고 두드려 만들어서 마침내 30일남짓한 짧은 기간에 프락포르를 생산했던것이다.

높이 올린 프락포르의 발동소리!

그것은 로동계급의 무궁무진한 창조적 힘을 굳게 믿으시고 혁명의 앞길을 통이 크게 열어나가는 어버이수령님의 령도의 현명성에 대한 송축의 노래였다.

또한 그것은 자립적 민족경제의 반석같은 토대우에서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줄이고 농민들을 힘든 일에서 해방하시려 위대한 수령님께서 펼쳐주신 농촌기술혁명의 자랑찬 대교향곡이였다. ...

이윽고 추억에서 깨어난 봉성아바이는 가까운 앞날에 자기들이 반드시 돌파해야 할 프락포르생산 목표에 대하여 설명하고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했다.

《올해는 공화국창건 40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인 뜻깊은 해이고 전후의 그 어려운 형편

에서 우리들이 프락포르를 만들어내어 위대한 수령님께 크나큰 기쁨을 드렸던 때로부터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참말로 돌이켜보면 감회가 깊어집니다...》

직장장아바이는 저으기 격동되는 마음을 금할 길 없는듯 창가에 다가서서 《기계바다》를 점도룩 바라보다가 다시 우리쪽으로 향했다.

뜨직뜨직하나 힘있는 흥분된 그의 목소리가 마디마디 뜨겁게 우리의 가슴을 울려주었다.

《우리들이 프락포르를 만든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동안 얼마나 많은 프락포르가 생산되어 조국강산 각처로 달려갔습니까.

하지만 우린 언제한번 자신들이 해놓은 일을 놓고 만족해본 일이 없지요.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께

서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공장에 주신 프락포르생산목표를 기어이 승리적으로 달성함으로써 당의 품속에 자라난 조선로동계급의 본때를 다시 한번 세상에 떨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아바이의 걱정애 넘친 이 말을 들으며 그것이 자신이나 자기 직장만이 아니라 농촌기술혁명의 전초선을 지켜선 금성프락포르종합공장 전체로동계급의 한결같은 결심이라고 생각했다.

우리는 이곳 로동계급들이 영광의 자욱이 깃든 굴지의 프락포르생산기지에서 일하는 끝없는 자랑과 긍지를 안고 날에날마다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창조함으로써 온 세상에 위대한 농촌체제의 완성을 선포할 날을 앞당기는데 적극 기여하리라는 확신을 안고 공장정문을 나섰다.

나에게 친구들이 많은것은...

김종백

차길로 천리 버스 타고 몇백리
먼 북부의 산골문려관방에 들어도
판판 모를 사람 없더라
동갑처럼 보여 통성을 하면
불타는 전선길을 함께 걸은 전우

해당화 피는 서해의 포구
밀물을 기다리는 선실에서
어딘가 낮이 익어 말 건넌면
수도의 대회장에 함께 참가했던 동무

낯설다고 모르는체할 사람 없더라
인적없는 외진 고개길에 길동무 생겨
몇마디 이야기를 나누면
내가 찾아가는 고장의 나의 친척들과
인연을 맺고 사는 사람

건설장에서 우연히 만난 한 젊은이
말씨조차 같지 않아 서먹했어도
알고보니 당결정 받드는 세포총회때
서로 다른 일터 당조직에서
같은날 나와 한목소리로 토론을 하고
작업복 갈아입고 달려온 동지

전쟁의 화약내도 함께 마시였고
더운 땀에 젖어 건설의 나날도 함께 보낸 사이
개발지로 달리는 열차칸에 자리를 같이했고
당이 베푸는 은덕에 함께 눈물짓던
그 인연으로 서로 모르게 구면이 된 사람

우리 사는 땅은 넓어도
인정의 세계에는 먼곳이 없어
모든 사람 가깝고 다정해지는구나

동지 한사람 천금주고도 못산다 했건만
수천만 사람들이 친구이고 동지이고 형제인
남이 없는 세상을
정녕 나는 무엇으로 얻은것인가

내 소리쳐 말하거니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만을 알며
믿고 따르는 값높은 행복을
내가 안고 살기때문이어라

한 상등병처녀의 뒤에는

황령아

광복거리 취재를 나갔을 때 대대정치지도원은 나에게 한 처녀군인을 소개하였다.

《어제 입당한 동무입니다. 만나보십시오.》

다른 말은 없었다. 그러나 그 한마디가 무척 많은것을 이야기하는것처럼 내게는 생각되었다.

대대정치지도원은 수첩을 꺼내더니 종이 한장을 뜯어내어 무엇인가 몇자 써서 나에게 주었다.

《이걸 보이고 만나십시오.》

거기에는 간단히 이렇게 써여있었다.

《작가동무의 요구에 꼭 응해주시오. 정치지도원 김.》

의아하여 바라보는 나에게 그는 사람좋은 얼굴에 크고 시원스런 웃음을 담으며 설명했다.

《모두가 작업에서 잠깐이라도 떨어지는것을 싫어한답니다.》

군인다운 예견성을 가진 사람이었다.

정치지도원이 소개한 처녀군인을 마주했을 때 나는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그는 이제 갓 스물에 잡힌 아직 애티나는 처녀였던것이다.

수첩장을 보이니 일년감빛으로 물든 두볼의 홍조를 온 얼굴에 퍼뜨리며 어쩔줄을 몰라했다.

이렇게 어린 처녀가 벌써 당원의 영예를 지니었다니 영웅적인 이야기도 많고 사연도 많으리라.

그런데 그가 꺼낸 이야기는 상상밖이었다.

《당원이 되고보니 처음으로 생각되는것이 중학 시절의 너선생님입니다.》

그 순간 나는 내가 다닌 취재길에서 만나본 술한 교육자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이 처녀도 바로 그런 다심한 선생의 애뜻한 사랑을 받고 자랐으리라. 그리고 당원의 영예를 지니고보니 선생님의 얼굴이 먼저 떠오른것이리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교원들이 자기의 영예로운 사명을 어떻게 수행하는가 하는데 따라 혁명의 계승자이며 조국의 미래인 후대들의 질적상대가 결정된다.》

나는 영예로운 교육사업과 교원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두고 생각에 잠겼다.

그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저는 량강도의 두메산골에서 나서 자라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남달리 멀었어요. 게다가 험한 산길이었답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그의 그런 사정을 알아주지 않았으며 남다른 특전도 베풀지 않았다. 다른 애들과 똑같이 요구성을 높였다.

(선생님은 나를 미워하시는가봐.)

소녀는 그렇게 생각했으며 고까움은 날로 커갔다.

어느해 겨울날, 산골에는 눈이 많이 내렸다. 부모들은 걱정이 되어 길이 난 다음에 학교에 가라고 그에게 권고했다.

그러나 엄격한 선생님의 얼굴이 떠올라 도저히 길이 나기를 기다릴수 없었다.

끈을 매서 배낭처럼 가방을 등에 지고 생눈길을 헤치며 걷기 시작했다. 제판에 항일의 아동단원들도 생각하며 ...

간난신고끝에 그가 교실에 들어서니 수업이 시작된지 20 분이나 지났을 때였다. 온몸이 땀에 젖고 손발은 감각을 잃은것 같았다.

그러나 먼곳에서 솟눈길을 헤치고 왔다는것으로 하여 그는 땀을 내듯 선생님과 동무들을 바라보았다.

《왜 늦었어요?》

선생님은 물었다.

소녀는 장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눈이 와서...》

허나 뜻밖에도 선생님의 목소리는 날카로왔다.

《그럼 그만큼 일찍 떠났어야 할게 아니예요?》

이번에야 사정을 알아주겠지 하던 기대를 후려치듯 호되게 닦아세웠다. 자신에 대한 요구성이 없고 정신적인 준비가 없다고 선생님은 나무랐다.

손발을 열구며 생눈길을 헤치고 온 그로서는 너무도 혹독하고 억울한 나무람으로 생각되어 선생님에 대한 야속한 마음이 앞서 눈물이 솟구쳐올랐다.

소녀는 울면서 선생님을 원망했으며 그 반발로 다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지각을 안하리라 속다짐했다.

소녀는 그후 한번도 지각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선생님이 대한 고까운 마음은 풀리지 않았으며 속을 주지 않았다.

선생님은 여전히 아침조기운동으로부터 시작하여 학교에서 조직되는 모든 과외활동에서도 자그마한 에누리가 없었다.

소녀의 의지는 점차 강해졌으며 학급에서 누구보다 앞장서 나가게 되었다.

그러나 끝내 선생님에 대한 서먹서먹한 태도만은 고치지 못한채 학교를 졸업했다. ...

상등병처녀는 머리를 들었다.

《오늘에 와서 생각해보니 나에게 자신에 대한 강한 요구성을 심어주신분은 그 선생님이였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집이 멀다고 나를 봐주었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나는 군대에 나와서도, 앞으로 사회생활을 할 때도 조금만 난관이 있어도 누가 봐주기를 바랐을것이 아닙니까. 선생님은 나를 그렇게 엄격히 키워주었습니다. 난 당원이 된 소식을 맨 처음으로 선생님에게 알려려고 합니다.》

너선생을 생각하는지 까만 눈동자에는 추억의 파도가 일렁이고있었다.

나도 만나본적 있는것처럼 문득 그 너선생의 모습이 떠올랐다.

눈동자가 빛나고 빠르고 힘있는 걸음씨를 가진 너선생, 학생의 이해를 받지 못한것으로 하여 그 당시에는 가슴이 아팠을것이나 엄격한 그 요구성으로 시작된 교원의 노력은 오늘 상등병처녀를 누구보다 일찍 조선로동당원의 영예를 지니게 하는데 기여했으며 그는 사회와 혁명을 위해 어엿이 한몫 하고있는것이다.

밖에서 《와-》 떠드는 소리가 났다.

어느새 대형트라스조립이 끝나고 지붕공사에 진입하고있었다.

밖을 내다보던 상등병처녀는 몸을 일으키고 못내 송구스러워하며 말했다.

《작가동지, 미안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를 더 붙들고싶지 않았다. 아니, 붙잡고있는것이 죄스럽게 생각되었다.

순간이라도 자기의 땀과 청춘을 아낌없이 바치고싶어하는 상등병처녀, 일을 하고 해도 더 하고만 싶어하며 자그마한 조건타발도 없이 모든 일을 이악하게 해내는 이 처녀의 뒤에는 그를 그렇게 키우려고 애쓴 성실한 교육자의 노력이 깃들어있는것이다.

나는 그와 헤어지면서 무슨 말인가 하고싶었다. 훌륭한 조언을 주고싶었고 그를 고무해주고싶었다. 그러나 생각과는 달리 말은 다르게 나갔다.

《선생님에게 꼭 편지를 쓰기 바래요.》

나는 현대적으로 변모되어가는 광복거리를 지날때면 문득 그 처녀의 모습이 떠오르군한다. 그는 선생님에게 편지를 썼을것이다. 편지를 받은 그 선생은 얼마나 기뻐했을가. 그리고 어떤 해답을 보냈을가. 아마 내가 주지 못한 조언이, 고무의 말이 그 회답속에 있을것이고 상등병처녀는 더 훌륭한 군인으로 자랄것이다.

순간을 다투며 광복거리는 자라고있다. 키가 크고 면모가 변하고 활력이 넘치고있었다. 바로 처녀군인을 비롯한 우리 시대 영웅건설자들이 그렇게 변모시키고있었다.

그 영웅건설자들의 뒤에는 상등병처녀를 키워준 너선생과 같은 훌륭한 교육자들의 노력도 깃들어있는것이다.

백시

도표선을 다시 그리라

김상조

하루도 빠짐없이
경쟁도표판에 붉은선을 올리는
속보원동무여

백날도 되기전에
새로운 200 일전투계획 다했다고
도표선 끝까지 다 올렸다고
붓을 든채 기웃

걱정을 말라

그대 일도 전투
경쟁도표선을 다시 그리라
200 일에 이어
2,000 일의 선
20,000 일의 선을 다시 그리라

공장길에서

류정옥

이른아침 취재길에 오른 나는 방직공들속에 끼여 평양종합방직공장으로 가고있었다.

출근길에 물결쳐흐르는 근로자들의 차림새! 말그대로 꽃물결이고 비단물결이다. 연한 색에 진한 색이며 붉고 푸른 가지각색에 문양 또한 다양한데 옷의 형태도 갖가지여서 그 가지수를 일일이 세일수가 없다.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게 나날이 높아지는 것이 근로자들의 생활수준이다.

나는 무심중 나의 차림새를 내려다보았다. 나 역시 비단물결에 하나의 꽃잎으로 피고있었다.

언제부터 이 길우에 이처럼 화려한 모습들이 흐르고있는가.

장미냉쿨이 기여오르고 정향나무와 야합수가 키를 넘는 담장을 따라 뻗어간 이 길, 이 길은 나의 삶이 시작되고 청춘시절이 흘러간 길이다.

전후복구건설이 한창이던 시기 나는 꺼먼 물들여서 만든 치마에, 허리에 띠를 매는 자주색 부라우스를 두터운 광목천으로 지어입고 이 길을 오고갔다. 나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방직공들이 다 그러루한 차림새였다.

간혹 어떤 사람들은 개인장사군들에게 몽테기돈을 주고 비단이나 목세루따위를 사입기도 했지만 그런 《신사》는 불과 몇이 안되였다.

헌데 오늘은 그 어디를 가나 고상하고 화려하며 나이와 취미에 따라 다양하고 우아한 모습들이 거리를 메우고있다.

이것이 세월과 함께 발전해온 방직공업의 면모가 아니겠는가.

평양종합방직공장! 이 공장은 우리 공화국창건과 함께 40여년의 역사를 가진 공장이다. 허나 역사가 길다고 하여 그 발전이 저절로 이룩되는것은 아니다.

나는 어느덧 정문을 지나 구내길에 들어섰다. 내 눈앞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현지교시관

이 확대되어 안겨왔다. 거울같이 연마된 거대한 화강석면에 빨간 획들이 촘촘하게 박혀있었다.

40여차가 훨씬 넘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교시의 요지들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을 선포하신후 한달만인 1948년 10월 10일 여기 대동강 기슭에 몸소 나오시여 공장터전을 잡아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때로부터 엄혹했던 전화의 나날에는 물론이거니와 전승의 열병식을 사열하신 직후에 공장복구건설을 현지에서 지도하셨으며 사회주의건설의 나날들에 48차에 걸쳐 걷고 또 걸으신 공장구내이다.

그때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우리 인민들을 남보다 더 잘 입혀 내세우시려는 친어버이심정이 일관된 뜨거운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천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며 문양이 곱고 색깔고운 날염직물들과 비단옷감을 더 많이 짜서 인민들에게 공급해야 한다고 간곡히 교시하시면서 그 해결방도를 하나하나 밝혀주시였다.

넓고넓은 구내길과 무수한 기대마다에 깃든 위대한 령도의 그 자욱을 따라 공장에서는 광목으로부터 스포직, 비날론직을 비롯한 각종 화학섬유들과 고급 비단천을 생산하게 되였으며 자랑스런 발전력사를 수놓아왔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의 수령이 인민들을 보다 더 화려하고 고상하게 입히시려고 이처럼 한 방직공장에 무려 48차의 걸음을 한 례가 있는가.

인민의 어버이이시고 오직 인민을 위하여 한평생 바치시는것을 필생의 리념으로 삼으시는 우리 수령님 한분뿐이시다.

하기에 거리와 거리마다에 흐르는 꽃물결, 비단물결은 위대한 사랑이 펼친 아름다운 화폭이리라.

시에서 산문화를 없애고 운률을 살리는 문제를 두고

오정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언어작업에서는 시어를 잘 골라내는것과 함께 음악적흐름에 맞는 시문장을 잘 짓는것이 중요하다.》

시는 명실공히 시로 되어야 한다. 시가 시로 된다는것은 거기에 시문학의 고유한 특성인 서정성과 운률이 있고 풍부한 서정성을 통하여 인간과 그 생활에 대한 시인의 미학적 이상이 사상정서적으로 깊이있게 밝혀져야 한다는것을 말한다.

산문화가 느껴지는 시들의 경우

음악적 흐름에 맞는 시문장이 아닌 서술식 문장으로 표현되는 산문화는 시의 본도와는 어긋나는것이며 그것은 시에 있을 자리가 없다.

그러면 시에서 산문화는 어디에서 오는것인가.

리해를 돕기 위하여 우리는 여기서 먼저 최근시 기 시인들이 창작한 시작품들가운데서 산문화되었다고 느껴지는 시들중의 일부 시련들을 살펴보는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언제나 열려있다
산원의 문도
진료소의 문도
찾아오는 사람마다
반겨맞아주고
정성을 다해 보살펴주며...

...

무상치료의 은혜로운 혜택속에
정성운동의 불길은 타올라
의사와 간호원들이
살과 뼈를 떼여주는
전설같은 사랑의 새 시대

학적부에

성적을 올리는 교원마냥
건강관리부마다에
태어나 생을 마칠 때까지
건강상태를 기록하며
보살펴주는
의사담당구역제를
법으로 제정한 나라

누구나 열정에 넘쳐 배우고
누구나 젊음을 안고 일하도록
예방의학을 앞세워가는
세상에 둘도 없는
으뜸가는 사회주의 이 제도-
(시 《문은 열려있다》에서 리영복,
《문학신문》 1988년 4월 29일)

밤이 오면
어둠은 별빛을 가리우려 하네
하나 별들은 빛을 뿌리네
구만리 창공에

밤이 깊어갈수록
별들은 더욱 찬란히 빛을 뿌리네
어둠이 제아무리 장막을 펼치여도
별빛은 태양의 빛발이어서
이 세상 그 무엇도 가리우지 못하리
(시 《별빛》 유명하, 《문학신문》
1988년 4월 8일)

우의 시련들을 읽으면서 대뜸 느껴지는것이 음악적인 류창성도 없고 잘 읊어지지도 않으며 아무리 읽어야 별로 시흥도 생기지 않는다는것이다.

반면에 시문장을 읽기가 힘들게 되어있어 시가 산문화되었다는 인상이 강하다.

이 시들에서 느끼게 되는것은 우선 어느 시의 경우이나 현실에 대한 생활과 인간에 대한 시인의

뜨거운 느낌과 체험세계가 없고 일반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이 주어져있을뿐이라는것이다.

시 《문은 열려있다》를 놓고보자.

시인은 주로 문이 열려있다는데 모를 박아 무상 치료제와 의사담당구역제를 기본으로 노래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시에서 보는바와 같이 시인은 그러한 보건제도의 우월성을 두고 체험하고 사색한 느낌을 토로한것이 아니라 그 보건제도가 어떻게 우월하다는것을 하나하나 썰거하고 설명하였다. 때문에 이 시를 읽으면 우리 나라 보건제도의 내용에 대해서는 료괄적으로 알수 있지만 그 우월성을 두고 느끼는 시인의 체험세계는 몇마디의 일반적인 말마디를 내놓고는 어디에서든 감득할수가 없다.

시 《별빛》의 경우는 우의 시와는 좀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있지만 시인의 절절한 느낌이 없는데서는 공통적이다. 시에서는 밤이 오고 어둠이 짙어 가도 하늘의 별들은 여전히 반짝인다는 다 아는 사실을 구태여 품을 들여 어렵게 설명하고있는것이다.

결국 두편의 시는 다 같이 시인의 뜨거운 느낌과 절절한 체험이 없이 대상을 해설하고 설명하는 식으로 씌여졌다.

체험이 없고 느낌이 없이 대상에 대한 설명과 해설을 《시적》 형식으로 펼쳐놓는데서는 시적 운율이 아니라 산문식 서술밖에 나올것이 없다.

우의 시들에서 느끼게 되는것은 또한 깊은 정서적 체험이 없는 사정파도 관련되지만 시적 감정을 전개하는데서 시문장, 시의 운률조성문제를 매우 서툴게 해결하고있는것이다.

시 《문은 열려있다》를 보면 《언제나 열려있다》라는 종결술어를 시련의 앞에 전도시켜놓은외에 그 어떤 문장론적 운률적 고려도 찾아볼수 없다. 시인은 몇개 토와 술어를 생략하면서 몇개런씩 쭉라렬해가고있는데 그것은 내용에서 설명적일뿐아니라 시문장 자체도 서술식 문장으로 일관되어있다.

다른 여러가지 문제와도 관련되지만 시에서의 산문화의 경향은 기본적으로는 이 두가지 요인에 관계된다.

그러므로 시에서 산문화를 극복하고 아름답고 류창한 형식미를 가진 사상예술성이 높은 시다운 시를 창작하자면 시인들이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인간과 생활을 뜨겁게 체험하고 절절한 느낌을 간직하여야 하며 가슴속에서 뿜어져나오는 시적 감흥을 감미로운 톨조로 다양하고 다채롭게 형상하여 사람들의 가슴마다에 고상한 시흥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정서와 운률, 운률과 정서

시에서 정서는 운률과 밀접한 련관관계에 있다.

시에 운률이 없으면 정서도 없게 된다.

시에서 운률은 정서를 살리며 돋구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것은 바로 다름아닌 운률이 정서에 의하여 조건지어지고 정서를 표현하는데로 지향되기때문이다.

운률이 없으면 정서가 없게 되는것과 마찬가지로 정서가 없으면 운률도 없게 된다. 그만큼 시에서 정서와 운률은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옳게 해결하자면 시에서 풍부하고 심오한 정서를 담는 문제를 선차적으로 해결하는것이며 다음으로 그에 맞게 운률을 새롭게 탐구하고 더욱 세련시켜나가는것이다.

시창작에서 산문화를 극복하고 시가 시다운 《맛》을 가지게 하자면 풍부한 현실체험과 뜨거운 느낌에 기초하여 생활적 정서가 심오하고 다양하게 나래치게 하는 동시에 그에 상응한 시운들이 탐구되고 세련되게 하여야 한다. 이것은 한편의 시창작을 위한 두 측면이면서 동시에 진행되는 통일적인 과정인것이다.

시형식의 측면에서 운률조성의 견지에서 볼 때 서정의 참신성과 뜨거움, 그 다양한 색깔은 운률을 낳는 전제조건으로 된다.

시에는 정서가 있고 운률이 있다. 참신하고 뜨거운 정서로 충만된 시치고 운률이 졸렬한 시를 우리는 알지 못한다. 반면에 새롭고, 뜨겁게 약동하는 정서로 하여 운률적 특성이 한결 더 두드러지고 조화롭게 살고있는것을 우리는 성공한 많은 시들에서 찾아볼수 있는것이다.

《새들은 숲으로 간다》(정문향), 《창밖에 비가 와도 눈이 내려도》(김석주), 《어머니》(김철), 《나의 조국》(김상오)은 각양한 톨조미와 운률적특성을 보여주고있는데 이것은 시에 일관된 참신하고 심오한 서정세계와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시에서 정서에 의하여 운률이 규제된다는것은 정서 그자체가 곧 운률적 특성의 모든것을 결정한다는것은 아니다. 정서는 시의 운률을 낳고 그 운률의 성격과 특성을 조건지어주는 전제로 되지만 정서에 의하여 운률이 스스로 다 해결되는것은 아니다.

시에 운률이 없으면 정서도 없게 된다는것은 바로 운률의 도움이 있어야 정서도 살고 따라서 정서를 살리고 돋구기 위한 견지에서 운률을 조율시키고 세련시켜나가야 한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다.

그러므로 시인들은 생활에 대한 자기의 정서적 파악의 특성에 맞게 운률도 개성적으로 특색있게 살려나가야 한다.

이런 면에서 최근 우리의 시인들이 독창적이고 생동한 서정세계를 탐구하면서 시의 운률에 관심을 돌려 정서와 운률의 통일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고 시의 서정성을 한결 높여나가고있는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보고싶다
그 모습
그 얼굴
철의 도시 아이들이 바라는 소원

보고싶다
그 눈동자
듣고싶다
그 목소리
철의 도시 아이들이 그리는 모습

이렇게 시작되는 시 《철의 도시 미래앞에》(《문학신문》 5월 6일 홍현양)는 철부지아이들이라고 치부해버리기에는 그 시대적 자각이 매우 높은 철의 도시아이들의 절절한 소원을 헤아려 《아버지의 사랑》만이 아닌 《혁신자의 모습》으로 아이들의 기대와 믿음에 보답해나서려는 제철지구노동계급의 숭고한 사상감정을 응심깊게 감동적으로 노래하고있다. 이 시에는 아이들의 간절한 소원도 있고 그 간절한 소원을 심장으로 뜨겁게 받아안으며 위훈으로 가슴불태우는 뜨거운 열정도 있다. 시인은 바로 높은 시대적 자각과 임무속에 어울려 울리는 이 절절한 서정세계를 운률의 진폭을 보다 짧게 하면서 다양한 반복강조의 수법을 리용하여 생동하게 드러냈다.

그리하여 시에는 시인의 깊은 체험세계, 뜨거운 느낌속에서 울려나오는 간절한 소원, 불타는 보답의 맹세가 뜨거운 정서로 굽이치는가 하면 그 간절한 소원, 불타는 보답의 맹세를 더욱 부각하고 강조해주는 운률의 박동과 류창성으로 하여 시의 사상감정은 한결 숭고한 높이에서 절절하고 뜨겁게 울리는것이다.

정서의 흐름과 호흡률에 맞게 시행을 짧게 하면서도 짧은 시행을 통하여 반복강조의 효과를 살려 시의 형상성을 일층 제고한 이러한 특성은 이 시인이 이전에 창작한 시 《내 자라난 사랑의 품이여》, 《나의 추억》 등에서도 찾아볼수 있는것으로서 운률적 측면에서도 개성을 살리기 위한 시인의 노력을 엿볼수 있게 한다.

시 《봄, 처녀들이 웃는다》(《조선문학》 3호 엄형조)는 《철의 도시 미래앞에》와는 다른 측면에서 교훈을 주는 작품이다. 이 작품은 《위훈을 안고 험한 겨울 이겨낸》 북부철길건설자-처녀들의 낭만적인 서정세계를 특색있게 노래하고있다. 우리시대의 그 어느 일터에 낭만이 없으랴만 엄혹한 겨울의 추위와 싸우는 북부철길건설장, 그 건설장의 수많은 건설자들중에서도 처녀들의 생활과 낭만은

류다른것이다. 생활자체가 류다를뿐아니라 그것을 노래하는 시의 정서와 운률도 류달라야 한다.

시 《봄, 처녀들이 웃는다》에서 시인은 바로 이 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하였다.

갔는가 겨울은
왔는가 봄은
내가에서 손을 씻던 처녀 하나
환성을 지른다
-어마나, 버들개지 !

버들개지를 통하여 봄을 노래한 시는 많았어도 움튼 버들개지를 이처럼 경이적으로 노래한 시를 우리는 아직 모른다. 북방의 봄소식은 그렇듯 건설자들, 처녀들의 심장을 확 달구었으며 강추위속에서 위훈의 길을 뚫아온 그들의 가슴에 새로운 환희와 걱정의 불을 지퍼올렸던것이다. 이러한 양양된 정서에 맞게 시는 벌써 첫 시작부터 특색있는 운률로써 그 정서를 더욱 살리고있다.

《갔는가 겨울은》, 《왔는가 봄은》-전도된 수사학적 질문, 그러한 수법의 반복-이것은 벌써 그렇듯 바라고 기다렸던, 아니 투쟁으로 당겨온 봄에 대한 환성이며 짧지만 이 두 시행속에는 하많은 사연이 폭포처럼 사품쳐흐르고있는것이다.

협동농장의 처녀들이 버들개지를 보고 봄을 느낀 심정을 이렇게 노래했다면 우리는 의아감을 품었을것이다. 또 시인들은 그렇게 노래하지도 않았을것이다.

이것은 확실히 시인이 정서적 체험을 심화하고 그 체험속에서 산생된 정서를 그대로 살리기 위해 탐구하고 세련시킨 특색있는 운률이다.

첫 시련뿐아니라 7련에 달하는 시 전면에서 시인은 양양된 정서에 맞게 운률을 잘 조성함으로써 보통의 랑만이 아니라 북부철길건설자들, 그 가운데서도 처녀건설자들의 랑만의 세계를 생동하게 잘 살려냈다.

보석도 닦아야 빛이 나듯이 정서적 체험에 기초한 운률도 이처럼 시인이 정서에 맞게 효과적으로 탐구하고 세련시켜야 더 잘 조화를 이루고 운택하게 된다. 우의 시인들은 운률조성의 보조적 수법을 리용하는것을 포함하여 모든 수단과 수법을 효과적으로 살려씀으로써 시에 운률적 미가 넘쳐흐르고 시형상이 고도로 세련되게 하여야 한다.

우리 시인들은 시에서 산문화를 결정적으로 극복하고 서정성을 높이기 위한 견지에서 현실체험을 깊이하고 뜨거운 정서를 세련된 운률로 심오하고 감명깊게 노래하기 위하여 더 많이 사색하고 노력하여야 할것이다.

내 기쁨 쇠돌아 외 1 편

송찬웅

철산을 뒤흔든 발과후에
나는 달려가 쥐어본다
방금 석반에서 떨어져나온
거뭇한 쇠돌 하나를

제법 묵직하구나
진짜 쇠덩이처럼
금시 용접봉을 대면
불꽃이 튀어나올듯

얼핏 보면
어디나 흔히 있는 막돌같아
아무런 매력도 없건만
나는 너를 보석처럼 눈여겨본다

말없는 쇠돌아
너는 내 기쁨

너없이 너없이
내 삶도 조국도 빛날수 있으랴

너는 쇠가 되어
만년철탑으로 일어설수도
두줄기 궤도를 달릴수도
푸르른 하늘을 날수도 있거니

너에게선 들려온다
내 어린것의 딸랭이소리로부터
철다리의 장쾌한 울림까지
번영하는 조국의 온갖 철의 음향이

오, 쇠돌을 캐내는 일
그처럼 성스럽고
광부의 긍지 이리도 높음을
세상에 소리없이 웨치는 내 기쁨 쇠돌아 !

철산에 핀 해바라기

해바라기 해바라기
아늑한곳 다 버리고
네 어이 여기 피었나

정든 고향 멀리두고
철산봉에 뿌리내린
이 마음 담아 피었나

낮에도 밤에도
산정에 비끼는 사랑의 해빛을 담아
너 송이송이 그리도 탐스러우냐
나는 새들도 재빛으로 물든듯

산에산에 쇠돌산에 빛을 뿌리는
푸른 잎 노란 네 모습 유별나구나

바람과 돌가루 발과에도 끄떡없이
해빛만을 우러러 정열에 불타는 꽃
너 신통히도 우리 광부들을 닮았구나

아, 해바라기
철산에 핀 해바라기야
당의 해빛 따르는 너와 나의 마음은 하나 !

(무산광산에서)

아들의 물음앞에서

윤문용

사람들은 혹은 생활에서 아이들의 범상한 물음을 두고 많은것을 생각해보게 되는 때가 있다.

바로 내 경우가 그러했다.

어느날 저녁, 북부지구탄광들에 대한 취재를 마치고 집에 들어선 나를 제일 먼저 맞아준것은 유치원에 다니는 딸애였다.

내 가슴에 안겨 좋아라 깔깔거리는 애를 보니 러로의 피로는 어디론가 가뭇없이 사라지고 마음은 즐거웠다.

아마 출장길에 자주 나서는 사람이면 이때의 내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것이다.

《그래 영철인 학교에서 아직 안왔소?》

늘 함께 뛰어나오던 아들이 애만 안보여서 나는 안해에게 물었다.

《왔어요. 옷방에 있는데...》

안해가 망설이는데 딸애가 얼른 말을 이었다.

《오빠는 텔레비존을 봐요. 요샌 기록영화만 봐요.》

순간 서운한 감정이 저도 모르게 나의 가슴에 감겨들었다.

(그럼 집에 있으면서도?!)

어쩐지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졌다.

어느덧 시간은 흘러 아이들을 잠자리에로 부르는 안해의 목소리가 아래방에서 울렸다.

벌써 10 시인가.

하긴 구태여 시계를 볼 필요도 없었다.

나의 안해는 언제나 10 시만 되면 무조건 애들을 잠자리에로 부르곤하였던것이다.

애들도 이제는 어머니의 이 요구에 습관적으로 응하였고 이것은 자연 집안의 움직임수 없는 일과로까지 되었었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하며 취재기사를 정리하고있는데 불쑥 미닫이문이 열리더니 아들이 들어서는 것이었다.

애를 보는 순간 나는 일순 굳어지고말았다.

여태 이런 경우가 없었기도 했거니와 애의 얼굴이 그 어떤 불만으로 하여 잔뜩 찌프러졌기때문이었다.

《무슨 일이 있느냐?》

나는 가슴에 은연히 깃드는 불안을 느끼며 성급히 물었으나 애는 입술만 실룩거릴뿐 선뜻 입을 열지 않았다.

《혹시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욕먹을 일을 한건 아니냐?》

《아니예요..》

《그럼?》

《아버지, 어머니는 왜 10 시면 꼭 자야 한다고만 하나요?》

통명스러운 애의 목소리였다.

《너석두...》

안도의 숨과 함께 허구픈 웃음이 숨새어나왔다.

내가 얼굴에 웃음을 띄우자 애는 나를 자기의 《동정자》로 생각했는지 그릇가시는 소리가 나는 부엌을 보며 계속 불평을 쏟았다.

어떻게 할것인가.

지금 같아서는 애에게 무작정 어머니와 똑같은 요구를 할수 없었다.

생각을 고르던끝에 나는 슬쩍 에둘기로 하였다.

《그래 너희 선생님은 몇시에 자라고 하더냐?》

《?!》

애는 때론 눈으로 나를 바라볼뿐 얼른 대답을 못했다.

《야영소 일과표나 또 방학 일과표에 잠자는 시간이 몇시부터지?》

재차 물어서야 애는 10 시라고 대답했다.

《그것보렴. 10 시면 누구나 다 잠자기 되어있단다. 인민군대아저씨들도 말이다.》

애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아마도 차츰 이해되는 모양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한순간, 애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다.

《그러면 아버지원수님께서도 10 시면 휴식하시나요. 예?》

《?!》

순간 나는 굳어지고말았다.

애가 방금 무엇을 물었던가.

실로 너무도 뜻밖의 물음이었다.

《기록영화를 보니 아버지원수님께서는 깊은 밤에도 눈비를 맞으시며 현지도도를 다니셨어요. 우

린 10 시면 다 자는데 아버지원수님께서는 언제 휴식하시나요. 예 ? 》

애는 절절한 눈길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나는 선뜻 대답할수 없었다. 가슴이 뭉클하고 눈곱이 찌릿하게 젖어올랐다.

아, 과연 누구면 이 물음앞에 인침 대답을 줄수 있겠는가.

그날밤 나는 잠들수 없었다.

밤, 밤이라면 사람들은 의례히 인간의 휴식을 위해 자연이 베푼 하나의 혜택이라고 생각해왔다.

인간생활에서 일종의 법칙으로까지 된 이것을 사람들은 그 얼마나 고스란히 지켜왔던가.

그러나 돌이켜보건대 우리 수령님께서는 한평생의 그 무수한 밤에 이 법칙을 따르신적이 과연 그 언제 있었던가.

결음마다 시련, 자옥마다 난관으로 착잡하게 엉키고 고난의 행군과 피어린 전투속에 날이 밝고 해가 지던 항일혁명의 20 여성상.

밤은 언제나 시간을 맞추어 찾아왔건만 나라 잃은 가슴들속엔 그 밤이 너무도 길었었다.

그러나 조국과 혁명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신 우리 수령님께는 너무도 짧은 밤이었다.

동지 한사람을 얻기 위해 수백리를 쉬임없이 헤쳐가신 고유수의 밤길과 짓밟힌 조국, 신음하는 겨레의 원성이 가슴에 맺히시여 작전대앞에서 무수히 지새우시던 밀영의 그 기나긴 밤들.

아마도 우리 수령님께는 그 하많은 밤들이 겹쌓인 일을 위해 꼭 필요한 시간으로만 생각되시였으리라.

전사들이 단 한순간이라도 휴식하실것을 말씀드릴 때면 수령님께서는 조국을 해방한 다음 꼭 쉬자고 약속도 하시였다.

그러나 해방된 조국땅에서 수령님께서 밤을 동무삼아 가신곳은 공장과 농촌, 학교들이였다.

이 땅이 불타던 준엄한 그날에는 화광이 어지럽게 엇갈리고 적기들이 이리떼마냥 땀도는 밤 승용차로 철교를 건느시여 최전선을 찾으신 우리 수령님이신데 그 무수한 밤들에 순간의 휴식도 없이 바치신 그이의 불면불휴의 정력을 내 어찌 다 알수 있으랴 !

어느해 찬이슬 내리던 가을날 새벽에 있는 이야기는 아직도 나의 가슴에 뜨거운 걱정을 불러일으킨다.

머나먼 현지지도의 길에서 한밤을 다 새우시고 돌아오시던 수령님께서는 어느 한 작은 농촌마을앞에서 차를 멈추도록 하시였다.

차를 타고 들어가면 농민들의 잠에 방해가 된다고 하시며 손전지를 켜드시고 마을길을 걸으신 수령님께서는 집주인들을 서둘러 깨우려하는 부관에게 농민들의 단잠을 깨우지 말라고 우리가 좀 기다리자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아, 그날의 밤과 이어진 그 새벽 !

그것은 우리 수령님께서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지새우신 헤아릴수 없는 시간중의 한순간이다.

할진대 세기적인 락후와 가장 비참했던 망국노의 처지로부터 가장 큰 존엄과 행복의 상상봉에 오른 우리 조국, 우리 인민의 력사의 그 길에서 얼마나 많은 밤들이 이렇게 흘러갔으며 과연 그 언제 우리 수령님께서 편히 쉬신적이 있었던가.

그 은정 그 보살핌 속에 마련되는 행복을 누리며 고마움에 목메이고 뜨거움에 눈곱이 젖어든 우리 인민들의 간절한 소원이 노래와 시로 절절히 울리고 탑으로 솟아 이 땅 곳곳에 빛을 내건만 수령님 계신 창가와 그이께서 타신 승용차의 불빛은 꺼질줄 모르고 온 누리를 비쳐주고있다.

참으로 조국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수령님께서 바쳐오시는 한평생은 가장 높은 헌신성과 정력적인 지도가 낮과 밤 따로없이 이어진 위대한 사랑의 자옥이다.

그 사랑은 오늘도 이밤에도 마련되고있으니 아무리 철없는 아이의 물음이라고 해도 내 어찌 순간에 대답할수 있으랴.

물음은 대답을 전제로 하는것이여서 이 세상의 그 어떤 물음에도 대답은 있기마련이지만 우리애의 이 물음앞에는 대답에 앞서 뜨거운 걱정만이 가슴속에 파도처럼 밀려들뿐이었다.

지붕에 대한 생각

류인옥

하루일을 마친 즐거운 저녁이다.

옷방에서 학생들의 시험지를 매겨가고있는데 네살잡이 조카 현이가 뽀르르 달려왔다.

《이모, 룡라도경기장 나와. 빨리!》

《 룡라도》라는 힘든 발음을 또렷하게 외워내는 현이의 앵두볼을 다독여준 나는 그 애에게 끌려 텔레비존앞에 마주앉았다.

《저것봐, 기중기운전공누나, 용접공형님...》

저녁보도시간마다 화면에서 익혀온 건설장의 소식에 친숙해진 현이가 연방 종알대는데 힘찬 대건설행진곡을 타고 용접의 불꽃을 날리며 한창 지붕공사를 마감짓고있는 경기장전경이 펼쳐진다.

세계적으로 그 크기에 있어서나 형식에 있어서 최상급인 룡라도경기장.

락하산모양의 관식곡면강철구조물들에 무지개 모양으로 편결된 채양식 지붕이 자기의 모습을 드러낸다.

《이모, 저 지붕 왜 저렇게 생겼나?》

무릎우에 앉은 현이가 별빛눈을 깜박이며 나를 뽀뽀 올려다본다.

직업이 직업이니만치 철부지들의 엉뚱한 물음 앞에 난감해질 때가 드문하지만 오늘도 가슴이 찢르르 해움을 어쩔수 없다.

아마도 저 지붕에 깃든 깊은 뜻을 헤아리기엔 나의 가슴이 너무도 작을때문이라.

룡라도경기장의 락하산모양의 지붕-그것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우리 인민들의 행복을 위하여 베풀어주시는 사랑속에 태어난 창조물이다.

대동강 한복판에 일떠설 룡라도경기장건설도안을 보아주시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제일먼저 채양문제에 대하여 알아보시였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모양으로 만들도록 친아버이 손길로 가르쳐주시였다.

한여름의 피약별도, 퍼붓는 폭우도 다 막아주는 채양식 지붕!

어느덧 푸른 물결우에 방실 피어나는 한떨기 꽃송이같은 저 지붕아래-관람석에서 휴식의 한때를 즐기는 사람들의 웃음넘친 얼굴을 보는듯하다.

유명한 국제경기들을 구경하는 그들이 저 지붕에 스민 가슴뜨거운 사연을 어찌 다 알수 있으랴.

문득 나의 눈앞으로 다 해진 옷을 걸친 오누이의 모습이 다가간다.

...해종일 공사판에서 고역에 몸을 팔았건만 병든 동생의 조막만한 배를 채워줄 저녁끼니도 벌지 못한 오빠.

어디 가면 찬 밥이라도 한술 빌어 이 밤을 넘길까 생각도 아득한데 무정한 하늘에선 소나기까지 내린다.

《오빠, 나 추워. 배고파.》

오돌오돌 떠는 동생을 껴안고 오빠가 자리를 잡은곳은 어느 부자집추녀밑.

주룩주룩... 락수물이 흐른다. 주린 배를 움켜쥐고 새우처럼 꼬부린 가냘픈 어깨우에 선평선평 차거운 비발이 뿌려진다.

하지만 다행이다. 이 밤을 새울 《집》이 생긴것은...

서러운 《기쁨》은 오래 갈수 없다.

더러운 거지새끼들이 왔다고 양푼끓는 소리를 내는 너편네의 뒤를 쫓아온 똥보주인놈은 아이들을 쫓다 못해 사나운 개를 풀어놓았다.

하느수없이 지친 몸에 어린 동생을 이끌고 쓰러질듯 폭우속을 걸어가는 소년, 광대뼈만 앙상한 두볼을 타고 흘러내리는것은 눈물인가, 비물인가.

어린 몸을 거두어줄 추녀밑조차 내주지 않는 세상을 저주하여 하늘도 비분에 떠는가.

짜르릉-짱- 우뢰가 운다. 번쩍- 번개가 인다. ...

번개불에 드러난 소년의 얼굴, 그것이 험난한 세월에 누이동생을 다리밑에서 잃고 혼자 살아남은 나의 할아버지의 모습이였다.

아니, 이것이 어찌 나의 할아버지만이 겪은 운명이라.

나라 없던 그 시절 인간세상밖에서 추위에 떨고 굶주림에 시달려온 우리 인민들이 품어주고 안아줄 따뜻한 보금자리를 얼마나 애타게 바라왔던가.

방송원의 목소리가 나의 생각을 깨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한없이 은혜로운 인민에 대한 사랑을 뜨거운 심장으로 받아안은 이곳 건설자들은 완공의 그날을 향해 질풍같이 달려가고있습니다.》

어찌 룡라도경기장만이라.

내 조국 그 어디를 둘러보아도 좋다.

20 세기의 건축미를 세상에 자랑하는 수도의 거리들과 검은금 쏟아지는 탄부도시에도 만선의 기쁨 넘치는 바다가마울과 내가 사는 과일땅... 이 강산

그 어디나 인민이 사는곳이면 창공을 헤가르는 새의 깃마냥 건뚝 나래돋친 은빛지붕을 띄우고 현대적인 집들이 일떠선다. 살림집, 학교, 병원,극장...

력사가들의 말을 빌어보면 인류력사가 흘러 수수만년, 태고와 원시사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인간의 생활로정은 자연의 구속에서 벗어나 따뜻한 보금자리를 얻기 위한 발전력사라고 한다.

토굴집, 초막집, 귀틀집, 현대식 살림집...

참으로 건축력사에서 집이란 말과 더불어 지붕이라는 단어는 불가분리적으로 쓰이고있다.

하지만 어버이수령님께서 펼쳐주시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이끄시는 로동당시대에서처럼 지붕이란 말이 폭넓은 뜻을 담고 울려본적 있었던가.

설계도의 점 하나, 선 하나를 그으실 때도 공장의 굴뚝 하나를 세우실 때에도 언제나 인민의 행복,

만민의 기쁨만을 먼저 생각하시는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크나큰 사랑 !

은혜로운 그 품속에 우리모두 값높은 삶을 누려가니 락원의 지붕아래 살아가는 내 나라는 모두가 친형제 ! 크나큰 한가정 !

나는 창가로 다가섰다.

까르르-터져오르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은은한 기타의 선율, 명멸하는 텔레비존의 불빛...

아, 좋은 밤이다!

안고사는 행복이 밀물처럼 안겨들어 가슴조차 벅차다.

인간사랑의 절정을 펼쳐준 고마운 내 조국을 받들어 이 한몸 바치여갈 충성의 마음도 새로워진다.

나는 병사출신의 광부

서진명

조명등불빛
별무리처럼 흐르는
막장길을 걸다가도
문득 자각한다
나는 병사출신의 광부임을

쇠돌맥을 허무는
발과소리 들으며
잠시 땀을 들일 때에도
깊어지는 생각

조국을 위해 방선을 지켜섰던 몸
언제든 서슴없이 바칠 각오 되어있던
그 병사시절처럼
쇠돌로 당을 받드는
내 량심 그렇듯 맑고
내 심장 그렇듯 세차게 끓고있는가

군모대신 광부의 안전모를 썼어도
한시도 늦잡을수 없는
그날의 그 기백
갈수록 더욱더 넘쳐나거니

내 잠시라도 마음을

병사시절에 두고 살지 않는다면
수호자의 영예 한껏 빛내라고
땅의 억만보화를 통채로 맡긴
당의 그 믿음에 어찌 몇몇이 보답할수 있으랴

착암기로 우뢰를 부르며
내 쇠돌을 위해
서슴없이 이 가슴 내대리라
땅우에 길을 내듯
기세좋게 열거갈 막장길에
일당백의 투지 나래치게 하리라

나날이 솟아날 쇠돌산
보화의 메부리 빛내며
나라의 생명선 지켜가는
그 공지 그 보람

아, 변함이 있으랴
조국앞에 엄숙히 다진
병사시절의 군인선서
불같은 그 구절을 가슴에 되새기며
천길땅속에서 돌파구 열거끼며
복무의 나날을 이어나가는
아, 나는 병사출신의 광부!

영원히 지워지지 않으리

최치영

잔술 푸른 바다가기슭
하얀 조개껍질 정답던 간석지
배고동소리, 굴착기소리, 발파소리
언제나 번거롭던 부두가 굽이굽이

못잊을 추억실고 다가오누나
해풍에 감실감실 탄 얼굴로
파도를 맞받아 옷자락 날리며
광차와 함께 달리던 제방길이

밀려오는 파도에
옷 젖는줄 모르고
발목이 빠지는 감탕밭에
내 찍어가던 발자국, 발자국

아, 지워지지 않으리
내 돌격대에 처음 오던 날
해당화 아름다운 송이를 안고
걸음 못떼던 그 기슭에도
맹세의 자욱은 소중히 남아있으리

지금쯤은 그 뉘의 발자욱
덧찍혀지리

파도를 헤치며 바다를 막은
내 발자욱은 사라졌어도
황금의 난알을 가꾸는
농민의 기쁨 넘친 자욱이,

허나 영원히 지워지지 않으리라
조국의 새 땅, 새 기슭을 넓혀
청춘의 꿈 꽃피운 그 자욱만은
우리 당의 높은 뜻 받들어
나의 성실한 땀도
나의 높뛰던 심장의 박동도
한줌의 흙속에도 스며여있는 새 땅으로 하여

그 기슭, 그 땅으로 해
나의 삶이 보람찼던 간석지건설의 나날
내 조국앞에 바친 성실한 량심으로 해
추억도 아름다운 그 나날로 하여

아, 영원히 지워지지 않으리
조국의 새 땅을 넓힌 청춘의 자랑
가슴가득 채워준 그 바다가
오늘은 풍요한 벼바다로
조국의 영원한 재부로

아름다운 꽃

리금석

타는듯
봄바람 불어오는 옛 전호가에
피여웃는 철쭉꽃

속삭이듯
영웅의 선혈을 안고 핀 꽃
붉게 핀 꽃

꽃나이 열아홉살
애젊은 청춘을 바쳐
조국의 미래를 수호한 위훈의 자욱우에
떨기지어 피여난 조국의 아름다움

피끓는 영웅의 심장이 덮어

불속에서 안아올린 땅
어찌 꽃이 아름답지 않으랴
어찌 향기가 그윽하지 않으랴

바친 삶이 고귀하면
세월도 그 이름 기억하고
바친 위훈 아름다우면
산천도 그 위훈 꽃으로 전하는가

아, 병사의 삶은
죽음을 모른다네
그대 한 목숨으로
조국의 영원한 아름다움을 지켜냈기에

행진복

리경숙

백현진 동무에게

그간 몸 건강히 잘 있는지요?

동무에게 여러번 편지를 써보냈지만 별들이 반짝이는 평양의 하늘아래서 이런 마음으로 편지를 쓰는것은 처음일것이에요.

이런 좋은 밤 펜을 드니 우리가 조선대학교 졸업반 조국방문단으로 조국을 방문했던 그 보람차고 즐거웠던 나날이 가슴속에 뜨겁게 되살아나요.

...그날도 이밤처럼 하늘에는 보석이 뿌려진듯 했지요.

저는 그때 우리 서로 교육전선에서 모든 힘을 바치자던 동무의 눈이 하늘의 별보다 더 빛나고있었다는것을 기억해요. 그러나 오늘 저는 그밤 저도 함께 다진 그 결심이 오늘처럼 굳세지는 못했었다는것을 고백해야겠어요.

동무가 우리 학교를 떠나 그곳 학교에서 사업을 시작한지도 벌써 반년이 더 지났군요.

그간 있는 일이나 고민은 편지에 죄다 써보냈지만 이밤은 새로운 생각으로 가슴이 가득해요.

제가 올해에 맡게 된 학급에는 현진동무가 담당했던 학생들도 들어있었어요. 걱정거리라던 학생도 3명이나 있었고... 처음 학급학생들과 함께 지내면서부터 정명수랑 신태영은 지각도 많고 무엇을 하다가도 말썽을 부리기에 동무가 걱정이라던 뜻을 잘 알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학생들은 정말 사랑스럽더군요.

꾸지람을 들으면 얼굴을 찡그리고 달아나지만 평가를 받으면 부끄러운듯이 웃음을 참으며 얼굴을 붉히곤했지요. 그런데 최두식이란 학생만은 통 알수가 없었어요. 그는 거의 말이 없고 동무들과도 가까이 지내지 않았어요. 같은 학교출신의 반장외에 다른 동무들과 이야기하는 모습을 거의 본적이 없어요. 휴식시간이면 책상에 엎드려있었고 불려다 앉혀놓고 이야기를 해도 머리 하나 끄덕이지 않았어요. 질문에는 《모릅니다.》 하는 대답뿐이었고.

저는 이렇게 두식이의 말없는 《공격》을 받게 되어서야 언젠가 성을 내던 현진동무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날밤 동무는 약속한곳에 1시간이 더 넘어서야 나타났지요.

커피점에 들어서자 제가 권하는 커피잔을 물리치고 찬물만 마셨지요. 맵짠 바람이 부는 날인데도 동무의 얼굴에는 땀방울이 흘렀어요. 어디서부터 달려왔던지 한참이나 가쁘게 숨을 쉬었고.

언제나 침착한 빛을 띠고있던 그 눈동자도, 좁쌀은 눈썹이며 우뚝한 코, 두툼하고 큰 입, 항상 웃음을 짓고있던 그 얼굴이 그날은 저어기 무서워보이더군요.

《늦어서 안됐소. 그런데 참 요즘 학생들이 무엇을 생각하고있는지 도무지 알수 없어. 에이...》

이렇게 밀도 끝도 없이 뇌였지요. 동무는 어느 학생이 3일째 결석을 하는데 감기가 심해서 못나온다고 하던것, 그 집을 찾아갔는데 집안에 들어가보니 이불속에 누웠던 흔적은 전혀 없고 그 학생은 화미콘(화미리 컴퓨터)앞에 서있었다는것, 집에는 그 혼자 있었다는것, 교원이 들어왔어도 그저 서있기만 하고 인사도 못하더라는것 등을 격분한 어조로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아무리 차근차근 타일러도 학생은 좀처럼 속마음을 터놓으려 하지 않았다고 하시며 교육자로서의 자기의 능력이 부족한 모양이라고 통탄하던 끝에 이렇게 말했지요.

《학생들은 우리와 10살밖에 차이가 없지만 무엇인가 다른것 같소. 우리때와는 엄연히 다르단말이요.》

그때 동무가 이야기하던 학생이 바로 최두식이라는 학생이었지요.

저는 학급을 담임하자 먼저 두식이네 집에 가정방문을 갔어요.

고급주택들이 늘어난 거리에서 두식이의 집은 찾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방 세칸은 예순고개를 넘으신 할머니이 곱게 꾸리셨고 두식의 방에 들어서자 첫 눈에 띄운것은 동무가 말한 바로 그 화미콘이었어요. 두식은 없었어요.

저는 두식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선생님... 우리 두식이가 학교에서 어떻습니까? 애 아버지는 상사일로 거의 집을 비웁니다. 에미없이 자라는 애가 측은하고 가엾다고 버릇을 못혀왔어요. 에미가 죽은후로 두식인 말수도 적어지고... 혼자서 물레 울기도 한다우.

애 아버진 그런 자식을 보기가 가슴이 아프다고 하더니 생일날에 헤미콘이던가 화미콘이던가 저 기

계를 사다주었습니다. 그후로 두식인 밤낮 저 기계에 붙어있지요...》

그러더니 제손을 꼭 잡으며 한숨을 쉬셨어요.

《선생님, 못난 손자지만 부탁드립니다. 조선말을 하고 민족도 아는 당당한 조선사람으로 키워주십시오. 선생님 말을 안들으면 때려도 좋습니다. 정말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하고 간곡한 목소리로 당부하시더군요.

저는 죄지는 사람처럼 가만히 앉아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두어깨에 무거운 짐이 실리는 듯한 느낌을 안으며

...

저는 돌아오는 전차간에 서서 창문을 멍하니 쳐다보았지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귀속에 쟁쟁히 울리는 듯했고 화미콘을 마주한 두식이의 모습이 눈앞에 자꾸만 얼른거렸어요.

일본사회에서는 몇년전부터 아이들속에서 류행병처럼 나타나고있는 무기력, 무감동, 무책임, 무관심이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있다는것을 동무도 잘 알고있을거예요. 요즘은 《신인류》라는 말까지 나왔지요. 저의 머리속에는 어느 교육도서에 실린 다음과 같은 내용이 떠올랐어요.

어릴때부터 자기 방을 가진 아이들은 가족이 모여앉아 화목하게 이야기하는 시간보다도 방에 놓인 화미콘으로 때를 지내기 좋아한다는것, 따라서 개인의 범위에서만 생각하고 행동하며 집단을 아랑곳하지 않는 현상이 나온다는것이고 또 학생들이 이상하게 명랑한척하는것도 진짜 동무를 얻지 못하는 고독감을 감싸려는 역행위라는것이였어요.

(우리 학생들속에도 이러한 문제가 나타나고있는것이 아닐까? 두식이 경우만을 놓고보아도...일본사회의 풍조에 유린되어 조국과 민족은 그렇게 큰 자리를 차지하지 않는것이 아닐까?)

이러한 생각이 들며 저는 불안과 위구에 휩싸이지 않을수 없었어요.

집에 돌아온 저는 책상서랍에서 우리가 고급부시절 서로 주고받던 공책을 꺼내여 읽어보았어요.

197X년 X월X일

성희동무가 지성껏 만들어준 책가위를 고맙게 받았다.

생일을 축하해주는 동무는 많지만 이렇게 정성들인 선물을 받은것은 처음이다. 소중히 쓰겠다.

생일을 맞으면 즐겁기마련이다. 그러나 이해의 생일은 각별히 기쁘고 또 생각이 깊어진다. 그것은 내가 오늘 18살이 되었기때문이다.

18살... 1211 고지에서 적의 화구를 가슴으로 막고 희생된 리수복영웅도 그때 18살이었다. 내가 오늘 그와 같은 나이가 된것이다.

리수복영웅과 똑같은 조국의 아들로 태어난 내가 그와 같은 빛나는 삶을, 아름다운 청춘을 보낼수 있을까.

나는 이역에서 그런 삶을 찾자고 생각한다.

197X년 X월 X일

오늘 저는 《전사들》이란 책의 마지막 장을 넘겼어요. 얼마나 감동했는지 책에는 페이지마다 저의 눈물이 얼룩졌을것이에요.

...사랑은 사랑하는것을 위하여 초인간적인 힘을 날게 하며 지어 죽음도 타승하게 하는것이다.

조국에 대한 사랑, 향토에 대한 사랑, 인간친지에 대한 사랑, 아름다운 모든것에 대한 사랑- 이 모든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전사들이 불을 뿜는 적의 화구를 눈뜨고 바라볼수 있으며 등줄기로 식은땀이 흐르는 새벽의 밤을 어떻게 몸부림을 치지 않고 견디어낼수 있으며 매 걸음마다 적이 뒤를 채이는 척후 천리길을 빠져나올수 있었겠는가? ...

저는 이 구절을 외우다싶이 몇번이고 읽었어요.

저도 전사들처럼 아름답게 참되게 살고싶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한편으로는 조국에서 나서 자란 청년들이 무척 부러웠어요...

저는 이 공책을 읽어보면서 두식이와 같은 학생들의 생활에는 확실히 무엇인가 류다른 문제가 생기고있다는것을 깨달았어요. 이러한 생각은 그후 두식이와의 《전투》에서 무참한 패배를 당할 때마다 더욱더 굳어졌고 연약한 한 녀교원의 힘으로는 그것을 바로잡는다는것이 불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실망감까지 들었어요..

두식이로 하여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겨들 때가 많았어요.

(두식이가 과연 무관심과 무감동의 풍조에 휩쓸렸을까? 우라 학생이 일본학생들과 같을수야 없지 않는가? 그럴수는 없어...

그러면 두식이는 왜 저렇까? 무엇이 그를 그러한 무기력하게 만드는것일까?)

저의 머리속에는 이러저러한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군했어요.

어느날 저는 두식이의 집을 다시 찾았어요.

다시 찾아온 저를 할머니는 무척 놀라와하시면서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선생님, 우리 두식이가 애를 먹이는구만요.》

《아닙니다. 그런건 아닌데 좀 걱정되는점이 있어서... 왜 그런지 두식이가 무슨 일에도 열성을 안

가집니다. 기력도 없습니다. 기백이 있고 호기심이 많아 할 나이인데...

어머니가 돌아가신후 두식이가 어떻게 자랐는지 구체적으로 알고싶습니다.》

《예...》

할머니는 안색이 흐려지시며 무엇인가 말할듯 말듯하다가 그만두시더군요.

저는 그때 할머니가 그 어떤 사연을 가슴속에 깊이 품고계신다는것을 짐작할수 있었어요.

저는 간청했어요.

《할머님, 말씀해주십시오. 저는 두식의 담임교원입니다. 담임교원은 학생에 대해서 부모 다음으로 제일 책임이 있지요. 저는 두식학생에 대해서 모든것을 알고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육자로서 자기 임무를 훌륭히 수행할수 있습니다.

숨김없이 말씀해주십시오.》

제가 몇번이고 거듭 애원해서야 마침내 할머니는 모든것을 터놓았어요.

《부모 다음으로 책임지신다는 선생님의 말씀이 하도 고마와... 내 말씀은 드리겠소만 비밀을 지켜주시우. 이건 두식이도 모르는 사실입니다. 애 어머니가 병으로 돌아갔다는건... 실은...》

할머니는 몇번이고 더듬거리며 말을 이었어요.

《애 에미는... 22살때 살길을 찾아 일본으로 건너왔습니다. <밀항>을 해왔지요. 조그마한 음식점에 고용되어 갖은 고생을 다 했습니다.

두식이 애비와 알게 된것도 그때이지요. 그런데 결혼을 한지도 9년이 지났을 때 그만 <밀항>이 드러나 두식이 에미는 강제송환되었어요.

그때 두식은 8살이었지요. 엄마를 찾으며 우는 어린 두식의 가련한 정상은 참말 기가 찬 일이었다우. 어찌나 애간장이 마르던지...

에미는 고향땅에 돌아가서도 계속 편지를 쓰더구만요.

계속... 두식이의 자라는 모습을 보고싶다고 사진들을 보내달라면서...》

할머니는 자주 말씀을 끊으시고는 눈물을 훔치곤하셨어요.

《그런데 다음해부터 편지가 끊어졌어요.

오래동안 소식이 없더니 문득 두식이 외삼촌에게서 편지가 오지 않았겠수. 두식이 에미가 병으로 앓다가 죽었다는 사연이었어요.

청천벽력이었지요. 언제 한번 앓지 않던 머느리가 앓아죽다니?! 아직 한창나이에...

무슨 병으로 어떻게 앓아죽었는가고 두식이 애비가 편지로 물었건만 외삼촌에게서는 더 편지가 안왔어요.

두식이 애비는 처가에 가보겠다고 몇번이나 별렀지요. 그렇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 종내 가지는 못하고말았는데 마침 처가가 있는 마을에서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두식이 에미가 어떻게 되었는지 사실을 알게 되었다우...

글쎄, 그런 변이 어데 있겠수. 두식이 에미가 광주인민봉기때 피퇴군놈들한테 잘못되었다지 않겠수. 싸우는 학생들에게 음식을 날라주었는데...공정대놈들의 대검에 찔려... 끔찍도 하지... 친정이 광주교외 농촌마을이라우...

두식이는 여적 제 어머니가 병으로 앓아죽었다고만 알고있지요.

어린것에게 그 끔찍한 사실을 알려줄수는 없었지요.

두식이가 자라서 학교에 다니게 된 다음에도 애 아버지는 일체 그런 말을 비치지 못하게 엄금했다우.

<그런 일을 알아서 아이에게 좋을게 하나도 없습니다. >

두식이 애비도 그런 일이 있은후로는 일체 함구하고 정치문제에는 외면이지요. 장사판계도 있고해서...》

할머니는 눈굽을 닦으시였어요.

저는 너무도 큰 충격으로 하여 한동안 아무 말도 할수 없었어요.

얼마나 큰 슬픔을 안은 가정이겠어요. 민족의 비극을 아무런 죄없는 이 학생도 들쓰고있는것이 아니겠어요.

할머니는 주름많은 손으로 내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을 맺으셨어요.

《우리 두식이가...섭섭히 자라 그리 되었다는것을 알아주시우. 두식이를 부탁합니다.》

저의 가슴속에는 말할수 없는 분노의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사실을 모르는 두식이가 불쌍하다는 생각에 가슴은 찢기는것 같더군요.

두식이 집을 나온 저는 역까지의 먼길을 생각에 잠겨 천천히 걸어갔어요.

아마 저는 그때 울고있었을것이에요.

동무가 곁에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얼마나 간절하던지 ...

동무가 곁에 있었다면 저는 이렇게 물었을것이에요.

《현진동무...

두식이에게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숨기는것이 과연 옳을가요?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두식이에게 모든것을 알려줘야 해요. 그런데 그 집에서 엄격히 비밀을 지키는 문제를 알려줬다가 완고한 두식이 아버지의 노여움을 산다면 어떻게

할가요? 성을 내며 두식을 우리 학교에서 때갈수도 있지 않을까요?》

제가 결심을 못하고있는 사이에 시간은 흘렀어요.

어느덧 록음이 짙어가는 늦봄이 되었어요.

조국의 남녘으로부터는 투쟁의 함성이 울려오더군요. 남녘의 봄은 언제나와 같이 투쟁의 봄이었어요.

통일을 부르는 청년들은 피의 항쟁을 벌리었고 북남학생회담을 제의했어요. 그 기세는 4 월의 그 때를 방불케 했지요. 매일과 같이 신문들에는 학생들의 투쟁과 그를 탄압하는 로태우일당을 고발하는 기사가 실렸어요.

노도처럼 달려가기도 하고 담벽처럼 어깨를 걸기도 하고 앉아버티기도 하며 지어는 누워서 구호를 웨치기도 하는 남녘의 청년학생들...

어머니조국의 절반땅은 놈들이 마구 쏘는 최루탄에 피흘리며 쓰러지는 자식을 안아일으키지 못해 몸부림치고있었어요.

저는 수업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학생들에게 이야기했지요. 남녘땅에서 벌어지고있는 투쟁에 대하여 그리고 온 민족이 주시하는 북남학생회담에 대하여 ...

우리 학생들의 눈동자속에 싸우는 남녘의 청년학생들과 같은 눈빛이 빛나게 하자. 이것이 저의 소원이었어요.

저의 소원대로 학생들의 눈은 빛났고 불탔어요. 그런데 섭섭한것은 역시 두식이의 태도였지요.

제가 애써 이야기할 때에도 두식은 아무런 감동도 나타내지 않았고 우울한 표정으로 앉아있거나 창밖멀리로 시선을 보내곤했지요.

전 막 안타까웠어요.

(두식이, 너는 조국의 아픔에 무관심해서는 안돼. 너는 무관심할수 없는 애야...)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부르짖었지만 터놓고 말은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날 조청중앙에서 추도식이 있다고 알려왔어요. 고 조성만렬사에 대한 추도식이었어요.

우리 학급에서도 두명의 학생이 대표로 참가하게 되었어요.

저는 반장과 함께 어느 학생을 보낼가하고 망설였어요. 보내고싶은 학생은 많았으니까요. 그러다가 문득 두식이가 생각났지요. 그래, 두식이를 보내자.

반장도 내 의향을 알고 꼭 데려가겠다고 말하더군요.

그날저녁 제가 추도식장에 들어섰을 때는 벌써 학생청년들이 차고넘쳐어요.

남녘땅에 통일의 열풍을 안아오려고 원썩들을 저주하며 할복자결을 한 한 려사의 울분과 애국의 녀를 추모하여 사람들은 숙연히 서있었어요.

저는 추도식장에 들어서자 곧 반장과 두식을 찾았지요. 그런데 멀지 않은곳에 반장은 있었으나 두식은 웬일인지 보이지 않더군요....

추도식은 엄숙한 분위기속에서 시작되었어요.

한 녀학생이 연단에 올라 추도시를 읊었어요.

...

떠오르는 해빛도 남녘의 하늘에서

빛발을 거두라

두터운 먹장구름을 부스러뜨려

렬사를 발인하는 앞길에

슬픔의 비발을 뿌리라

검푸른 남해여, 거세찬 물결을 일으켜

이 세상 끝까지 노도쳐가라

대륙과 대륙의 기슭을 치며

우리의 성만이가 웨치고 간 피의 절규를

만천하에 알리라

빼앗긴 조국을 부르며

이역만리에서 할복했던 그 민족이

오늘은 제 나라 제 땅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부르며

배를 갈라야 하는 이 비극을!

녀학생의 절절한 목소리는 우리들의 가슴속에서 비분의 눈물이 흐르게 했어요.

반장이 두손을 꼭 부르짖며 흥분을 누르지 못해 하는것이 보이더군요.

녀학생은 두볼로 흐르는 눈물을 닦을념도 않고 계속 읊었어요.

아, 이가 갈리고 치가 떨린다

...

렬사여 그대의 심장

고동을 멈춘것이 아니다

믿어다오 알아다오

그대 한목숨 바쳐

온 남녘이 칼을 들게 하였음을

투쟁을 깨우치고 간 그대

복수를 부르고 간 그대

남녘은 서슬푸른 장검을 높이 들고

그대 생전의 녀원대로

미제와 로태우 살인마들의

사지를 자르리라

배를 찢어 오장을 탕쳐버리리라

파쑈의 철창과 교수대를
찍어던지리라
그대의 피 헛되지 않게
...

추도식이 끝난 다음 저는 반장과 함께 모임장소에서 나왔어요.

빠스정류소로 향하는 길에는 오가는 사람들도 별로 없고 조용한 밤이었어요.

저는 반장에게 물었지요.

《철수, 두식이는 왜 안왔어요?》

《함께 가자고 아무리 끌어도... 내 손을 뿌리치고 달아났습니다.》

《달아났어요?》

《정말, 두식이가 그런줄은 몰랐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배반자와 같은 행동입니다.》

《배반자? 아니에요. 두식이는 우리를 배반할수 없는 애예요.》

《?!》

철수는 어리둥절하여 저를 바라보더군요.

저는 되풀이했어요.

《그런 애는 배반하지 않아요.》

《예?!》

《철수...》

저는 흥분을 누르며 또박또박 말했어요.

《선생님이 하나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어요... 이것은 철수를 믿어서 하는 말이니 철수의 가슴속에만 새겨두세요. 두식이의 어머니는...》

저는 두식이 할머니와 한 약속도 잊고 두식이어머니의 죽음에 대해 반장에게 죄다 들려줬어요. 아마도 추도식에서 받아안은 슬픔, 그 비분의 감정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반장은 깜짝 놀라며 걸음을 멈추더군요.

《그게 정말입니까?!》

《선생님이 언제 거짓말을 한적이 있던가요?》

《...》

철수는 대답을 못하더군요. 철수의 눈은 숏볼처럼 이글거리는것 같았어요.

그는 입술만 움썹거렸는데 무엇이라고 말하고 싶으나 너무 흥분되어 합당한 말마디를 찾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이때 빠스가 달려와 멧었지요.

철수가 타야 할 빠스였어요.

그러나 철수는 빠스가 온것도 감촉하지 못하는 듯했어요.

《어서 타세요.》

제가 권해서야 철수는 빠스에 오르려고 하다가 다시 돌아서더니 《선생님, 고맙습니다.》 하고는 꾸벅 인사를 하고 빠스를 탔어요.

그것은 격동된 모습이었어요.

그를 떠나보낸후 저의 가슴속에는 철수가 왜 새삼스레 고맙다고 인사를 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더군요.

자기를 믿고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해준데 대한 감사일까?

아니면 두식 어머니의 깊이 감춰진 사연을 알아낸 담임선생의 숨은 노력에 대한 감사일까?

초여름의 훈훈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을 때 저는 교육일군강습으로 조국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떠나던 날 오후 저는 학교에 나갔어요.

선생님들에게 인사도 할겸 1 학기를 맺기전에 떠나는만큼 반장에게 당부할 내용도 있었기때문이에요.

하지만 차시간이 거의 다 될 때까지도 웬일인지 반장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저는 더 기다릴수 없어 쪽지를 써놓고 떠나고말았어요.

제가 역홈에 들어섰을 때는 벌써 전차가 와있었어요. 저는 급히 짐을 들고 전차에 올랐지요.

그런데 발차하기 2 분쯤전에 교복을 입은 4~5명의 학생들이 숨가빠 달려오는것이 보였어요.

《?!》

반장을 비롯한 저의 학급학생들이였지요.

저는 차창밖으로 상반신을 내밀며 다급히 소리쳤어요.

《철수-》

《아! 선생님!》

온통 땀투성이가 된 그들은 저를 보자 기빠어쩔줄 몰라하며 달려오더군요.

《못만날가봐... 정말 애가 났습니다!》

《수고했어요.》

《선생님, 이건 우리 마음입니다.》

학생들은 땀이며 과일이 든 봉투를 차창안으로 들여밀더군요.

《고마와요.》

《조심히 다녀오십시오.》

《알았어요. 동무들도 시험공부를 잘하고 제기된 일도 꼭꼭 해야 돼요.》

《걱정마십시오.》 하고 익살군 어느 학생이 대답하자 웃음보가 터졌어요.

《그런데 철수는 아까 어데 갔댔어요?》

《예, 조청지도원선생님이 두식이를 데려오라고 하시기에... 두식이를 찾아갔었습니다.》 .

《두식이를?! 어째서 찾았을가요?》

저는 눈을 크게 뜨고 물었어요.

이때 발차신호가 울리고 차가 움직였지요.

《두식이를 왜 찾았을가요?》

저는 다시 물었고 철수가 무엇이라고 대답하러 했지만 이미 학생들과 저와의 거리는 멀어졌어요.

학생들의 손을 흔드는 모습만 보일뿐 무엇이라고 웨치는 목소리는 소음처럼 울리어 내용은 가려 들을수가 없었어요.

저는 뒤송송해지는 마음을 다잡을수 없었어요.

스쳐지나가는 집들과 논밭들을 보면서 저는 두식에 대한 걱정스런 생각이 머리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두식이를 어째서 찾았을까? ! 반 역원도 아니요, 모범생도 아닌 두식이를... 무슨 일을 저질렀을까?)

이 불안스런 생각은 조국에 도착한 다음에도 한시도 사라지지 않았어요.

식탁에 마주앉았을 때에도, 거리를 거닐다가도, 잠자리에 들었다가도 두식이의 얼굴이 문득 떠오르곤 했지요.

그런데 조국땅에서 2 주일이 지난 어느날이었어요.

뜻하지 않게 일본에서 온 편지 한통이 저에게 날아들었지요.

반장에게서 온 편지였어요.

선생님,

그간 몸 건강히 잘 계십니까?

어머니조국의 품에 안긴 선생님이 부럽기 그지 없습니다.

선생님께서 돌아오실 날이 멀지 않았는데 이렇게 편지를 드리는것은 선생님께서 떠나시던 날 역에서 제가 두식이의 이야기를 채 못했기에 몹시 궁금해하시고 걱정하시리라 생각되어서입니다.

선생님 !

저는 선생님과 약속을 어겼습니다.

추도식날 밤 저는 배스를 타고 집으로 가다가 두식이에게 들렸습니다.

《뭐야, 이런 시간에 무슨 일이 있어 ?》

《추도식이야기를 하자고 왔다.》

《추도식 ? ! 》

그제서야 두식은 그날의 모임이 생각났듯했습니다.

나는 추도식이 어떤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으며 얼마나 감동적이었는가를 이야기했습니다.

《넌 왜 빠졌니? 참가하라면 참가해야지...》

《... 》

《너는 분신을 하고 할복자결을 하는 남녘학생들에 대해서, 그들의 마음에 대해 생각해본적이 있니? 그들이 학생 회담을 제기한것을 알아?》

《... 》

《난 너의 할머니가 해주시던 이야기를 잊을수 없더구나. 나라가 없어 16살나이에 일본에 건너온 할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가. 8.15를 맞을 때마다 이야기를 하시지 않았니 ...》

그 8.15에 올해는 북남대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앉아 구국방책을 토의하자는거야...》

《... 》

《그래 너에겐 우리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 관계없단말인가?》

《관계? 관계야 있지. 우리 부모들의 고향은 남조선이니까. 그렇지만 내가 어떻게 하겠니? 여긴 남조선이 아니라 일본인데...》

저는 더는 참을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남조선에서 지금 너의 어머니가 쓰러져 피를 흘리고있다 하자. 그래도 넌 남조선이 아니라 바다 건너 일본에 있다고 별수 없지 하고 앉아있겠니?》

《그런 가상적인 이야긴 하지 말어.》

《가상? 가상이 아니라 현실이다 ! 》

《? ! 》

《넌 그런 차거운 마음이니까 자기 어머니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도 모르고있지 !

너의 어머니 바로 남조선에서, 피의 땅 광주에서 피퇴군놈들의 대검에 찔려 돌아가셨다 ! 》

《뭐야? ! 》

두식이는 눈알이 뒤집히는것 같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해봐라, 우리 어머니가 어쩔다고? 우리 어머니 병으로 앓다가 돌아가셨어 ! 》

《아니다 ! 너의 어머니는 광주인민봉기때 원수놈들에게 학살당하셨다. 너의 어머니 무등산묘지에 누워있다.》

《뭐? ! 뭐? ! 그건 거짓말이다 ! 》

《생각해봐라. 그런 거짓말도 하겠는가? ! 》

두식이의 얼굴에 주먹을 안기듯 이 말을 쏘아붙이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밖으로 나와버렸습니다. 거리에 나선 다음에야 저는 정신을 차릴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선생님과 약속을 불과 1 시간후에 어겼던것입니다.

저는 우정도 없고 선생님의 믿음도 잃은듯한 허전한 심정을 안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사실 그후 두식은 저와 마주치면 시선을 피하며 외면했고 말 한마디 건너지 않았습니다. 두식은 아는 애처럼 기가 죽어있었습니다. 몸은 점점 수척해지고...

저는 선생님에게 저의 파오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했지만 주저되어 하루이틀 미루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떠나시는 전날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조선에서 세번째로 대학생이 통일일을 부르짖으며 분신자살을 했다는 비통한 소식이 들려온 날입니다.

두식이 그 조용히 저를 찾아왔습니다.

두식은 불현듯 내 손을 꼭 잡더니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툭툭 흘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철수! 고맙다. 진실을 이야기해주어서... 너의 말은 진실이었어...》

나는 할머니와 아버지에게서 사실을 알아냈다.

아버지도 처음에는 성을 내시며 부정했지만 다음에는 다 자란 자식에게 숨기지 말아야 할 것을 숨긴 것은 잘못된 일이었다고 인정하였다. 자식이 근심걱정 모르고 자라기를 바라는 단순한 생각에서였지... 그건 눈먼 사랑이었어. 자식의 눈을 멀게 하는 맹목적인 사랑이지...

철수! 나는 눈을 떴다. 나는 무사태평하게 지낼 수 없는 처지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

사실 조선사람치고 무사태평하게 지낼 수 있는 행운을 타고난 사람이 어디 있겠니? 어머니조국이 두동강났는데...

나는 분신자살하는 남녘대학생들의 심정도, 할복자결하는 심정도 이해한다.

나의 지금의 솔직한 마음은... 할복자결한 그 렬사에게 내 생명을 주고싶다는 것이다.

싸우지 못하는 나에게 생명이 무슨 가치가 있겠나...》

나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부르짖었습니다.

《너도 싸우면 되지 않니! 우리도 싸우자!》

그날밤 두식은 웬일인지 다시 나를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이 깊은 밤중에 또 왔니?》

제가 놀라와하자 두식은 잠시 주저하더니 자신 없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백두산과 한나산에서 국토종단대행진이 시작된다지?》

우리가 그 행진단에 참가할수는 없구... 행진복을 보내주면 안될가?》

《뭐? 행진복?!》

나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백두산에서 출발하는 대학생들에게 행진복을 보내주잔말이야. 우리의 마음을 담아...》

선생님!

제가 그때 역흡에서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그후 두식이의 발기는 조청조직에 반영되었고 총련중앙에도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학교 학생들의 체제로서 각 지방 조청조직에 전해졌으며 행진복을 마련하기 위한 학생들의 기금운동이 널리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조국에 계실동안에 국토종단대행진이 진행될것이니 행진단성원들이 입은 행진복도 보시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부디 우리의 몫까지 성원을 보내주시시오.

그럼 오늘은 이만 펜을 놓겠습니다.

1988년. 7. X

강철수 드림

편지를 읽고났을 때의 저의 기쁨과 환희를 무엇이라고 표현할는지요. 너무도 벅찬 흥분으로 저는 숨이 막히는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흥분은 오늘 뜨거운 감격으로 변했지요.

백두산에서 첫 걸음을 땀 행진단은 바로 오늘 평양을 떠났어요.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조선은 하나다!》라고 씌여진 붉은 기발을 선두로 행진단성원들은 힘찬 걸음을 내디디었어요.

김일성광장은 손에손에 꽃무음을 켜 사람들로 들끓었고 그들을 맞고보내는 박수소리는 폭풍과도 같았어요.

저는 그만 울고말았어요.

저의 눈앞에는 최두식을 비롯한 우리 학생들이 애써 지어보낸 행진복을 입은 조국의 대학생들이 힘차게 행진하고있는것이 아니겠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속삭였어요.

《두식이! 철수!

선생님은 지금 저 행진단속에 두식이기도 철수도 함께 가고있다고 생각해요...》

눈물로 뽀얗게 흐려진 내앞으로 행진단은 지나가고있었어요.

우리 학생들이 보낸 행진복을 입고...

저는 그때처럼 교원의 기쁨을, 감격을 느껴본적이 없었어요...

현진동무!

우리 학생들에게 어떻게 무관심, 무기력, 무감동의 류행병이 옮을수 있겠어요?

우리 학생들은 근본이 다르지요.

혹시 그 근본을 깨닫지 못할수 있고 잊을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잊지 않도록, 옳바로 깨닫도록 깨우쳐주고 이끌어주는것이 우리 교원들의 사명이 아닐가요.

생활은 저에게 이 진리를 가르쳐주었어요...

오늘은 이만 쓰겠어요.

부디 몸 조심하세요.

홍성희 드림

1988. 8. X

평양에서

(필자는 도표 조선중고급학교 교원임)

공화국기발

손지원

총련회관 지붕우에
나뭇기는 공화국기

조국의 기발을 우러를 때면
내겐 떠올라라
너를 바라보며 살아온
나의 청춘시절이

내 햇빛밝은 교실에서
처음 그린 그림이
바로 너였다

조국의 축구선수들
가슴마다 너를 달고 쓴살같이 달릴 때
천리마속도를 제 눈으로 보는듯
더더욱 그리웁던 아, 조국땅

그 소원 풀리어 원산항에 내린 날
내 손에 쥐여진 너는
뜨거운 이슬로 마를새 없었던만

그러나 그땐 아직 내 다는 몰랐다
너의 귀중함을
너의 위대함을

조선혁명박물관에 놓인
피로 물든 붉은기 불 때까지는
전승기념관 진렬대에 놓인
포연에 그슬린 공화국기발을 볼 때까지는

내 그때부터

무심히 볼수 없었다
붉은 기폭 너무나 눈에 시여서...
오각별 너무도 눈에 부시여...

아, 내 그때에야 비로소 깨달았다
광복의 피어린 설령을 넘어
전화의 불비속을 헤치시고 걸어오신
수령님의 불멸의 자욱이 깃든 네 기폭우에
나의 희망 나의 청춘 꽃피었음을

람홍색기발은
천만금 주고도 못바꿀 나의 운명
다시는 빼앗길수 없는 나의 존엄
대를 이어 추켜들어야 할 우리의 기치

하기에 내 오늘도
너를 가슴에 안고
이역의 하늘아래 몇몇이 살아있거니

휘날리리라
기발 빼앗으려 원수들 덤벼들 때면
더더욱 으스스하게 기대를 쥐고
총련의 지붕우에 휘날리리라
통일 위한 애국대오의 선두에 서서
오,
나의 삶 빛내여준 조선의 기발이여!
내 가슴에 펴려있는 주체의 기발이여!

(필자는 총련 조선대학교 교원임)

작가의 문체

오영환

(제 12 회)

작가의 관찰력과 문체

사상이 정서를 통하여 흘러나오게 하는데서 느낌과 주장이 노는 역할은 시에 서정과 열정, 성격을 강화하는데만 있지 않다.

남다른 깊은 느낌과 자기다운 높은 주장은 시에 운률을 살리는데서도 커다란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시의 운률에 관한 문제는 형식측면에서 내용측면에서 먼저 연구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측면에서 연구가 부족하였다.

친해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시인은 혁명하는 시대에 맞는 기백있고 고상하며 발랄한 새로운 운률을 끊임없이 창조해내야 한다.》

이 명제는 시인이 어떤 운률을 창조해내야 하는가를 밝혀주고있다.

우리 시대는 혁명하는 시대이다. 혁명적인 내용을 떠나서 그에 알맞는 운률을 창조할수는 없다. 창작실천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시인은 현실생활에서 받은 의의있고 절실한 느낌과 주장이 생겨났을 때 가슴속에 울리는 선율과 음악에 휩싸이게 된다.

편집자는 시인들이 심장의 선율과 정신의 음악에 휩싸인 순간의 각이한 모습을 보아왔다. 어떤 시인은 코소리로 흥얼거리는가 하면 어떤 시인은 입으로 휘파람을 불고 그런가 하면 어떤 시인은 손으로 지휘하듯 흔들기도 하였다.

여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편집자는 시인 박세영의 서정시 《나에게 주는 시》를 받아읽고 몇군데 고치기 위하여 그의 창작실로 찾아간적이 있었다.

시인은 편집자의 의견을 받고 그것을 음미해보느라고 원고를 처음부터 읽어보는것이였다. 시를 읊고난 순간부터 그는 조용히 휘파람을 불기 시작하였다.

늙은이가 휘파람을 분다는것이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 일인가, 그러나 어느 젊은이에게서도 들어본적이 없는 능란한 휘파람인것으로 하여 또 자책과 자각의 감정으로 일관된 시내용에 어울리는것으로 하여 로시인의 격에 맞는 휘파람이였다.

《나에게 주는 시》를 창작하면서 불던 바로 그 휘파람일것이다. 그때의 심장의 선율과 음악을 되살리며 추고작업을 하고있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백발이 흩날릴 때까지도
그것이 머리가 회여서 아니라
참으로 그냥은 있을수 없는
쌍인 노력의 빛발인듯
더 깨끗하고 숭고한것으로 되어야지

이것이 고쳐진 한편이였다. 시인은 한두행, 한두마디를 고칠 때에도 심장의 선율과 정신의 음악에서 벗어나지 않는것이였다.

그 이듬해 설날이였다.

편집자는 이상하게도 설날의 스케트장으로 마음이 끌리면서 거기에 꼭 시인 박세영이 청소년들 속에 섞여 휘파람을 불며 스케트를 타고있는 모습이 눈앞에 떠올랐다.

보통강스케트장으로 가면서 생각해보았다. 《애국가》를 창작하던 때는 시인이 어떤 휘파람을 불었을것인가? 《애국가》의 음악선율과 비슷한것이였을가 아니면 전혀 다른것이였을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용히 《애국가》를 불러보았다.

아침은 빛나라 이 강산 은금에 자원도 가득한
삼천리 아름다운 내 조국 반만년 오랜 력사에
찬란한 문화로 자라난 슬기론 인민의 이 영광
몸과 맘 다 바쳐 이 조선 길이 받드세

백두산 기상을 다 안고 근로의 정신은 깃들어
진리로 뭉쳐진 억센 뜻 온 세계 앞서나가기
솟는 힘 노도로 내밀어 인민의 뜻으로 선 나라
한없이 부강하는 이 조선 길이 빛내세

새해 첫날에 부르는 《애국가》는 더욱 장중하고 숭엄한 감정에 휩싸이게 하였다. 사랑과 자랑의 감정은 이처럼 장중하고 숭엄한 감정과 어울려 울려나왔다.

사랑과 자랑의 감정, 이것은 시인이 《애국가》를 창작하던 때의 감정임에 틀림없다. 작곡가는 여기서 장중하고 숭엄한 감정을 받았을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시인의 운률과 작곡가의 선율이 일치하였을것이다. 시인은 작곡가의 장중하고 숭엄한 감정

을 통하여 사랑과 자랑의 감정의 완성을 보았을 것이다.

어느덧 스케트장에 이르렀다.

인산인해를 이룬 스케트장에는 어린이들과 청년들, 로인들로 붐비었다. 물론 거기에서 시인 박세영은 찾지 못하였다. 그가 있으리라고 생각한것은 시인의 휘파람이 일으킨 환각이었다.

스케트장에서 시인은 만나지 못하였지만 그가 창작할 때 휘파람을 부는 참뜻은 더욱 똑똑히 깨달을 수 있었다.

스케트를 타는 청소년들속에는 팔을 휘젓고 발을 내짚는 모양이 자연스러운 동무들이 있는가 하면 부자연스러운 동무들도 있었다. 얼음판 위에서 자연스러운 동무들은 타원형의 선을 따라 안쪽을 돌고 부자연스러운 동무들은 바깥쪽을 돌고있었다.

확실히 안쪽에서 돌고있는 선수들은 그 어떤 음악적 선율을 타고 흐르는것 같았다. 그것은 시인이 휘파람을 불면서 펜을 달리는것과 다를바가 없었다. 심장의 선율과 정신의 음악에 실릴 때만이 시인의 펜은 거침없이 달리게 되는것이다.

시인 최승철은 서정시 《미소》를 창작하면서 이미 앞에서 분석한 그런 새로운 느낌과 강렬한 주장이 떠올랐을 때 가슴속에서 울려나오는 심장의 선율과 정신의 음악에 휩싸였다.

그 순간부터 걸어도 누워도 심장의 선율과 정신의 음악은 그치지 않고 울려나왔다. 그것은 쓰러진 소년의 미소를 보는 자각의 감정과 이루지 못한 꿈을 받아안은 신념의 감정과 겨레를 판가리싸움에로 부르는 의지의 감정에서 울려나오는 선율이며 음악이었다.

이러한 선율과 음악이 작품에 기백있고 고상하며 발랄한 새로운 운율을 부여하였다.

소년은 머리를 치여들었다!

여기서 《치여들었다》는 《쳐들었다》의 소리마디가 들어난것이다. 그것은 내용에서 소년의 기개를 강조하고 형식에서는 음수물을 고르롭게 하고 있다.

높이 추켜든 《조국통일 호소문》!

여기서 빨간색을 그은것은 정치용어이다. 그것이 시어로 된것은 소년의 꺾이지 않는 의지의 감정을 담고 기백있는 운율을 탔기때문이다.

순간, 구름갈피에 해살이 타는듯

충충 겹친 검은구름사이로 쏟아져내리는 해살은 타는듯이 강렬하다. 조국통일에 대한 소년의 갈망과 그날을 보는 희열은 그 빛과 같은것이였다. 이렇게 본 시인에 의하여 새로 만들어진 합침말 《구

름갈피》와 단어결합 《해살이 타는듯》은 소년의 갈망과 희열의 감정을 두드러지게 나타내면서 기백있고 발랄한 운율을 더욱 뚜렷이 살려내고있다.

총구를 휘두르며 밀쳐나온다

왜 시인은 《밀쳐나온다》로 표현하지 않고 《밀쳐나온다》로 표현하였는가? 그것은 내부모순과 야수성으로 가득찬 적에 대한 증오의 감정으로 써만 설명할 수 있다. 밀치며 나오게 한것은 장교의 호령이며 줄병들의 발작이다.

다른 한편 《밀쳐나온다》는 《밀치며 나온다》의 소리마디를 줄임으로써 음수물을 고르롭게 하는 역할도 하고있다. 만일 《총구를 휘두르며 밀치며 나온다》로 표현하였다면 얼마나 서툰 표현으로 되었겠는가.

불빛서린 눈동자로 소년을 부르며

《불빛서린》은 수식어로서 살인자들에 대한 분노의 감정과 소년투사를 보는 놀라운 감정과 소생하기를 바라는 기대의 감정 등 복잡한 감정이 내비친 눈동자를 종합적인 감정적 평가를 내리고있다. 뿐만아니라 《불빛서린》은 《불빛이 서린》에서 토를 생략한것으로 하여 기백있는 운율을 복돋아주고있다.

해빛 찬란한 황금별판의

《황금별판》은 합침말로 된 비유적 어휘이다. 《황금》이라는 비유적 의미와 《별판》이라는 본래의 의미가 합쳐져 시적 운치를 돋구어주면서 다른 호홉말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하고있다.

이상과 같은 분석에 기초하여 시어와 시행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 있다.

시어란 심장의 선율과 정신의 음악이 선택한 단어들이다.

심장의 선율과 정신의 음악에 의하여 소리마디가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며 정치용어가 시어로도 되고 새 말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심장의 선율과 정신의 음악에 의하여 또한 수식어도 들어가고 비유적 어휘도 들어가게 된다.

어휘는 두가지 측면을 가진다. 의미적 측면과 함께 음향적 측면을 가진다. 의미는 내용이며 음향은 형식이다.

창작실천에서 시인의 선차적 관심은 어휘의 의미적 내용에 돌려진다.

의미적 내용이 선택되면 그에 따라 음향적 형식은 결정되기마련이다.

다음 시행이란 어떤것인가?

시행이란 심장의 선율과 정신의 음악이 배열한 단어들의 결합이다.

심장의 선율과 정신의 음악을 안고있으면 시행이고 그것을 안고있지 못하면 산문토막에 불과한것이다.

시행은 그것들을 련결시켜놓아도 산문으로 되지 않는다.

《허나 겹겹한 사람들의 담벽, 미소를 지켜 막아섰거니, 어찌 소년을 원쑤에게 내어줬으랴.》

보는바와 같이 이렇게 련결시켜놓아도 읽게 되지 않고 읊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시인을 가수라고 하고 읊는것을 노래한다고 한 말은 참으로 옳은 말이다.

다시 되돌아가서 그러면 시에 운률을 살리는 근본방도가 무엇인가?

그것은 시에 남다른 깊은 느낌과 자기다운 높은 주장을 담는것이다. 남다른 느낌이 깊고 자기다운 주장이 높을수록 심장의 선율과 정신의 음악은 더욱 뚜렷해지고 더욱 독특해진다.

심장의 선율이 뚜렷하고 정신의 음악이 독특한 작품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표현수법의 리용이 활발한것이다.

서정시 《미소》에 리용된 표현수법은 13 가지이며 같은 표현수법을 반복하여 리용한것까지 합하면 무려 36 번이다. 즉 직접비유법 7 번, 숨은비유법 6 번, 열거법 4 번, 점층법 4 번, 수식법 4 번, 수사학적 물음법 3 번, 되풀이법 3 번, 보충법 1 번, 자리바꿈법 1 번, 줄임법 1 번, 에두름법 1 번, 수사학적 감탄법 1 번, 대조법 1 번이다.

10 련으로 된 시작품에 표현수법이 36 번 리용되었다는것은 련마다 평균 약 4 번씩 리용되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이것은 의도적인것이 아니라 필연적인것이다. 시작품에 일관되고 관통된 느낌과 주장이 표현수법의 활발한 리용을 요구한것이기때문이다.

표현수법의 리용에서 소설작품보다 시작품이 더욱 적극적인것은 느낌과 주장으로 일관되어있는데 기인한다. 그러므로 시문장의 밀도는 곧 느낌과 주장의 밀도이며 표현수법리용의 밀도이다.

훌륭한 시작품일수록 느낌과 주장으로 일관되고 표현수법리용이 조밀하다는것은 하나의 진리이다. 이 진리를 깨달은 시인은 운률이란 다름아닌 심장의 선율이고 정신의 음악이라는것을 파악한 시인이다.

시문장에 조밀하게 리용된 표현수법들가운데는 운률을 조성하는 표현수법들이 적지 않다. 그중에서 여러가지 표현수법들과 어울린 되풀이법을 구체적으로 보자.

되풀이법이란 한 문장이나 단락안에서 같은 단어나 단어결합 혹은 문장을 되풀이하는 수법이다.

같은 표현의 되풀이를 필연적으로 요구하는것은 깊은 느낌과 높은 주장이다. 여기서 되풀이법의 표현적 기능과 여러가지 구조형식이 뿜어나온다.

되풀이법의 표현적 기능에서 기본으로 되는것은 느낌과 주장의 깊이와 높이를 강조하면서 운률을 조성하는것이다,

례를 들어보자.

나는 가겠어요 장군님 부대로 !
우리를 갈라놓은, 우리 행복 짓밟은
원쑤들을 천길 나락으로 몰겠어요
죄많은 그놈들 죽음의 고통에 넘칠 잃도록
쏘고 쏘고 또 쏘겠어요

(시 《영원한 행복》 중에서)

이 레문에서 되풀이 된 《우리》와 《쏘고》는 자기들의 불행에 대한 느낌의 깊이와 그것을 강요한 원쑤들에게 복수하고야말 각오와 결심의 높이를 강조하면서 기백있는 운률을 살리고있다.

오, 위대한 내 나라의 높은 이마우에
찬란한 금관처럼 빛나는 백두산이여
용감하고 담대한 장수의 머리우에
얼마나 얼마나 어울리는가 !
원쑤들은 눈이 멀어 비칠거리리 !

(시 《백두산》 중에서)

여기서 잇대여 되풀이 된 《얼마나 얼마나》는 백두산을 용감하고 담대한 장수의 머리우에 얹혀진 찬란한 금관으로 보는 느낌의 깊이를 강조하면서 궁지와 례찬의 감정에서 울려나온 호방하고 발랄한 운률을 살리고있다.

누구랴, 삼동추위에 굴뚝을 안고 자며
악몽에 뒤채기는 방랑자들의 곁을
가슴에 아픔없이 지나가는이는,
누구랴, 고향의 메마른 땅과
기울어가는 추녀아래의 막막한 고요를
눈물없이 추억한이는

(시 《대통로에로!》 중에서)

이 레문에서 밑줄을 그은것은 머리가 되풀이로서 그것은 리향과 방랑의 기로에서 헤매는 남녘인민들의 불행한 처지에 대한 느낌의 깊이를 강조하면서 동정과 련민의 정에서 울려나오는 고상하고 비장한 운률을 살리고있다.

밤마다 꿈에 보네, 남녘의 얼굴을
거기에는 죽고룻우에 벌처럼 떠는
아이들의 처량한 눈들이 있고

락엽처럼 흩어지는 일가친척의
리별의 박정과 통곡이 있다.
거기에는 전호와 무한계도 자국들이
피에 젖은 주름살로 산산이 덮여있고
미제의 락탈과 《원조》에 뜯겨여
가없는 벌에서도 제 난알 한줌 없는
원한이 있다, 분노가 있다
(시 《험하고 어두운 남녘의 얼굴들이》 중에서)

여기서 《있고》와 《있다》는 끝구되풀이로서
남녘인민들의 얼굴에 그려진 가지가지 고통에 대한
느낌과 거기에 비친 결사의 정신에 대한 느낌의 깊
이를 강조하면서 비분과 고발의 감정에서 울려나오
는 엄숙하고 장엄한 운률을 살리고있다.

오, 나는 믿는다
설음은 분노로, 분노는 힘을 깨워
혁명에 떨쳐나설 인민의 폭풍을!
믿는다, 락탈자들을 쓸어낸 땅우에
지금은 어두운 겨레의 얼굴들이
해무리같이 빛을 뿜어 솟아오를 그날을!
(우와 같은 시중에서)

이것은 꼬리잡이되풀이이다. 《믿는다》와
《믿는다》, 《분노》와 《분노》가 각각 꼬리를 물
고 되풀이되었다. 그것은 설음에 어두워진 얼굴로
부터 분노에 험해질 얼굴로, 마침내는 해무리같이
밝아질 얼굴로 보는 느낌의 깊이를 강조하면서 신
념과 랑만의 감정에서 울려나오는 고상하고 숭고한
운률을 살리고있다.

몸은 비록 사슬에 매웠어도
감방은 새롭지 않다
하루 스물네시간씩 나를 엿보는
교형리들의 독기서린 눈초리도
살점을 저머내는 고문실도
새롭지 않다, 무섭지 않다
...

몸은 비록 사슬에 매웠어도
마음은 아우성의 도시와 벌판을 달리나니
춤추듯 휘두르는 손에서는
혁명의 씨앗이 봄빛처럼 뿌려져라
(시 《철창속에서》 중에서)

《몸은 비록 사슬에 매웠어도》는 사이둔되풀이
로서 철창속에서도 공포와 절망을 모르고 투쟁을
계속하는 투사의 느낌의 깊이를 강조하면서 신념과
의지의 감정에서 울려나오는 기백있고 호방한 운률
을 살리고있다.

이상에서 우리는 되풀이법의 표현적 기능과 구
조형식자체가 강한 충동과 격동된 사상감정의 요구
로부터 흘러나온것이라는것을 알게 되었다.

운률을 조성하는 표현수법은 되풀이법외에도
대구법, 자리바꿈법, 자문자답법, 겹침법, 줄임법
등등이 있다.

이미 소설부분에서 작가는 대상현상을 직선으
로 보지 않고 비유해보고, 대조해보고, 숨겨보고,
쌍아보고, 뜯어보고, 본따보고, 응용해보고, 확대해
보고 에둘러본다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뿐만아니라 작가는 느껴보고 주장해본다. 그로
부터 문장에서 되풀이도 하고, 짝을 맞추기도 하고,
자리를 바꾸기도 하고, 묻고대답하기도 하고, 겹쳐
놓기도 하고, 줄이기도 한다. 이것은 다 심장의 선
률과 정신의 음악이 일으키는 조화이다.

이러한 능력을 작가의 관찰력이라고 한다.

시인 최승철의 작품들은 그러한 능력이 준비되
였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그의 문체는 호방하고 씩씩하며 예리하고 랑만
적인것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우선 작가의 말투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미 말한바와 같이 작가의 말투란 그 작가의
개성적인 문체를 종합적으로 특징짓는 말이다.

이 시인의 말투는 기지있는 말투, 감각적인 말
투이다. 그것은 어떤 주제의 작품에서 많이 성공하
고있는가 하는데서 찾아볼수 있다.

그의 시집을 보면 혁명적인 주제의 작품들에서
많이 성공하고있다. 혁명하는 생활, 투쟁하는 생활
보다 더 첨예한 생활은 없다. 시인은 이러한 생활을
많이 취했고 거기에서 기지있는 말투를 뚜렷이 살
려냈다. 앞에서 분석한 시작품들과 명문장들을 상
기하면 충분히 납득된다.

어휘선택과 표현수법 측면에서는 감각적인 말
투가 경향적으로 나타났다.

표현수법리용이 활발한중에서도 직접비유법,
수식법, 숨은비유법이 큰 자리를 차지하고있으며
또 거기에서 높은 표현적 질을 획득하고있다.

어휘선택과 시행조직에서 나타나는 경향성은
앞에서 간단히 상기시켰지만 느낌말을 다양하게 효
과적으로 리용하고있는것이다.

보아라, 높이 올리는 출강의 종소리
그렇구나, 퇴성치며 쏟아지는 쇠물은
아니다, 나는 가야 한다
흥이로다, 높이 솟은 새 마을에 가락은 울리고
좋아라, 온 땅을 들고 안고 달리던
맏이사, 틀림없는 옛적의 왜군병사

이 몇가지 실례만 보아도 그의 감각적인 말투의
한 측면을 엿볼수 있다.

원추리

리빈

고구려의 초대왕 고주몽의 이모가 어떻게 되어
 흰화(원추리꽃)라는 이름을 지닐수 있었던지 그 까
 닭을 딱히는 모른다. 구태여 밝히려 든다면 다만 그
 의 용모가 꽃처럼 아름다웠으리라는 추측으로 만족
 할수밖에 없을것이다. 더러 전해오는 말을 미루어
 보건대 그때의 세상사람들이 흰화를 미의 상징으로
 찬미해마지 않았고 그의 얼굴을 한번 보는것이 소
 원이었다 하니 우의 추측이 노상 억지는 아닐것이
 다.

아무튼 건국시조로서 신성화된 고주몽의 어마
 어마한 가보에 올라 당대의 명성을 떨쳤던 흰화의
 이름이 거침없는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력사책인
 《삼국사기》의 갈피속으로 잦아버리는것과 함께
 사람들의 기억밖으로 점차 멀리 사라져갈즈음이었
 다.

연안사람들속에 희한한 소문이 떠돌기 시작했
 다.

《…가장골에서 솟을 굽는 현삼이의 처가 천연월
 궁항아래, 마음씨두 비단결이구!》

《현삼인 비록 솟쟁이긴 해도 사람이 하도나 진
 국이니까 어느 선녀가 혹했던게로군, 금강산의 나
 무군과 금슬이 깊었던 팔담선녀처럼말이야.》

《마음이 마음을 알아보기마련이라 십상 그림직
 도 하이… 아, 참! 사냥군말을 들어보니 그 녀인 이
 림이 뭐 원추리라던가…》

심심산골에 묻혀있는 《선녀》는 좀처럼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마치 원추리꽃이 뿌리내린
 숲속을 떠나지 못하듯.

하여 그는 애꿎은 호기심만 불러일으키는 환상
 속의 인물로 되어버렸다.

고을에 집을 둔 사냥군 하나가 그에 대한 소문
 을 퍼뜨리지만 앓았더라면 연안사람들의 이 화제거
 리는 영영 없었을런지도 모른다.

임진년, 정초 어느날이었다. 무엇이던 닥치는대
 로 쏘아잡을 작정으로 온 산판을 헤더듬던 사냥군
 은 산마루에 올라서서야 노루 한놈과 맞닥들였다.
 번개같이 날아간 화살은 노루의 허벅다리를 꿰었다.

질집한 짐승은 금방 쓰러질듯 비칠거리고 번번
 이 나딩굴기는 하면서도 줄곧 험한 북쪽끝안으로
 줄행랑을 놓았다. 사냥군은 무릎치는 생눈길을 헤
 치며 허둥지둥 쫓아갔다. 그가 어둑침침한 골짜기
 의 막바지에 이르러 길이 넘는 눈구렁이속에 구겨
 박힌 노루를 덮쳤을적에는 이미 한자국도 옮길수
 없이 녹초가 되었다. 까맣게 높이 솟은 비봉산줄기

를 넘어갈 생각을 하니 억이 막혔다. 막연한 구원의
 손길을 찾아 저도 모르게 두리번거리던 그의 눈에
 는 저 아래 숲막의 가느다란 연기가 안겨들었다.

…그를 맞아준 숲막집주인은 잘해야 스물뒤살
 되었음직한 녀인이었다. 사냥군은 깜짝 놀라 대문
 간에 선채로 돌처럼 굳어졌다. 연안고을뒤를 병풍
 처럼 둘러막은 비봉산의 높은 줄기가 인간세상을
 아주 갈라놓은듯 사람의 자취조차 상상할수 없도록
 적막한 이 산속에서 문득 만난 사람이 녀인이라는
 사정만이 아니었다. 무르익은 앵도빛얼굴에 아침이
 슬같은 미소가 어리고 낮선 사나이가 못내 부끄러
 워서인지 초례청에 들어서는 새각시 방불하게 소곳
 이 내려간 눈매, 그리고 도도룩한 코언저리의 가뭇
 가뭇한 주근깨조차 원추리꽃의 진분홍무늬마냥 청
 초한 자태를 돋우고있는 그 아름다움에 경탄을 금
 치 못했던것이다. 참으로 그는 눈속에 핀 한떨기 매
 화가 무색할 지경이었다. 못내 수집어서인가 복성
 스런 얼굴이 그야말로 원추리꽃빛갈처럼 붉어져서
 고개조차 들지 못하는 안주인의 공손한 안내를 받
 아 사냥군이 아늑한 방안에 들어섰을 때(방바닥 한
 복판에서는 너더땃살잡이 총각애가 자고있었다.)숲
 곳에 올라갔던 바깥주인이 돌아왔다.

바깥주인 현삼이는 친형님이라도 맞은듯 무척
 반가와하며 그를 굳이 아래목에 앉히고 무릎머리가
 닿도록 화로를 당겨와주었다. 원추리가 밥을 짓느
 라 서두르는 사이 그는 손님의 시창기를 사뭇 걱정
 하면서 주먹같은 왕밤 한줌을 화로불에 물었다. 사
 냥군이 주인의 극진한 권에 못이겨 뜨끈뜨끈한 밤
 톨을 까고있을즈음 상이 들어왔다. 입쌀좁쌀 반반
 에 왕팔이 드문한 세덩어리밥을 발딱채겨드려누운
 말주둥이처럼 치쌍아담은 낫바리, 후더분한 우거지
 국, 고사리무침, 고실고실한 싸리버섯볶음, 새빨강
 다못해 까매진 고추장… 보기만 해도 군침이 절로
 나는 음식마다에는 후한 인정이 넘치고있었다. …
 돌아가려고 방문을 나서던 사냥군은 다시금 눈이
 둥그래졌다. 뽕오리로 굽을 썬채 토방우에 메쳐두
 었던 노루가 온데간데없이 사라진것이였다.

《여보, 노루 못봤소?》

현삼이는 성급히 부엌문을 열고 안해에게 물었
 다. 열결에 그의 어깨너머로 부엌안을 들여다본 사
 냥군은 흠칫했다. 불을 무드기 끌어내놓은 아궁앞
 에 노루가 누웠는데 그밑에는 복신한 거적이 깔렸
 다. 원추리는 파들파들 떨고있는 노루의 상한 다리
 를 어루만지며 조용히 흐느끼고있었다. 단번에 사

연을 알아차린 사냥군은 가슴이 뭉클했다. 목이 메여난 그는 겨우 《그놈을 놓아주요.》했다.

《고마와요.》

속삭이듯 뇌인 원추리는 부리나케 선반우에서 종지기를 꺼내어 불에 들여놓았다. 어쩐지 눈가에 이슬이 맺힌듯한 현삼이가 까닭없이 발을 걸채이며 안해결으로 다가갔다. 젊은 부부는 종지기안에서 실실 녹고있는 찻진을 손가락에 듬뿍 묻혀 노루의 상처에 발라주었다....

울밖에 나선 사냥군은 오래도록 발길을 떼지 못했다. 한평생 살고싶은 오붓한 이영집, 깨끗한 마당, 옥같은 조약돌을 가지런히 깔고 일부러 다듬은듯이 모난 돌로 맵시있게 꾸민 시내가, 꽃밭길마냥 알뜰히 닦아놓은 여러갈래 오솔길이며 신통히도 구새먹은 참나무만 골라 찍어온 숯감사리나무들... 애지중지 쓰다듬은 이곳 주민들의 알뜰한 정성이 눈길 닿는곳마다에 스며있었다. 사냥군은 꼭 선경에 오른 꿈을 꾸는것만 같았다. 드디어 《참, 맘씨두 숨씨두 용모처럼 곱기두 하지.》 하고 저도모르게 탄복하고야말았다. 배웅나왔던 두 젊은 부부의 눈은 둥그레졌다.

...

봄이 가고 여름이 지나는사이 일본오랑캐들이 일으킨 전쟁의 불길은 점점 연안땅을 향해 번져왔다. 싸움준비를 위해 병장기를 버리는 고을대장간마다 숯이 팔렸다. 현삼이는 굶모서리에 광술불을 달아놓고 밤새워 숯을 구웠다. 원추리는 도끼를 들었다. 평생처음이었다. 숯곳안에 들어갈수 있을만큼 참나무통의 토막을 쳤다. 현삼이는 펄쩍 뛰었다. 원추리는 도끼를 빼앗으려는 그의 손을 애써 피했다.

《당신 정신 있소?!》

급기야 버럭 성을 내던 현삼이는 눈물이 겨웁도록 애원이 질은 그의 눈길에 마주치자 어쩔수 없이 수그러졌다.

원추리의 손바닥에는 파리알같은 물집이 튀어올랐다. 그는 남편을 도와 밤을 새우면서야 비로소 눈섭이 천근임을 알게 되었다.

현삼이는 곳에서 숯을 꺼내기가 무섭게 섬을 지어 말에 싣고는 비봉산북녘의 20여리 기슭을 돌아 고을로 갔다.

(곧바로 산을 넘으면 훨씬 가까왔으나 산세가 하도 험하여 발붙일수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저물녘이었다. 저녁동자에 바쁘던 원추리는 말발굽소리를 듣자마자 일손을 놓았다. 남편이 돌아올적마다 늘 하던 버릇대로 부랴부랴 마중을 나갔다. 반가운 마음으로 말고삐를 받아들던 원추리는 흠칫 놀랐다. 시크무레한 땀냄새가 확 풍기는 말잔등에는 숯섬이 그대로 실려있지 않는가, 그의 놀란 눈길은 남편에게 날아갔다. 그를 마주 대

하기가 피로운듯 남편은 컴컴한 얼굴을 외로 틀었다.

역센 힘이 넘쳐나던 어깨마저 축 처져내렸다.

(?)

불길한 예감에 가슴이 선뜻했다.

(왜 저러실가? 갑자기 무슨 탈이라도?)

까닭을 알고싶어 안타까왔다. 그러나 드러내놓으려 하지 않는 남편의 마음속을 건드리지 못할 법으로 알고있는 그여서 잠자코 있을수밖에 별도리가 없었다.

(아마 숯을 못팔았으니까 화가 나신게지.)

드디어 이렇게 위안을 찾은 원추리는 그래도 마냥 어수선했기만한 가슴을 애써 녹갯히며 외양간에 말을 들여매었다.

그는 이어 세면물뜰배기를 토방머리에 내다놓았다. 방문을 열어젖히고 멀뚱멀뚱 바라보던 아들이 애가 쪼르르 달려왔다.

《아버지, 빨리 세면하구 나 밤 귀달라. 왜 가만히 섰기만 해? 얼편!》

어린것은 아버지의 팔에 매달려 어리광을 부렸다.

방금 밝아온 길을 하염없이 되돌아보고있던 현삼이는 《오, 참 그렇지.》하고 그제야 정신이 든듯이 어색하게 웃었다.

원추리는 서글픈 그 웃음뒤에 무서운 무엇이 숨어있는것만 같아 몹시 게름직했다.

묻고싶고 안타까운 일일지언정 언제나 말을 못꺼내는 자기 심정을 헤아린듯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툭 털어놓곤하던 남편이언만, 어느때없이 침묵을 지키고있을적에는 말 못할 사연이, 필경 알아서는 안될 까닭이 있나보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냥 물어두고있을 사람이 아닌데.)

하다면 그것은 불상사가 틀림없다.

(무엇일가?)

보이지 않는 작은 불행은 보이는 큰 불행보다 더 무서운법이어서 그는 불안한 마음을 좀처럼 진정시킬수가 없었다. 세 식솔이 저녁상을 마주하고 앉았을 때조차 정체불명의 끔찍한 무엇이 남편을 끌어가는데만 같은 환각에서 깨어나지 못하였다.

남편이 건승 놀리던 손가락을 상귀에 걸어놓고 속이 들이탔던지 골쎃골쎃 찬물을 마시는것을 보았을 때 그는 끝내 참지 못해 물었다.

《혹시 고을에서 무슨 일이라도 있었어요?》

남편은 망설이듯 그를 한참 바라보다가 《일은 무슨 일... 어째 오늘은 기분이 좀 나쁠뿐이야.》하고 어름어름 대답했다.

(?)

원추리는 믿어지지 않았다. 남편은 《무슨 일》을 숨기고있다. 하다면 묻지 않아도 다 말하던 사람

이 물어도 피할 때에는 반드시 말못할 사정이 있어서이다. 종내 마음이 놓이지 않은 그는 드디어 남편을 섬겨오는 긴긴 세월에 굳어진 관념으로 마음을 달래었다.

(장부의 마음속을 넘보아선 안되지 뭐.)

남자에게는 때로 너자가 알아서는 안되는 일이 있기 마련이다. 또한 그런 사연이라 해서 다 언짢기만한 법이 없지 않는가.

자기가 불안한 기색을 드러내놓고있으면 남편의 기분이 더 상할가보아 여느때처럼 일부러 밝은 낯을 짓고 그에게 이것저것 찬도 권하고 아드래의 투정질도 달게 받아주었다. 그러면서도 남편의 말을 기다렸다. 불쾌한 소식이라도 좋았다.

바깥세상소식이기만 하다면 그것이 늘쌍 들어오던 판박이소리이건 아나마나 시시한 얘기거리건 하나같이 락이었다. 남편이 장날마다 가져오는 소식들이 이 산중에 들어와 뿌리내릴 첫시절에는 그저 호기심의 만족을 위해 필요했었는데 달이 가고 해가 바뀔에 따라 자신이 점점 이야기의 주인공들-고을사람들속에 깊이 파묻혀들어가고있음을 깨닫지 않을수 없었으며 고향의 그곳 사람들처럼 친근하게 느껴졌다. 그리하여 어떤 때는 남편의 입에서 어느 갖바치의 이름이, 혹은 어느 거간군의 이름이 나오지 않으면 제편에서 먼저 채근하여 그를 놀래우기도 하였다. 원추리에게는 남편이 읍에 다녀와서 전하는 소식의 토막들마다가 세상과 자기를 이어주는 그 어떤 숨결처럼 생각되어 한없이 소중한 다... 남편의 움직임들을 커다란 우려를 안고 지켜보는 지금도 여느때같은 기쁨의 한때를 즐길수는 없을망정 어떤든 무슨 말이 나오기를 묵마르게 기다렸다.

《난 오늘 너무 고단해서 못견디겠구려.》

상을 물리고난 남편은 눈도 들지 않고 침울하게 뇌었다. 행여나 기다리던 그 무엇이 이것이 전부였다. 원추리는 오늘따라 남편이 자기 심정을 몰라주는것만 같아 몹시도 섭섭하고 안타까웠다.

남편은 잠들지 못했다. 못견딜 지경으로 고단한 사람같지 않게 몸을 자주 뒤척였다. 짓눌린듯한 신음소리조차 간간히 새어나왔다. 밤이 깊어갈수록 원추리는 애가 타서 정신이 맑아졌다. 남편에게 닥친 일이 무엇인지 알고싶어 안이 달았다. 그의 가슴을 활활 해집고 씨원히 들여다보고싶었다. 그 아무리 큰 불행일지라도 자기와 나누어가질수만 있다면 거기에서 빠져나올것 같았다. 아니 전부 자기 한몸에 맡아나서고싶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조차 못하니 기가 막혔다.

애끓는 불안을 안고 모대기던 그의 머리속에는 그로서도 놀라울만치 소박한 피가 문득 떠올랐다.

(거짓잠을 자자.)

자기가 잠만 들면 남편이 무슨 행동을 할것 같은 예감이 들었던것이다. 그는 곧 꼼짝않고 숨소리를 높여 잠든 흉내를 내었다. 아널세라 남편은 슬그머니 옷몸을 일으켰다. 원추리는 캄캄한 어둠 한가운데서 그의 불타는 눈길을 감촉하였으며 뜨거운 숨결이 얼굴에 부딪치자 으시시 몸을 떨었다.

(?!)

무엇이라고 웨치고싶은 충격이 복받쳐올랐으나 목이 짹 메여 숨이 막혔다. 어느 사인이 아드래우로 몸을 낮추 수그리고 이윽도록 들여다보던 남편은 그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나서 애달픈 한숨소리와 함께 문밖으로 사라져버렸다. 어망결에 후두두! 뛰는 원추리의 가슴속에는 뒤쫓아가고싶은 욕망이 불길처럼 일어났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그 어떤 억센 힘이 내려누른듯 꼼짝할수가 없었다.

이윽고 외양간쪽에서 인기척과 함께 말자같이 부딪치는 소리가 가볍게 들려왔다. 그 소리에 끌리듯 그는 벌떡 일어섰다. 선뜻 뛰쳐나가기 저어되어 조심히 방문을 열고보니 남편의 발걸음소리는 봉당쪽으로 옮겨지고있었다. 한순간 원추리는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몰라 안절부절하였다. 하늘처럼 믿고있는 소중한 이가 영영 헤어나지 못할 구렁텅이로 빠져드는것만 같아 눈앞이 캄캄하였다. 봉당안으로 들어간 남편은 무엇을 하는지 팔술불을 쳐놓고 부스럭거렸다. 오라지 않아 원추리의 행동은 몸에 배여있는 순종의식에 의하여 결정되었다.

아무것도 숨기지 않던 사람이 이 밤중에 남몰래 떠나려 할적에는 틀림없이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다. 하다면 그 아무리 막아서고싶어도 그래서 안된다.

남편의 뜻이면 그것이 어떤것이던 결코 어길수 없는 자신이 돌이켜지자 어언간 리성이 머리를 들기 시작하였다. 마다해서는 안될바치고야 도와줄이 옳다. 여기에 이르러 그는 자기의 도움이 중한 일을 치르러 나가는 남편의 어려운 고비마다에 적으나마 보탬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는 토방을 내려 말외양간앞으로 갔다. 보다 먼저 말의 길차비부터 알아보고싶었던것이였다. 말잔등에는 이미 안장이 지어져있었으나 구유통은 빈채로 있었다. 배끓은 말을 떠나보내서는 안된다. 그는 급히 옷방으로 들어가서 결보리 한말박을 푹 퍼내왔다. 그것을 구유통에 쏟아놓고 말자갈을 벗겼다. 잇달아 물동이를 구유통에 가져다두고 부엌으로 뛰어들었다. 시렁우의 도시락을 내리워 저녁에 먹다남은 찬밥을 주걱이 휘친거리도록 꼭꼭 눌러담았다. 새로 밥을 짓고 하다못해 닭알범벅이라도 개고싶으나 남편의 거동으로 보아 그럴 여유가 없는 것이 뻔하여 있는대로 꾸릴수밖에 없었다.

(이밖에 자실게 뭐 좀 없나? ...)

이제 남편이 자기결을 떠나기만하면 꼭 굶주릴 듯싶어 애가 났다.

무명보자기에 꼭꼭 꾸린 도시락을 말안장에 달아매고있노라니 남편이 다가왔다. 그가 든 창자루 끝에는 싯혀연 창열(창날)이 서늘하게 번뜩였다.

《여보 ! ...》

《...》

《당신은 자지 않고있었됐구만.》

《-》

《내가 봉당에서 창열을 맞추는 사이 당신은 많은 일을 했구려. 난 그저 급한 마음에 말먹이같은건 엄두도 못냈지... 당신이 이럴줄은 정말 몰랐소. 도리어 알가봐서 그만...》

말끝을 흐리는 남편의 음성은 놀랍고도 목메인 감사의 정에 젖어있었다.

순간 원추리의 머리속에는 어제저녁의 어둠던 그 모습과 잠못드는 모대김의 신음소리 그리고 차갑게 번뜩이는 지금의 저 창열이 한데 엉켜돌아갔다. 이 현상은 하나하나가 새삼스럽게도 남편에게 위험이 닥쳤음을 알리는 산 증거로 뚜렷이 안겨왔다. 간담이 서늘해진 그는 마치 구원의 손길을 붙들듯 안장을 와락 부여안고 흐느끼기 시작했다.그러자 《으-음! 》하고 드센 힘에 목이 졸리우기라도 하는듯한 신음소리가 남편의 입에서 새어나왔다. 드디어 그는 원추리의 어깨에 손을 얹고 목에서 억지로 끌어내는것처럼 떠벌떠벌 뇌였다.

《당신이 이렇게 알게 됐으니 이젠 차마 그냥 떠날수가 없구려... 저 토방에 좀 가 앉읍시다...》

숫 한곳을 새로 구워내던 지난 며칠사이 왜적은 벌써 연안성을 에워싸버렸다. 그러나 현삼이는 어떻게 해서라도 들어가보려고 애를 썼다. 숫으로 대장간의 불을 일구려는 열망은 초조한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세차게 타올랐다. 죽던살던 고향사람들과 함께 있고싶었던만 홀로 떨어져있으려니 천벌받을 죄라도 지는것처럼 괴롭고 애가 났었다.

요행 빠져들여갈 틈이 있을가 하여 이곳저곳 찾아다녔다. 했건만 물문은 바가지에 참깨알 엉기듯이 새까맣게 득실거리는 왜놈들이 어떻게나 겹겹이 들어불었든지 족제비마저 새나갈 길을 못찾을것 같았다. 놈들은 성벽으로부터 활 한바탕거리를 훨씬 벗어나 멀리 포위진을 쳤지만 위낙 씨더구니가 엄청나게 많고보니 자그마한 읍성은 벌써 놈들의 줍안에 든것이나 다름없이 패버린것이였다.

어떻든 성안으로 들어가야만 할 현삼은 행여 틈을 찾아 적진뒤를 끈덕지게 돌았다. 남산(연안읍앞의 나지막한 산으로 고을을 면한 동쪽의 주봉부분이 성안모서리에 들어와있었다.) 기슭 솔밭까지 이르렀던 그는 놈들의 움직임에서 색다른 기미를 발견하게 되자 흠칫 멈췄다. 남산의 주봉을 안고돌아간 성벽으로부터 룡선을 따라 장바 대여섯기장을

나가서는 서쪽으로 턱이 졌는데 그밑의 싯누런 흙버럭더미가 주의를 끈것이였다. 동술포기뒤에 몸을 숨기고 자세히 살펴보니 벼랑턱에 난데없던 굴아구리 하나가 뺑 뚫렸고 그안에서 가족부대를 둘러멘 놈들이 불개미새끼들모양으로 꼬리를 물고 기여나와 흙을 쏟아버렸다.

(? ...)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했던 그는 곧 정신을 가다듬었다.

(저건 성밀을 향해 뚫고들어가는 땅굴이다 !)

눈앞이 아찔해지는 순간 이를 악물고 자신을 다잡았다. 버럭무지가 아직 벼동가리 서너개만큼밖에 안한것으로 미루어보아 흉계가 시작되지는 그닥 오래되지 않은듯싶었다. 너무나 놀랐던 나머지 혹시 헛것을 보지 않았는가 하여 다시금 지긋이 눈총기를 모았다.

(땅굴 !)

엄연한 사실이 확증되자 온몸의 피가 얼어들었다. 성밀으로 한치한치 뻗어나가는 땅굴- 이것은 아무도 모르게 성사람들모두의 목을 겨누는 창끝이다 !

이 위험천만한 비상사태를 당장 성안에 알려야 했다. 그러지 못하고 어물거리다가는 두더지마냥 땅속에서 기여나온 오랑캐무리한테 고향사람들은 모조리 참화를 당한다. 이리하여 성안으로 들어가려는 그의 마음은 더욱 굳고 조급해졌다. 환도이던 창이던 어느 하나만 가져왔더라도 약한 고리를 찾아 맞다드는 놈들을 짓쳐버리며 뚫고들어가보련만 빈주먹뿐이니 오도가도 못하고 안타깝기만 하였다. 공교롭게도 어느새 날이 저물었다. 온갖 노력은 슬그머니 찾아든 어둠속에 속절없이 묻혀버렸다. 시시각각 타드는 마음을 애써 달래며 굴리를 짜내던 그는 집으로 돌아갈 작정을 했다. 칼이나 창을 가지고 되돌아와서 불의에 격투를 벌리며 뚫고들어가기 전에는 도저히 어쩔수 없었기때문이었다. 집에 와서는 안해에게 이런 사연을 알릴수 없었다. 결코 순순한 리별을 못하리라는 생각, 위험이 하도 크니 안해가 눈물과 애원으로 막아설지 모르며 정작 그렇게 될 때에는 차마 뿌리치지 못해 성으로 되돌아갈수 없게 될가보아 겁이 났던것이였다. ...

뜻밖의 사연을 접한 원추리는 놀란 가슴을 진정할수 없었다. 미처날뛰는 놈들의 칼부림밑에 무리로 쓰러지는 고을사람들, 위험을 알려려고 성문을 향해 달려가다가 조총탄을 들쓰고 꺼꾸러지는 남편, 이 두 환영이 한꺼번에 소용돌이를 일으키는것이였다. 피를 뿌리며 말우에서 떨어지는 남편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본 원추리는 그만 《아-안돼요 ! 》하고 부르짖었다.

정적...

정신없는 경황속에 남편의 절절한 목소리가 꿈
결처럼 들려왔다.

《…지금 성밖의 사람이란 우리뿐이구 또 놈들이
하는것은 내가 봤으니 알려줄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구려. 미리 성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들은
어디론가 다 피난을 가버렸으니까 그놈의 도움을
바랄 형편두 못되구… 설사 어떤곳에 누가 숨어있
다 한들 어느 순간에 땅굴이 맞창날지 모를판이니
무슨 하가에 찾아다니겠소. 생각할수록 그저 애가
타서 …》

남편은 기가 차서 말꼬리를 흐렸다.

접동, 접동, 접접동…

눈물을 툭툭 흘리는듯한 접동새의 울음소리가
구슬프게 들려왔다. 청승맞은 그 울음은 그 어떤 무
시무시한 재변의 예고같아서 원추리의 온몸에는 소
름이 끼쳤다.

《성이 깨어지는 날엔 고을사람들은 말할것 없구
여기 우리 집두 당신네 고향의 친정처럼 도록을 당
하게 될텐데 …》

《우리 고향처럼이라고요?!》

원추리는 깜짝 놀라 소스라쳤다. 그의 눈앞에는
왜놈들의 습격을 당했던 고향의 참혹한 정상이 번
개치듯 떠올랐다.

…원추리가 나서자란 고장은 바다가의 오בות한
포구마을이었다. 그가 열다섯살잡히던 어느 봄날
일본해적선 여러문척이 포구로 들이닥쳤다. 칼을
뽑아든 왜놈들이 새까맣게 뛰어나리더니 푹터뜨린
홍수처럼 마을로 휩쓸어왔다. 눈이 뒤집힌 놈들은
만나는 족족 사람을 찢러죽이고 쌀이며 무명, 집짐
승들을 닥치는대로 빼앗았다. 그러고도 성이 차지
않았던지 집집마다 불을 질러놓았다. 마음놓고 살
아가던 포구마을사람들은 창줄간에 무리죽음을 당
하고 포실하던 집들은 재더미로 변했다. 때마침, 소
금을 구하러 이 포구로 왔던 현삼이는 이 참화를
목격했다. 원한의 눈물을 뿌리며 타다남은 시체들
을 물어가던 현삼이는 마을변두리의 도랑창에서 원
추리를 발견했다. 미쳐날뛰는 놈들의 칼부림에 허
리어방이 찢린후 정신없이 도망치다가 도랑밑으로
굴러떨어졌던것이다. 비록 의식은 없어도 숨결을
느낀 현삼이는 그를 업고 80 여리를 달려 집으로
왔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원추리는 현삼이의
어머니에게 (그 어머니는 3 년전에 세상을 떠났다.)
운명을 의탁하였다. 혼기에 이르러 부부의 정을 맺
고보니 원추리에게 있어서 현삼이는 남편이기에 앞
서 생명의 은인이었다.

…원추리는 피를 토하고 쓰러지던 아버지와 어
머니 그리고 정든 이웃들의 처참한 모습이 너무나
도 생생히 되살아나서 간담이 서늘하였다. 그때와
똑같은 불길이 온 천지를 집어삼키는 광경앞에 부
닥친 그는 몸서리쳤다.

《일이 다 잘될테니 너무 걱정말고 기다려주
오.》

현삼이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절절히 부탁했
다. 가냘프게 떨고있던 어깨는 그 손의 무게에 눌리
우듯 안으로 우그러들었다. 마치나 그에 아주 막힌
것처럼 거칠게 오르내리던 숨결마저 찾아버렸다.

시간은 얼마나 흘렀던지…

어언간 현삼이는 안간힘을 쓰며 천천히 일어섰
다.

《가만, 조금만 계세요.》

원추리의 황급한 간청이 그를 멈춰세웠다. 방안
에 들어온 원추리는 화로불을 호호 불어 불꽃을 얻
어가지고 등잔을 밝혔다. 뒤주문을 열고 급히 던져
고리 하나를 끄집어냈다. 머리를 얹은 다음날 생전
처음으로 지었던 남편의 옷이었다.

현삼이는 안해의 첫 정성을 지극히 여겨 생일과
명절날에만 입군했었다.

원추리는 저고리의 앞섶을 헤친 다음 자기의 귀
밑머리 한오코를 가위로 갈라냈다. 그것을 쪼박지
천을 덧대여 안섶에 붙이고 징검징검 호았다. 그는
자기의 비단결같은 머리칼 오리오리가 남편에게 닥
치는 모든 불행을 하나하나 모조리 막아주기를 애
오라지 신령에게 빌고 또 빌었다. 덧옷에 부작을 붙
여들고 나온 그는 마침 외양간에서 말을 끌어내고
있던 남편앞에 조심히 내어밀었다.

《이게 뭐요?!》

《새벽선기에 고뿔이라도 드실지 몰라서…》

《…》

말없이 무슨 생각에 잠겨있던 현삼이는 한참만
에야 옷을 받아 천천히 꺼집고나서 더듬더듬 등자
에 발을 걸었다. 했던만 언제처럼 훌쩍 뛰어들어
지 못하였다. 마치나도 말잔등이 얼음둔덕이기라도
한듯 추어오르다가는 미끄러지고 미끄러졌다가는
되짚어 추어올랐다. 원추리는 바투 다가들어 그의
허리를 떠받쳐주었다. 그다음 말고삐를 끌고 울밖
을 나섰다.

《여보, 고뿔 이리 주오.》

《…》

원추리는 잠자코 마당을 지나 도랑을 건넜다.
남편을 바래워줄 때마다 한번도 잊은적이 없는 평
소의 습관이었다. 아니 이것은 숨을 쉬는것처럼 몸
에서 뿜수 없는 하나의 생리적 현상이었으니 앞을
가늠할길 없는 이 고통의 리별마당에서 그것은 더
욱 절절하였다.

《여보, 이젠 그만 들어가오. 첫째가 깨겠소…》

남편은 목이 메어 만류했다. 원추리는 한자국이
라도 더 가고싶었다. 끝까지 함께 가고싶었다.…그
는 어디까지 바래주고 어떻게 되돌아왔던지 알지
못했다. 방문을 넘어서자바람으로 잠든 어린것을
쓸어안고 울음을 터뜨렸다. 친길벼랑끝에 선듯 아
득하고 암흑천지로 변한 세상에 홀로 내쳐진마냥
무시무시한 고독감에 짓눌려 미칠것만 같았다. 그
의 눈물이 얼굴에 줄줄이 드리웠건만 어린것은 이
따금 쪼그릴뿐 그저 태평스레 달게도 잔다.

동이 텄다. 어둠을 밀어낸 새날이 밤새운 고통
마저 얼마간 덜어주었던지 한결 정돈된 원추리의
머리속에 남편의 위로가 되새겨졌다.

새벽에 갑자기 말을 달려 뚫고 들어가면 굳잠들
었던 놈들이 미처 손쓸새가 없지 않겠는가. 혹 파수
병놈이 접어들더라도 몇분 안될테니 찔러넘기면 ?
...

하늘가득 해가 퍼질수록 희망의 짙은 자라 그것
에 의지하여 하루를 견딜수 있었다. 해가 빛날 때에
는 마음 한구석이 밝아있었던만 땅거미가 기여들자
부터는 해별이 그것을 말끔히 걷어가지고 사라졌던
지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그는 아들을 업고 점도
록 서성거렸다. 근심이 가득한 눈길은 들창너머로
골짜기아래길을 줄곧 살핀다. 이제나 저제나 남편
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것이다.

《왜 상기도 안오실까?... 정말 무슨? ...》

벌써 몇번인지 모를 걱정을 곱씹은 그는 아들을
를 추스르고나서 바람벽에 기대섰다. 진종일 기다
리느라 몸과 마음 모두가 하사분히 지쳐버린것이다.
이마전의 머리카락 몇오리가 하르르 미끄러져 그늘
길은 불우에 난죽이 드리웠다. 그는 기진히 눈을 감
았다. 지지리도 보채는 땀쌀꾸러기의 밥투정처럼
성가시게 주절대는 시내물소리가 떠나보내지도 막
아나서지도 못할 남편의 운명앞에서 갈팡질팡 애끓
던 지난밤의 지긋지긋한 고통을 다시금 불러냈다.
그는 으시시 진저리를 쳤다.

베개를 찾아 잠든 첫째를 눕힌 그는 하루종일
열어놓았던 문가에 다가섰다.

방문을 닫아두면 어쩐지 남편의 돌아오는 걸음
이 더디어질것 같지만 생각되었거니와 문닫긴 집을
보았을 때 울밖에 이르렀던 사람의 기분이 상하게
될까 저어되어 한번 연 다음 다시는 단지 않았던
문이었다. 느릿느릿 기여들던 땅거미는 어느사이
칠혹같은 어둠으로 변했다. 간마르게 기다리는 사
람은 저속에 영영 묻혀버린듯 정신없이 내다보고
귀를 기울여도 기척이 감감하다. 가을의 짧은 날에
몇번이나 마중을 나갔던지 그자신도 모른다. 매번
골짜기굽이에 이를즈음이면 마음은 견잡을길 없이
울렁거리고 까닭모를 짜릿한 느낌이 피여올라 부지
중 가슴을 부여안곤했었다. 굽이를 돌아 탁 트인곳
에 나서기만하면 이마에 흰점이 유묘하고 가슴이
썩 버그러진 말을 탄 남편이 호기롭게 달려올것만
같았던것이다. 이런 마중길이 고삐를 거둬하게 되
자 생각은 다른 곳으로 흘렀다.

(일이 뜻대로 되게다. 그인 성안으로 들어가셨
어.)

했건만 잡아줄 근거가 없어 믿음성이 허약한 이
위안거리는 오래 가지 못했다.

(악마구리들이 겹겹 둘러쌓은데를 그이 혼자 어
떻게...)

애끓는 마음은 무사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녀원
과 《혹시 모르지》하는 의혹사이를 끊임없이 오락

가락하였으나 아주 잘못된 사람으로 생각되지는 않
았다. 언제부터인가 《하늘이 무너져도 정직한 사
람 솟아날 길은 있다.》는 관념이 슬그머니 자리잡
은것이였다. 문득 나타난 남편이 놀래워줄것만 같
았으며 행복은 의연히 이어지리라 믿고싶었다...

헛길일망정 이제는 날이 저물어 마중도 못나가
고 집안에서 뱅뱅 돌자니 숨답답한 조바심에 애만
타들었다. 안정을 잃고 허덕이는 그에게서 가냘픈
비탄이 새어나오기 시작하였다.

《아, 이제 정말 못견디겠어... 이러다간 정말 가
슴이 터지고야말지...》

《첫째 아버지, 어떻게 됐어요? 빨리 오시지 않
으면 애를 태우다 태우다 재가 된 저를 보시게 될
거예요. 첫째 아버지!》

흐느낌에 실린 목소리는 마가울의 모기소리처
럼 애처로이 떨면서 심사사나운 내물소리에 어울려
끝없는 적막속으로 헤엄쳐갔다.

뚜거덕, 뚜거...

별안간 바람결에 말발굽소리가 들려왔다.

《첫째야! 아빠 오신다!》

원추리는 와락 뛰쳐나가며 어망결에 웨쳤다. 굳
잠들었던 아들에는 몸을 한번 뒤채길뿐 깨어나지
못했다. 맨발로 달려나간 원추리는 빗장이 채 빠지
기도전에 대문을 밀어냈다. 얼없이 덤비치던 나머
지 어느새 다가선 말과 이마를 부딪쳤다. 말의 화끈
단 입김이 얼굴을 들썩였다. 그는 몸에 땀 버릇대로
말고삐를 받으며 했다. 그런데 고삐는 어느때처럼
주인이 앉은 안장쪽으로 향해있는것이 아니라 자갈
밑에 척 늘어졌다.

순간, 심장을 찢르듯 솟구치는 불길한 예감이
온몸으로 줄달음쳤다.

《여보, 첫째 아버지?!》

《...》

대답이 없다. 원추리의 손은 본능적으로 허우적
허우적 땀배인 말의 목을 더듬어나가다가 안장에
이르렀다. 끈적끈적한 무엇만이 즐벌할뿐 안장은
비였다!

확 풍기는 피비린 냄새, 말은 홀로 왔다.

《아! -》

처참한 비명, 녀인은 쓰러졌다. 산기슭의 띄갈
나무숲에서 불어닥치는 바람이 와스스! 와스스!
그우에 가랑이를 떨구었다.

...의식이 되돌아온 원추리는 그새 자기 주위를
땀돌면서 이마며 손등을 활아주고있던 말의 등에
올라탔다. 충실한 짐승이 낮까지 지켜주어 그로 하
여금 곧 일어나게 하였던지는 모른다. 원추리는 주
인의 마음을 알기라도 하듯 힘껏 내달리는 말에게
거둬거둬 웨쳤다.

《빨리...! 더 빨리!》

마음은 벌써 몸을 떠나 멀리 앞서날았다. 남편
이 놈들에게 사로잡혔던 피투성이가 되어 어느 숲
속에 쓰러졌던 오로지 찾아내고야말 그였다. 돌설

령이 가로질린 어느 길가에 이르러 문득 걸음을 멈춘 말은 머리를 푹 수그리고 무엇인가 냄새를 맡으면서 앞발통으로 바닥을 긁어댔다. 수상한 생각이 든 원추리는 눈총기를 모아 밭을 살폈다. 기다란 형체가 싹허영게 드러났다.

《첫째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원추리는 남편의 어깨박죽에 맞푼린 상처를 부리나케 닦아내고 잣진고약을 듬북 발랐다. 피기없는 입술에 젖은 수건찜질도 하고 팔다리도 주무르며 불러보았으나 이미 피를 너무 흘린때문인지 남편은 정신을 차리기는커녕 가느다랗게 이어지던 숨결마저 아주 잦아들어버리는것 같았다. 어쩔줄 몰라 헤뭇미던 원추리는 그만 그의 목을 쓸어안고 울음을 터쳤다.

《여보! 이게 어찌된 일이에요!》

아들애가 깨어났다. 눈이 울롱해서 멀뚱거리던 애는 네발걸음으로 벌렁벌렁 기어들었다.

《엄마!》

그 웅침소리에 놀란듯 현삼이는 움직였다. 흠칫 몸을 일으킨 원추리는 울음을 푹 그치고 첫째의 입을 손으로 막았다. 남편이 무슨 말인가 할것만 같았던것이다. 과연 그는 말을 할것처럼 알릴듯말듯 입술을 놀렸다. 그러나 잠간사이 다시금 굳어져버렸다. 그와 동시에 팔이 움직여 고을쪽을 가리켰다.

(뜻을 이루지 못하셨구나… 나한테 부탁하려고 되돌아오시다가 말에서 떨어져서 그만 거기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원추리는 이제야말로 자기가 남편을 대신할 때가 왔음을 푹푹히 깨달았다. 성사람들에게 어떻게 알릴것인가는 그때가서 봐야 할 일이었다. 했지만 그는 섣뜻 결심을 못내리고 질탕관의 두부장 꿔뚫하는 가슴을 주먹으로 사정없이 두들기며 몸부림쳤다.

(내가 떠나면 어떻게 해…)

숨겨가는 남편과 돌봐주지 않으면 살아가지 못할 어린것을 버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마지막 길을 떠날수 없었다. 이들에게서 손을 떼는것은 목숨을 그 손으로 빼앗아내는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생각이 머리를 치는 찰나 그는 몸서리를 치면서 미친듯이 부르짖었다.

《난 못가! 난 못간단말이야!》

온몸에 소름이 짹 끼치고 등골로 식은땀이 줄줄이 흘렀다. 남편의 입술이 또다시 실룩거렸다. 그것은 마치 《가오, 나 대신 어서 가오.》 하고 간청하는듯싶었다. 진정 간신히 남아있던 의식이 안해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이런 뜻을 전했다는 몰랐다.

《여보! 난, 난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남편우에 엎드려 몸부림치던 원추리는 《가주오, 알려주오. 그러지 못하면 고을이…》 하는 신신당부가 또다시 들리는것만 같아 어망결에 귀를 강구었다. 순간 그의 눈앞에는 고향의 불바다가 덮치듯 안겨들었다. 피에 주린 승냥이떼처럼 날뛰는 원

썩들, 이웃들의 처참한 아우성속에 류달리 귀청을 찢는 어머니의 비명, 온 동네에 깔리는 주검들, 하늘땅을 뒤덮은 불길, 불길…

연안고을로, 자기 집으로 그때처럼 달려드는 원썩의 무리가 푹푹히 보였다. 낮빛이 새까맣게 질린 그는 부들부들 치를 떨면서 이를 갈았다. 원한이 사무친 가슴속에 복수심이 끓어번졌다. 그는 이때에야 비로소 결코 다르게는 될수 없는 오로지 남편의 뜻을 받들어가야 할 자신의 존재를 뚜렷이 의식하였다. 그는 일어섰다.

《엄마!》

화닥닥 놀란 첫째가 다리를 얼싸안았다. 어쩔수 없이 몸이 굳어진 원추리는 간신히 타일렀다.

《첫째야, 아버지 말에서 떨어져 잠시 정신을 잃으셨다. 그러니까 빨리 깨어나도록 엄마가 약을 마련해야지. 이제 곧 술에다 그 약을 달이겠다. 넌 아빠결에 누워있다가 그새 아빠가 깨어나시거든 엄마는 약을 짓는다고 알려드려야 해. 그렇지 않으면 아빠는 엄마가 없는걸 보고 놀라서 또 정신을 잃으신다. 그래도 좋니?》

그는 은근한 엄포로 뒤를 다졌다. 명치가 빠개지는듯 솟구치는 슬픔을 억누르고 어린것이 곧 듣도록 구슬리려니 최후의 숨을 넘기는것 같은 심장의 아픔을 참을길 없어 그만 비칠거렸다.

《정말이야?》

《그럼, 정말아니고. 엄마가 언제 거짓말해왔니.》

첫째는 아무래도 믿어지지 않는모양 잔뜩 겁먹은 눈을 몇번 꺾거리더니 가느다란 한숨을 내쉬고는 아버지결에 드러누웠다.

부엌에 들어선 원추리는 손목에 자개바람이 일도록 드바빠 돌아쳤다. 땀나무를 연송 발끝으로 아궁안에 차넣으면서 쌀을 일어앓았다. 솔뚜껑을 닫기가 무섭게 부엌추녀밑에 달아뒀던 조병이를 들여다가 부리나케 부스러가지고는 잣진종발과 함께 남편의 손가까이 갖다놓았다. 잣진은 새살이 돋는데, 조병이가루는 피를 멈추는데 필요한 약이다. 치마감으로 말라두었던 무명을 쭉쭉 찢어 그우에 얹었다. 부리나케 일손을 놀렸으나 온몸은 남으로 부어내기라도 한듯이 꿈뜨게만 움직이는것 같았고 무엇하던 한가지라도 더 마련해주고싶은 마음이 하도 급하여 하나를 마련하면 또 하나가, 그것도 꼭 필요한것이 부족하게만 생각되어 속이 탔다. 이제 집을 떠나 성밀까지 가닿기전에 날이 새면 모든게 허사다!

창황서슬에도 이 사정없는 시간의 촉박감에 부대껴 안절부절못하는 그는 이밤이야말로 부디 길어주기를 속으로 빌었다. 밥이 잣자마자 푹배기에 퍼담으니 할수 있는 일은 이것이 마지막인셈이었다. 하건만 긴요한 무엇이 빠져 오라지 않아 정신을 차리게 될 남편이 애를 먹게 될가보아 차마 발길이 돌아서지 않았다. 큰산을 떠다놓는다 해도 성차지

않을줄 뻔히 알면서도 겁불 한대일망정 더 보태지 못해 안이 달았다.

녹아붙은것처럼 떨어지지 않는 발을 억지로 옮겨짚는 찰나, 한가지 생각이 번개쳤다.

《물!》

…날이 곧 밝을듯만싶어 속에 불이 달렸다.

(그이가 정신이 돌아오면 하나하나 손을 대시겠지.)

자기의 넋을 송두리채 남겨둔 원추리는 이 마지막 희망 하나만을 품고 발이 닳도록 넘나들던 문턱을 마지막 남아있는 힘을 다 들여 넘어서었다. 방문고리를 가만히 걸었다. 아들이 나가올가봐 겁이 나서였다.

외양간에 이르러 고삐를 매군하던 갈구리를 더듬었다. 고삐가 없다.

《어마나!》

말 없이는 일을 망친다! 그의 가슴은 졸지에 철렁 내려앉았다. 어망결에 소스라쳐 일어서는데 《나 여기 있소》 하고 자기를 나타내는듯 따뜻한 말주둥이가 어깨를 건드렸다. 원추리는 너무 반가와 말의 목을 짹 부둥켜안았다. 실신한 남편을 방으로 옮긴 다음 마당 한복판에 세워둔 말에 대해서는 감감 잊고있었다.

풀어놓은채였던만 충실한 짐승은 그 자리를 뜨지 않고있다가 안주인이 저를 찾는 눈치가 보이니 다가왔던것이다.

말을 끌고 울밖을 나선 원추리의 발은 그만 땅에 붙어버렸다. 이제 한번 떠나기만 하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보금자리, 위태로운 남편과 돌봐주는 이가 없으면 머칠이 못가서 잘못되고야말 아들에-삶의 전부였고 목숨이나 한가지였던 모든것을 여기에 떼놓고 몸만 떠나는 그의 가슴은 비틀리다 못해 정신마저 뒤집혀 미쳐버릴 지경이었다.

홀연, 방문이 화닥닥 열렸다.

《여보!》

가치 말라고 막아나서듯 남편이 손을 저으며 달려나왔다.

《엄마!》

어린것이 그의 뒤를 따랐다.

《앗!》

원추리는 쓰러졌다...

무심한 시간이 퍼그나 흐른뒤 그는 눈을 떴다. 황황히 두리번거렸다. 희복한 하늘을 배경으로 말이 자기 얼굴을 극성스레 핏고있을뿐 적막이 짙들어진 사위는 피피하였다. 방문은 여전히 닫혔고 등잔불빛만이 고즈넉이 흐를따름으로 모든것이 숨을 죽인 그대로였다.

(아... 내가 그만 헛것을 보았었구나.)

...물속처럼 어둡고 고요하던 골안에 말발굽소리가 메아리를 일으켰다. 오라지 않아 처량하게 여운을 끝던 그마저 가뭇이 사라졌다. 그러나 오막살이 문가에서 흘러나오는 불빛은 이고장 주인의 급한 발길을 밝혀주려듯 날이 썰 때까지 오래오래 머물거렸다.

...

일본침략자들을 물리치고 조국을 수호하기 위한 칠년간의 전쟁행정에서 연안성의 고수는 《특삼대첩》(물에서의 세계 대승리)가운데 하나로 력사에 올랐다. 이 연안방위전을 승리로 이끈 의병장리정암은 자기의 수기 가운데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겼다.

《...임진 구월초일일. 인시경(새벽 3~5 시) 별안간 적진중에서 깨어지는듯한 훗양퐁소리가 하늘높이 울리더니 잠들었던 적들이 벌떡처럼 일어나 피이한 소동을 일으켰다. 우리 성문파수들은 놈들의 동태를 주의깊이 살폈다. 적들의 아우성, 조총들의 울부짖음을 뚫고 훗양퐁을 두드려대는 어떤 필마단기(하나의 말탄 사람)가 성문을 향해 살같이 달려왔다. 그 말은 곧 조총탄에 맞았던지 적진과 성벽사이의 넓은 마당 한복판에 꺼꾸러졌다. 말을 탔던 사람은 맨땅우로 구겨박혔다. 일어서지 못하는 그로부터 녀인의 숨막히는 웨침소리가 성우로 날아왔다.

〈왜놈들이 남산마루에 땅굴을 파요! 남산... 땅구-울!...〉

사납게 달려든 왜군무리가 그를 덮쳤다. 연안사람들은 한동안 어리둥절했다.

위험을 곧 알아차리고 대책을 세웠지만 어떤 녀인이 어떻게 되어 나타나 참변을 막도록 해주었던지 통 영문을 알길 없었다. 그를 구원하지 못하여 가슴아팠으나 그가 누구인가는 반드시 알아야 했다. 아무리 수소문해보았건만 천만유감스럽게도 아무도 몰랐다.

요행 토배기사냥군 하나가 원추리의 목소리와 비슷한데 했다 하므로 크게 기쁜 나머지 얼른 불러다 따져본즉 입조차 열지 못한다. 목소리란 비슷한 사람이 많은법이요 그 또한 얼굴에 들은 소리라 똑똑한 대답을 못한다고 하여 책할바가 아니다... 아, 슬프다, 것처럼 비범한 애국렬사의 행적이 묘연하니, 그 녀인의 이름을 후세에 길이 전하지 못하는 죄 나에게 있는것 같아 그지없이 한스러울진저...》

임진란의 불길이 휩쓸고 지나간 연안땅, 산기슭과 골짜기마다에 원추리꽃이 만발하였다. 언제부터인가 길바쁜 나그네들이며 나물군녀인들은 한떨기 원추리를 만나기만 하면 그앞에 걸음을 멈추곤하였다. 그 까닭을 그자신들도 몰랐건만 어쩐지 마음의 고개가 숙어지는것이였다. 아마도 그래서였으리라. 누가 시킨적도 서로의 약속도 없었던만 사람들은 원추리를 떠다가 울밑에 가꾸기 시작했으니 그 꽃을 몸가까이 두고 늘쌍 마음속에 그리고있었기때문이 아니였는지. 더더구나 침략자들을 물리친 공지로 부푸는 처녀들의 가슴에 원추리는 붉게도 피어났다. 이때부터였는지 딱히는 모른다. 봄명절 처녀들이 명절의 첫 몸단장으로 이슬이 함초름한 원추리를 곱게 빗은 머리에 정성들여 꽂았다가 남몰래 사랑하는 총각에게 그 꽃을 안겨줌이 신성한 의무로, 더없는 자랑으로 뜨거운 심장속에 새겨진것은...

민요풍을 살려내는것은 민요의 민족시가적 특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본성적 요구

리동원

3대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 진군이 힘차게 다그쳐지고있는 현실은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에 넘쳐 혁명적인 노래를 힘차게 부르며 신심드높이 나아갈것을 요구한다.

우리 당은 해방후부터 오늘에 이르는 력사적 기간 민요를 바탕으로 하여 민족음악을 발전시키며 통속적이며 대중적인 인민가요들을 창작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고 현명하게 령도하여왔다.

그리하여 민요풍의 대중가요들이 수많이 창작되어 근로자들로 하여금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로력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서게 하였으며 생활에 대한 끝없는 열정과 풍부한 정서를 안고 사기충천하여 혁명과 건설의 진군길에 나서게 하였다.

민요는 우리 인민의 감정과 정서에 맞는 민족시 가형식의 하나이다.

따라서 우리 시대 인민들의 생활감정을 반영한 민요풍의 노래를 많이 창작하는것과 함께 지난날 우리 인민들이 즐겨부르던 민요들을 발굴하여 현대미감에 맞게 다시 형상하여야 한다.

민요는 우리 인민의 민족적 정서와 생활감정을 민족적 선률에 기초하여 생동하고 진실하게 반영하고있을뿐아니라 생활적으로도 알기 쉽고 부르기 쉽게 통속화되어있다. 우리 인민은 자연을 정복하고 사회를 변혁하며 강토를 지키기 위한 투쟁과정에서 선률이 맑고 은근하며 굴곡이 심하지 않고 부드러우면서도 아름다운 민요들을 수많이 창작하였다. 민요는 오랜 민족생활과정에서 창조된것만큼 조선 사람의 감정과 정서, 비위에 맞는 선률과 시가적 형식을 가진다.

민요는 민족적 정서의 표현으로서 언제나 조선 맛이 나는 민족적이며 인민적인 시가형식이다.

민요는 우선 조선사람의 감정정서와 비위에 맞는 맑고 부드러우며 우아하고 섬세한 정서적 특질을 가진다. 말하자면 우아하고 부드럽고 연한것을 기본으로 하여 류창하고 장중한것, 명랑하고 락천적인것이 조화롭게 어울려 풍부한 민족정서적인것을 나타내는것이다.

《아리랑》과 같이 부드럽고 유연한것이 있는가 하면 《울산타령》이나 《신고산타령》과 같이 류창한것도 있으며 《신아우》나 《배따라기》와 같이 장중한것도 있으며 《돈돌라리》, 《평북녕변

가》와 같이 명랑하고 락천적인것도 있다. 민요는 정서의 표현형식과 양상에서 서로 다른 특성들을 가지고있지만 그 모두가 부드럽고 우아하며 명랑하고 락천적인데서는 공통하다.

뿐만아니라 섬세하고 풍부한 정서로 차있는데서도 한결같다.

민요의 이러한 정서적 특성은 민요의 작시법에 뚜렷이 반영되어있다.

사적고찰의 견지에서 보면 조선민요는 일반적으로 4, 4 조, 7, 5 조의 음수물에 의거하여 부드럽고 우아하고 락천적인 감정정서를 드러낸다.

4, 4 조는 3·4, 4·5 조로 자주 변조되지만 정서를 안정감이 나게 그리고 부드럽고 고르롭게 형상할수 있는 특성을 가진다.

로동민요인 경우에는 3·3 조 음수물이 많이 침투되어있는데 이것은 보다 활동적이고 동적인 정서를 표현하는데 적중하게 쓰인다.

《논김매기노래》는 전형적인 4·4 조 형식의 가요이다.

서마지기 논배미가
반달인듯 떠나온다
저 달속에 모를 꽃아
두벌세벌 김을 매면
황금같은 벼가 나고
백옥같은 쌀이 난다

서마지기 논배미가
반달만큼 남았구나
네가 무슨 반달이나
초생달이 반달이지
초생달만 반달인가
그믐달도 반달일세

이처럼 안정감을 가지고 부드럽고 유연하게 정서를 살려낼수 있는것이 4·4 조음수물이다. 4·4 조음수물이 3·4 혹은 4·3 조를 좌우로 하여 변조되는 경우에는 보다 빠른 정서, 동적인 감정을 표현하는데 복종된다.

옹헤야 어절시고
잘도 한다 옹헤야
단둘이만 옹헤야
하드라도 옹헤야

(《보리타작》)

놓았다 좋다
쿵더쿵 찢는 방아
끝도 없고 한도 없어
후야장 긴긴밤에
동녘이 밝아들오네
에헤 에헤요
에헤 우여라 방아로구나

(《방아타령》)

7·5 조는 보통 3·4·5로 전개되어가는 음수
를 가진 민요에서 많이 볼수 있다.

이것은 장중하면서도 락천적이고 유연한 정서
를 표현하는데 적지 않게 쓰인다. 그것을 <긴아리
랑>에서 보면

아리랑고개 넘어 봄바람불고
도라지바구니엔 꽃잎이 진다
에루야 데헤루야
큰애기 긴한숨에 봄철이 진다

이렇듯 민요는 우리 인민의 민족적 정서를 우아
하고 부드럽게, 경쾌하고 락천적으로 담기 위한 요
구에서 4·4 조, 7·5 조 음수물에 의거하면서 여
러가지 변조를 보일뿐아니라 다양한 운율적 특색을
나타낸다.

이것은 민요의 민족적 정서와 함께 작시법적 원
칙을 효과적으로 살려나갈 때 민족시음악적 양상을
뚜렷이 할수 있다는것을 잘 말하여준다.

민요의 민족시가적 특성은 다음으로 절가적 구
성형식에서 뚜렷이 표현된다.

절가형식은 알기 쉽고 부르기 험할뿐아니라 인
민들에게 친숙해진 노래형식으로서 간결하면서도
표현능력이 풍부하고 서술기능이 다양한것으로 특
징된다. 절가는 간결하고 명백한 절구성형식을 취
하면서도 사람들의 내면세계를 깊이있게 전개하여
드러내보일수 있으며 생활을 서사적으로 펼쳐보일
수 있는가 하면 극적으로 일반화해나갈수도 있다.

실로 절가형식이야말로 인민들의 체험된 생활
감정을 여러모로 다양하게 펼쳐보일수 있는 구성형
식의 하나이다.

민요에서 감정정서를 점차 확대전개해나가면서
형상을 심화시켜나가는 구성조직의 하나는 점진적
구성형식이다.

동해나 울산에 밤나무그늘
경개도 좋지만 인심도 좋구요
큰애기 마음은 열두쪽치마
실백자 없어서 전복삼일세
에헤 에에헤라
울산은 좋기도 하구나

이렇듯 절가형식으로 독특한 인정미가 나도록
서정세계를 점차 전개심화시켜나감으로써 형상을
기름지게 하고있다.

점진법에서 물음형식의 절가는 뚜렷한 양상적
특징을 가진다.

나무 툽툽 고양이
어디 량반 죽었더냐

웨웨 죽었더냐
부뚜막에 앉아서
밥투정하다 죽었다네

무슨 행상 하든가
지게 행상하데
누가누가 울든가
암캐 수캐 울데

(《서울량반》)

가요는 물음을 주고 그것을 풀이하는 대답부분
에서 강조점을 찍으면서 형상을 점차 확대해나갈뿐
아니라 선명하고 명백하게 제시한다.

이런 점진적 구성조직은 수풀이, 달거리, 자풀
이 등 민요들에서 뚜렷이 표현된다.

병행적 구성형식을 취하는것은 민요의 독특한
구성법의 하나이다. 병행법은 각이한 대상을 병행
적으로 련거하면서 풀이하는 형식으로서 민요의 간
결성과 선명성, 통속성을 크게 보장한다. 특히 류사
한 대상을 병행적으로 련거하면서 대조시킴으로써

뚜렷한 표상을 줄뿐 아니라 반복운물적인 기복을 준다.

랑반은 가족신
상놈은 메투리
어른은 짚신
아이는 맨발

대상을 대비적으로 병행렬거하면서 독특한 형상적 제시성, 력점을 찍어주는것이 이 구성방식의 특징으로 된다.

《랑반》-《상놈》, 《어른》-《아이》를 대응대조시키고 그것을 풀이하여 《가족신》-《메투리》, 《짚신》-《맨발》로 대조시켜 력점을 찍어 줌으로써 몇개의 단어를 가지고도 사회현실을 심오하게 일반화하여주고있다.

병행적 구성조직에서 교차반복적 구성형식은 매우 특징적인 구성방법의 하나이다. 특히 교차부분에 의미적 및 선물적 력점을 찍으면서 조화로운 운물조성과 의미적 강조를 실현하는것은 통속가요의 특징으로 된다.

황새따위 논귀에 앉지 말아
농부님네 속썩는다
참새떼야 오조밭에 앉지 말아
농부님네 속썩는다
까막까치야 고조밭에 앉지 말아
부인님네 속썩는다

같은 대상적 의미를 가진 대상을 전개해나가면서 교차시켜나가는것은 의미적 강조와 반복운물적 기복을 뚜렷하게 조성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인것이다.

민요는 황새따위, 참새떼, 까막까치 등 같은 대상을 풀이전개하고 의미적으로 확대해나가면서 구조적으로 교차시켜 《농부님네 속썩는다》에 력점이 찍어지게 함으로써 형상을 심화시킬뿐 아니라 조화로운 운물이 조성되도록 한다. 이런 구성방법은 대응적 구성형식에 흥이 나는 후렴구와 조흥구를 배합하여 형상을 특색있게 심화시켜나가면서 선물을 잘 살려나가고있는데서도 뚜렷이 볼수 있다.

너도 농사꾼 나도 농사꾼
두 농사꾼이 호미를 잡고 간간돌아졌구나

얼싸종네 군밤이요
에라 삶은 밤이로구나

너도 대장 나도 대장
두 대장이 모로안고 간간돌아졌구나
얼싸종네 군밤이요
에라 삶은 밤이로구나

보는바와 같이 첫절의 선창구는 다 음절의 선창구와 대응되어있으며 첫절의 첫행과 두번째 행이 또한 대조대응되어있다. 대응법은 조화로운 반복운물적 기복과 간결성, 명백성을 보장하는데서 효과적인 시음악적 형식이다.

다음으로 민요는 구성형식에서뿐 아니라 언어표현형식과 수법에서도 고유한 민족시가적 특성을 집중적으로 체현하고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밝히신바와 같이 민요는 우아하고 풍부한 정서를 강한 형상적 표현력으로 생기발랄하게 형상한다. 특히 형상적인 비유법을 광범히 쓰며 의인법과 과장법을 특색있게 활용하고있는것과 함께 양태, 행동에 대한 독특한 형용법, 반복강조적 수법들을 다양하게 쓴다.

민요가 놀랄만큼 다양한 언어형상수법들을 격에 맞게 쓰고있는것은 인민의 재능의 총화로서의 민족시가적 특성의 하나가 아닐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민요의 언어형상적 수법은 비유로부터 시작하여 언어로써 형상할수 있는 모든 재능이 총화되어있다고 말할수 있다.

직접비유는 민요에서 가장 일반화되어있는 언어형상수법이다.

바다같은 논배미가
연잎만큼 남았구나
창해같은 넓은 배미
만석만치 졸라주게
네귀번쩍 약과배미요
돈짜처럼 줄어가네

(《모내기노래》)

숨은 비유는 몇마디의 말로 시형상의 깊은 뜻을 일반화하여주는 위력한 수단의 하나이다. 숨은 비유를 통하여 민요의 세련된 언어형상의 참뜻을 뚜렷이 보여주게 된다.

형님형님 사촌형님 시집살이 어떻게까

애야애야 말도말아 이살에 신물이 난다
고초당초 맵다더니 시집살이 더 맵더라
시집삼년 살고나니 미나리꽃 다 되였네
붓끝갈던 이내손이 오리발이 되여지고
삼단같은 머리채가 수팜송이 되였구나

(《시집살이》)

시집살이 삼년에 미나리꽃 다 되고 붓끝갈던 이내 손이 오리발이 되고 삼단같은 머리채가 수팜송이 된 생동한 은유적 표현에서 우리는 가부장적인 봉건사회에서 천대받는 여성들의 사회적 처지, 시집살이의 불합리성이 심각하게 일반화되어있는것을 뚜렷이 보게 된다.

민요에서 다양하게 쓰이는 비유적 수법에는 실로 독특한 인민적 지혜와 재능이 깃들어있다.

민요에서 의인법과 과장법은 독특한 묘를 차지한다. 의인법은 언제나 인민들의 생활과 연결되어 생동한 표상을 련상시킨다.

짚콩짚콩 짚콩짚콩
베틀다리는 두다린데
잉아대는 삼형제
누리개는 독형제
환경나무 북바디집은
이팔청춘을 안고만 도네

(《베틀가》)

여기에서 보는바와 같이 베틀로부터 잉아대, 누리개, 북바디집은 모두 의인화되어있다. 마치 근면한 형제들이 힘을 합쳐 베를 짜가는것과 같은 형상의 생동성을 준다. 형상이 의인화됨으로써 체험세계를 더욱 깊게 하여줄뿐아니라 형상을 더욱 생동하게 풍부화시켜나가게 한다.

과장법 역시 민요에서 특색있는 언어형상적 수법의 하나이다. 과장법은 대상을 두드러지게 표현하기 위하여 확대 또는 축소하여 강조하는 수법으로 쓰인다.

해는지고 달떠온다 강강수월래
하늘에다 베틀놓고 강강수월래

구름잡아 잉아걸고 강강수월래
별을 잡아 무늬놓고 강강수월래
째각째각 잘도짠다 강강수월래

(《강강수월래》)

실로 과장의 수법을 통하여 랑만적 정서가 자랑찬 화폭속에 생동하고 풍만하게 안겨올뿐아니라 로동정서가 부녀들의 지향과 결부되어 랑만적으로 제시강조된다.

이외에도 민요에서 다양하게 쓰이는 형용법은 대상의 양태와 성질을 놀랄만큼 생동하고 뚜렷하게 형상적으로 밝혀준다.

열매동동 검은 열매
요모저모 세모배기
조랑조랑 달렸구나

(《모밀국수》)

갑불갑죽 할미새
오불꼬불 록두나물
쪼개쪼개 콩쪼개

여러 대상을 성질과 양태에 맞게 방불하게 그려내는 형용법은 운률을 살리면서 정서를 더욱 풍만하게 해주는 위력한 형상방법이다.

이처럼 민요는 다양한 언어형상수법들을 능숙하게 활용함으로써 아름답고 풍만한 민족적 정서를 세련된 민족시가적 형식에 담아 민족적 색채를 더욱 진하고 뚜렷하게 살려내게 한다.

창작가들은 민요에 체현되어있는 우리 식 가요가 가지고있는 민족적 특성들을 찾아내어 현대성을 구현하는것과 함께 민요풍의 대중가요들을 더 많이 창작해냄으로써 당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해나가야 할것이다.

불이 붙는다

박명도

불이 붙는다
미제의 성조기에 불이 붙는다

거리에 떨쳐나와 뭉성할 때도
혈서의 프랑카드 높이 들고 시위할 때도
겹겹이 막아선 경찰 저지선너머
악마의 너울처럼 퍼덕이던 성조기

그 원쑤의 기발에 불이 붙는다
이루지 못한 《독재타도》
무참히 짓밟힌 《자주통일》
너무도 분해 너무도 억울해
20대 애젊은 열사들의 분노의 불이
성조기에 날아붙었다

어제는 광주를 피바다에 잠그고
오늘은 온 남녘을 총칼로 뒤덮은
천추에 용서 못할 죄행
만천하에 날날이 고발하며

불이 붙는다
미제의 성조기에 불이 붙는다

저것이 이 땅에 들어온 날부터

강토가 동강나고
민족이 갈라지고
혈육이 흩어지지 않았던가

차라리 우리 청춘
한줌 돌로 굳어진대도
미제를 몰아내는 이 성전에
화약이 되고 파편이 될수 있다면
열백번 분신하고 뛰어들리라

미국놈 《문화원》에
미국놈 대사관에
미국놈 병영과 핵탄고
미국놈 세상이 된 남녘땅에

오, 불이 붙는다
미제의 머리우에 불이 붙는다
분렬의 비극을 안고

더는 흘러갈수 없는 력사의 저 불길
사무친 원한이 터친 저 활화산을
그 무엇으로써도 끌수 없으리
미제가 재가 될 때까지는

금년도 《조선문학》에 발표된 작품들을 두고

지금 전국영웅대회의 전투적 호소를 높이 받들고 영웅적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기 위한 새로운 200 일전투로 하여 온 나라는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뜻깊은 올해는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혁명적 열정으로 들끓은 나날이었다.

이 기간 우리 문학은 자기의 자랑찬 행로에 뚜렷한 발자국을 찍었다.

우리 시문학은 당과 수령에 대한 우리 인민의 주도적 감정을 훌륭히 노래한 작품들을 창작하여 대건설행군에 나선 근로자들의 사상정신적 풍모를 노래하는데서 몇편의 인상적인 작품들을 남겼다.

또한 북부철길건설자 처녀들의 생활의 한 순간을 통하여 세대 청년들의 굳건한 성장과 정신적미를 정서적으로 밝힌 시 《봄, 처녀들이 웃는다》(엄형조, 3 호)를 비롯하여 《백두산의 단풍계절》(리찬영, 3 호), 《얼굴》(오필천, 2 호)과 같은 사회주의현실주제의 작품들, 시조 《인류에게 보내는 시》(문동식, 6 호)를 내놓았다.

이 시들은 그 주제의 참신성과 형상의 독창성으로 하여 독자들속에서 좋은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금년도 단편소설창작에서도 일정한 전진을 보였다. 단편소설은 독자들을 자기의 작품세계에 끌어들이는 독특한 매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자면 절실하고 의의있는 인간문제를 제기하고 깊이있게 풀어야 하는것이다.

사색과 탐구를 거쳐 독창적으로 제기하는 문제성이야말로 그것은 언제나 작가의 몫으로 된다.

단편소설 《백두산의 눈》(리명균, 6 호)은 주제의 적극성과 주인공설정의 특이성으로 주목을 끈다.

단편소설 《명령》(한웅빈, 6 호)은 시대정신이 맥박치는 전형적인 생활의 단면을 통하여 우리 시대 근로자들의 밝은 사상요소들을 예리하게 밝히고 그를 극복해나갈데 대한 시대의 요구를 민감하게 제기하고있다. 이외에도 단편소설 《한 당 일군에 대한 추억》(장기성, 2 호)을 비롯하여 여러편의 비교적 우수한 작품들이 있다.

혁명적 평론의 당적 원칙성과 선도성을 높이는것은 문학을 건전한 토대우에서 발전시키기 위한 필수적 요구로 된다.

혁명적 평론은 작가에게 충고와 방조를 주며 창작사업의 옳은 방향을 가리켜줌으로써 당문제 정책을 철저히 옹호관철하는데 있다.

평론 《생활적이며 철학적인 시와 가사 창작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리수립, 10 호), 평론 《현실주제의 작품창작에서 애정론리문제의 설정과 그 해명》(리창유, 8 호), 단평 《체험의 진실성과 생동한 시형상》(승경희, 4 호)등 여러편의 평론들은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행정에서 거둔 성과와 경험을 리론적으로 일반화함으로써 당정책의 정당성과 위대한 생활력을 널리 소개선전하고있다.

그러나 금년도 《조선문학》에 발표된 작품들을 보면서 우리는 시급히 극복하지 않으면 안될 결함이 있다는것을 말하지 않을수 없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작가, 예술가들은 자기들의 창작사업에서 비판과 자기비판을 활발히 전개하여야 하겠소니다.》

우리 문학이 오늘의 현실을 앞서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새로운 시대적 성격을 선명하게 창조하여야 한다. 작가들은 우리 주인공들에게 전투적인 새 생활을 새롭게 부여하여 시대의 선구자로서의 높은 리상과 불타는 열정, 힘찬 진군을 펼쳐보여 주어야 할것이였다.

이런점에서 보면 금년도 시문학창작에서는 심중한 결함을 나타내었다. 그것은 200 일전투의 승리에 이바지하는 좋은 시들과 반미, 반파쇼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노래하는 훌륭한 시들을 써내지 못한것이다.

이것은 우리 시문학이 들끓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였으며 자기의 전투적 사명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을 반영한 훌륭한 시는 천만사람들의 가슴을 격동시키며 그들을 혁명적 투쟁으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추도시 《복수의 칼을 들라 !》는 시대와 인간에 대한 철학적 사색에 기초한 시인의 독창적인 발견으로 하여 높은 형상성을 체현하고있으며 인

민들을 투쟁으로 부르는 시대의 메아리로 울리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시작품이 창작되어 《조선문학》에는 실리지 못하였다.

소설문학창작도 사정은 비슷하다. 아직도 우리 소설작품에는 새롭고 특색있는 종자들이 덜 발견되고있으며 엇비슷한 성격들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버젓이 얼굴을 들고 한자리 차지하고있다.

이것은 우리 소설가들이 독창적인 사색과 혁명적 생활에로의 적극적인 탐구정신이 부족하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우리의 평론문학은 평론의 선도적 역할을 계속 적극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혁명적 문학예술의 창조와 발전에서 혁명적 평론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을 심오히 통찰하시고 평론의 선도적 역할을 높일데 대하여 명백히 밝혀주시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평론들은 평론의 선도적 역할을 적극 수행하지 못하고있다. 작품평을 하는 경우, 어떤 작품이 성과를 거두었다면 그것이 우리 문학발전에 새로 기여한 문제는 무엇이며 어떠한 의의를 가지는가를 민감하고 예리하게 포착하고 설득력있게 론증하여야 할것이다. 그런데 일부 평론들에서는 한작품을 그 범위안에 국한시켜서 분석하는 실무적인 글들을 쓰는데 이런 평론들이 문학발전에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것은 말할것도 없다.

새해부터 우리 작가들은 심도있는 문제작을 더 많이 창작하여야 한다. 우리 문학이 내세우는 영웅적 주인공, 그것은 생활속에 있는 근로자들의 기계적 재현을 의미하지 않으며 작가자신의 인간적 개성 그자체를 의미하는것도 아니다.

그것은 작가가 전진하는 생활속에서 찾아낸 새롭고 의의있는 감정의 싹을 높은 시대적 리상과 강렬한 열정의 조명아래 승화시키고 확증하면서 새롭게 창조해낸 전형적인 생활감정을 의미한다.

작가들은 새로운 시대적 성격의 창조를 위하여 지난날의 형상세계를 대담하게 혁신하는 적극적인 탐구으로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하여 높은 미학적 리상과 현실공정의 열정을 가지고 들끓는 현실에 더욱 깊이 침투하여야 한다.

우리의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시문학은 마땅히 새로운 200 일전투가 가지는 심오한 의미를 열정적으로 노래하는 좋은 시작품들을 내놓아 우리 인민을 크나큰 긍지와 신심, 새로운 투쟁의욕으로 고무하는 작품들을 써내야 한다.

소설작품에서 의의있는 사회적 문제를 제기하고 시대의 요구에 맞는 전형적 성격을 창조하는것, 이것은 현실생활에 대한 소설가의 높은 열정과 지향을 전제로 한다. 우리 소설가들은 시대의 요구에 맞게 단편소설창작에서 혁신을 가져옴으로써 주체문학의 화원을 더욱 활짝 꽃피워나가는 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현실에 대한 평론가의 명백한 관점과 립장, 적극적인 태도가 없이는 평론의 선도성을 보장할 수 없고 작가들에게 옳은 창작방향을 제시할수 없다.

새해부터 우리 평론가들은 심도있는 문제평을 더 많이 써내야 한다. 그래야 시대를 선도하며 작가들에게 명백한 창작방향을 더 잘 가리켜줄수 있다. 또한 평론의 문제도 명백하며 주장이 당당하고 설득력이 있어야 할뿐아니라 논쟁적이고 힘차야 한다.

당과 수령의 위대성에 대한 굳은 신념과 높은 민족적 자부심, 자력갱생의 강의한 의지와 혁명적략관, 당의 명령지시관철에서의 절대성과 전투적열정으로 충만된 오늘의 영웅적 주인공을 빛나게 창조하기 위하여 작가들은 모두가 헌신하자.

그리고 작가들은 시대의 장엄한 호소와도 같이 기백있고 탄력있게 심장을 파고드는 시들과 함께 전투적이고 량만적인 생활속에 시대의 위훈자들의 사상감정을 진실하게 형상한 소설들, 평론의 선도성을 보장하는 다양한 글들을 많이 창작하여 우리문학을 대건설행군장마다에 진군의 기발처럼 휘날리게 하자.

이것은 당과 혁명이 우리 문학앞에 부과한 성스러운 시대적 과제이며 우리 인민이 작가들에게 제기하는 절실한 생활적 요구임을 깊이 알아야 한다.

모든 작가들은 시대와 혁명의 요구를 깊이 자각하고 훌륭한 작품을 더 많이 창작하자.

편집부